



2012

# 서울시 기술창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방안

A Study on the Strategy to Build a Virtuous Cycle of  
Technology-based Start-up Ecosystem in Seoul

신 창 호 · 김 목 한

# 서울시 기술창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방안

A Study on the Strategy to Build a Virtuous Cycle of  
Technology-based Start-up Ecosystem in Seoul

2012

## ■ 연구진 ■

연구책임 신 창 호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연구원 김 목 한 • 시민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정 현 철 •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요약 및 정책건의

### I. 연구개요

- 서울은 이미 성숙경제에 진입하여 높은 성장과 고용창출을 기대하기 어렵고,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로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전환기에 직면
  - 이러한 변화 시기에 요구되는 것은 혁신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창업하려는 인재와 우수한 지식·기술이 필요함
  - 이는 기술과 지식에 기반을 둔 기업의 창업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하는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
- 기술창업은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서 개발된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혁신이 창출되고, 시장에 새로운 제품을 제공하며,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정을 거쳐 지역경제 성장과 활성화를 야기하게 됨
- 서울은 기술창업을 위한 기술과 인재들이 풍부하며, 창업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다양하게 갖추고 있음
  - 그러나 지식과 기술에 기반을 둔 창업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우수한 기술과 인재들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이 연구는 서울에서 기업가정신에 충만한 사람들이 지식·기술을 가지고 대량 창업하여, 높은 성공률로 성장하고, 성공한 기업들의 집적을 형성해 나가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술창업을 기술개발, 지식혁신, 창업, 사업화 등 경제주체들의 활동·정책·제도·문화적 환경 등과 연계하는 생태계적 관점에서의 정책 방안을 검토함

## Ⅱ. 주요 연구내용

### 1. 기술창업의 정의와 선순환 생태계 분석틀

- ‘기술창업’이란 ‘혁신 기술과 지식을 창출하는 기업의 창업’으로 정의되나, 실질적으로는 해당 기업군을 정의하는 공통의 기준이 없어 이에 해당하는 산업이나 제도를 통해 우회적으로 정의되는 추세
  - － 기술보증기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창업진흥원 등도 첨단·고기술 업종을 기술창업의 주요 산업으로 선정하고 해당 산업에서의 창업을 사실상의 기술창업으로 정의
  - － 또한 벤처기업·이노비즈 기업 등 기술집약적 기업 인증을 새로 받은 기업을 기술창업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기술창업의 추세를 파악
-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신성장동력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창업의 범위를 한정하고 사업체 창업, 벤처기업 등 대리변수를 사용하여 서울시의 기술창업 추세를 파악
  - － 서울시의 「서울경제비전2020」의 8대 신성장동력산업(비즈니스서비스, 금융, 관광·MICE, IT융합, 바이오메디컬, 녹색산업, 콘텐츠, 패션·디자인)을 서울시의 기술창업 대상 산업으로 한정
- 생태계(Eco-System)는 상호작용하는 유기체들, 그리고 그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주변의 무생물 환경을 묶어서 부르는 말
  - － 이 연구에서는 기술기업의 창업·성장·집적을 가능하게 한 산학연의 다양한 조직 및 기관의 연계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지식, 인재, 자금 흐름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낸 선순환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선순환 생태계라는 개념을 사용
- 기술기반 기업의 대량 창업, 성장, 집적을 위한 생태계 구축 모델은 일정한 규모의 기술과 인재의 집적이 창업을 촉진하고 성공으로 이끌어 성공기업의 집적으로 전환하는 생태계 구축과정을 가시화함

—생태계 조건 충족기

- 일정한 규모의 기술과 인재의 집적(필요조건), 기술 창업예비자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지원제도(충분조건)의 정비
- 기업 및 대학·기관 등에서 기술을 지닌 창업예비자를 창업자로 이끌어내 창업자의 집적이 이루어짐

—생태계 형성기

-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결합을 통해 대량의 기술창업과 성장으로 전환하는 시기
- 자금·인력 등의 제공을 통하여 기술창업이 증가하고 정보·시설 등의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이 성장하며 홍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술 창업을 이끌어냄

—생태계 확립기

- 기술기반 기업의 집적을 통한 하이테크 신산업이 형성되는 시기
- 대량 기술창업이 이루어지고 성공기업의 연계 협력체제가 갖추어지게 되면 기술기반 창업의 선순환 생태계가 마련됨

## 2. 기술창업 환경과 실태

### 1) 생계창업위주의 국내 창업 환경

- 우리나라의 초기창업활동은 혁신주도형 국가 중에서도 낮은 편이 아니나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혁신주도형 국가 중 가장 높은 반면, 기술창업과 유사한 기회포착형 창업의 비중은 혁신주도형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 GEM(2011) 조사 대상 23개국 중 한국의 2011년 생계형 창업비율은 53.4%로 1위, 기회포착형 창업비율은 46.6%로 23위를 기록함
- 또한 창업기회와 창업능력에 대한 인식이 여타 혁신주도형 국가에 비해

낮고, 창업에 대한 두려움은 높게 나타나며 최근 몇 년간 이런 추세는 더 심화

## 2) 서울 중심적 기술창업 생태계의 확장과 중심성의 약화

- 벤처기업은 2003년 이후 전국과 서울 공히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국 대비 서울의 벤처기업 수는 감소하는 추세
  - 전국적으로 2003년 7,702개에서 2011년에는 4배에 가까운 26,211개로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며, 서울은 2011년 기준 5,962개로 벤처기업 전체의 1/5이 서울에 입지
  - 하지만 전국 대비 서울의 벤처기업 비중은 2005년 36.1%에서 2008년 24.1%, 2011년에는 21.7%로 지속적으로 감소
- 벤처투자액은 2003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서울시의 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엔젤투자액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등록 엔젤투자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급감
  - 2011년 신규 벤처투자조합 결성금액은 역대 최고치인 2조 2,591억원이며, 2011년 벤처투자실적은 1조 2,608억원으로 나타나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 전국대비 서울시의 투자비중은 2006년 약 58%에서 2011년에는 40% 미만으로 낮아짐
  - 2000년 5,493억원이던 엔젤투자 금액은 2009년에는 346억원으로 감소
  - 최근 등록 엔젤투자자는 2012년 4월 기준 총 1,038명으로 참가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투자자가 845명으로 대다수

## 3) 신규 창업사업체의 감소와 대비되는 법인화 증가 추세

- 전국 및 서울의 신규사업체는 200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하는 추세를 나타냄

—2004~2009년 전체 서울의 총 신규사업체 수는 855,943개이고, 총 휴·폐업사업체수는 878,683개로 6년간 22,740개의 사업체가 줄어들어 연평균 3,790개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반면, 전국 및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2008년을 기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며 서울은 특히 서비스업의 신설법인화가 두드러짐

—2008~2011년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15,000개 정도 증가하여 2011년 현재 65,110개

—2011년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22,486개로 전국의 1/3 수준이며, 이중 80.0%가 서비스업으로 전국 수준 62.8%를 크게 상회한 반면, 제조업은 13.3%로 전국 평균 23.9%의 절반 수준

#### 4) 생계창업에 비해 비중은 낮으나 평균 고용규모는 큰 기술창업

○서울시의 전체 창업을 추세를 살펴보면 2000년 19.6%를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다시 늘어나는 징후를 보임

—2009년 서울시 창업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

○2009년 기준 창업사업체의 절반 이상이 생계형 창업의 대표적인 업종인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발생하였으며, 기술창업은 창업 비중이 낮으나 단위 사업체당 고용규모가 크게 나타나 고용창출 면에서 바람직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은 각각 24,836개(28.31%), 20,761(23.66%)로 전체 창업사업체의 절반 이상이 이 두 생계형 산업에서 발생

—반면 제조업, 정보서비스업, 기술서비스업 등 기술창업과 연관된 산업에서의 창업사업체는 각각 4,051개(4.62%), 1,432개(1.63%), 2,586개(2.95%)로 10% 미만

—하지만 생계형 창업의 단위 사업체당 고용 규모는 약 3명으로 제조업의 3.8명, 정보서비스업의 8.5명, 기술서비스업의 9명에 비해 낮게 나타남



## 5) 주요 기술창업 산업에서의 창업률은 최근 증가세로 전환

- 서울시 기술창업현황을 서울시 8대 신성장동력산업을 중심으로 파악해보면 전반적으로는 서울시 전 산업과 같은 하향 추세를 보이나 2007~2009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섬
  - －8대 신성장동력산업 전반에서 서울의 기존 해당산업 집적권역을 중심으로 창업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유일하게 창업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 바이오메디컬의 경우에도 등락은 있었으나 다른 신성장동력 산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증가 추세로 돌아섬
  - －녹색산업과 관광/MICE 산업은 최근 정체하는 추세이나 창업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인 신성장동력 산업의 추세를 후행하여 따르는 경향을 보임

## 3. 기술창업기업의 정책수요

- 향후 서울시 기술창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방안을 확립하기 위해 예비창업자 및 기술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수요 조사
  - －조사항목은 일반현황, 일반인식, 기업매출 및 환경, 애로사항, 정책수요의 5개 범주로 구성

〈표 1〉 조사설계 개요

구분	예비창업자	기술창업기업
조사대상	①서울시 관내 대학교 운영 창업보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 및 창업준비자 ②대학의 창업동아리 학생 ③하이서울창업스쿨의 기술창업교육 수강대상자	①기술창업관련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성수IT센터, 서울신기술창업센터, 서울창업지원센터) ②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 포함) ③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방문면접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방문면접 또는 협조요청 및 FAX/E-mail 조사

〈표 계속〉 조사설계 개요

구분	예비창업자	기술창업기업
표본추출	16개 대학 소속 센터 전수조사 및 기술창업 교육대상자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 및 기업체 리스트 무작위 추출
유효표본	152명	총 350개 기업체 (①27개 ②295개 ③28개)
조사기간	2012년 5월23일 ~ 6월21일	

○ 일반인식

- 창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요인으로 예비창업자와 기술창업기업 경영자 모두 널리 알려진 성공 창업 사례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고, 이어 예비창업자는 소모임 활동, 경영자는 지인의 사업 경험 등을 선택하였으며, 창업에 대한 사회경제 분위기도 주요 요인으로 지적
- 예비창업자, 기술창업기업 경영자 모두 인터넷을 통한 창업정보습득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예비창업자들은 창업동아리/모임 등을 통한 정보습득이 높았던 반면, 기술창업기업 경영자는 방송/신문, 창업박람회 등 공식경로를 통한 정보습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창업의 목적으로는 공통적으로 도전 욕구, 삶의 만족도 향상, 높은 소득 등이 높았으며, 예비창업자는 자아실현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보다 현실적인 목적을 중시하는 기술창업기업 경영자와 차이를 보임
- 창업을 결심하게 된 동기로는 예비창업자와 기술창업기업 경영자 모두 창업에 대한 기대와 성공한 기업가 사례가 주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창업비용상의 우위나 주변 지인의 성공 등이 뒤를 이었음
- 예비창업자는 창업 성공을 위해서는 인적 네트워크 및 협력과 마케팅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기술창업기업 경영자는 무엇보다 혁신적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대조를 보임

○ 기업매출 및 환경

- 전년도와 비교할 때, 올해 경영상황은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악화 전망 이유는 매출 부진, 호전 전망 이유는 마케팅 활동 강화가 각각 주된 요인으로 꼽힘

- 기술창업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정체하고 인건비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기업 경영자는 인력 확보를 할 때,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인력의 부족 문제를 가장 많이 겪는 것으로 파악됨
- 기업의 R&D 투자 및 설비 투자 현황을 보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인 가운데 없다는 경우도 절반 안팎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1년에는 평균 R&D 및 설비 투자 실적이 동반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
- 기업이 최근 3년간 기술개발 및 신제품 개발을 해온 주된 방식은 자체 기술 개발이었고 공동연구개발이 뒤를 이었으며 기타 기술 도입, 라이선싱 등은 비중이 낮았음
- 현 사업장의 입지 조건 평가를 보면 교통 편리성, 지역 이미지, 쾌적한 주변환경이 가장 높았고 이어 고객/동종업체와의 근접성 및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도 높았으나 저렴한 임대료나 연구소/대학과의 근접성은 가장 낮았음

#### ○ 애로사항

- 예비창업자들의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전체 예비창업자들의 약 1/4이 창업기회가 있고 창업능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나 전체의 61.2%가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피력하여 2011년 GEM 조사 시의 45.1%를 크게 상회
- 응답한 예비창업자의 2/3이 실제 기술창업을 할 계획이 있었으며 이중 절반 정도가 창업 준비에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고, 금융, 관공/MICE 등을 유력한 창업 분야로 지적
- 예비창업자와 기술창업기업 경영자 모두 창업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으며 예비창업자는 실패 시의 재정적 부담을, 경영자는 판로 및 인력 확보를 그다음 애로사항으로 선택

- 예비창업자는 기술창업기업 경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창업에 걸리는 시간이 짧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IT융합, 콘텐츠 산업이 공히 기술창업 유망 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바이오메디컬, 비즈니스 서비스, 녹색 산업이 뒤를 이었고 패션/디자인은 예비창업자의 선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조사됨
- 서울의 기술창업 활성화 정도에 대해서는 5점 평균에 예비창업자, 기술창업기업 경영자 모두 2.99점으로 크게 활성화되지도 않고, 크게 미흡하지도 않은 것으로 평가
- 예비창업자들과 기술창업기업 경영자 모두 서울의 창업여건 중 창업관련 하드웨어 인프라, 네트워크 환경 등을 높게 평가한 반면, 지식/혁신 환경과 벤처자금 조달환경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

#### ○ 정책수요

- 예비창업자와 기술창업기업 경영자 모두 기술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경영자는 67,1%가 인지한 반면, 예비창업자는 80.3%가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자금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이 인지도가 가장 높았으며 산학연협력사업과 창업보육센터 우수졸업 기업 지원 사업이 뒤를 이었음
- 연구개발 지원금과 정책금융이 실제 기술창업 시 가장 중요한 자금원으로 조사되었고, 벤처캐피털 투자와 엔젤 투자의 역할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술창업기업은 이런 경향이 더 두드러졌음
- 교육지원사업은 창업동아리 지원과 창업스쿨 사업 등에서 예비창업자의 인지도가 높은 반면, 기술창업기업 경영자의 인지도는 높지 않음
- 예비창업자는 기술창업교육에서 창업준비 실무와 능력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 반면, 기술창업기업 경영자는 창업 아이템 선정과 경영 실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

- 경영기술지원사업은 전반적으로 기술창업기업 경영자의 인지도가 높았으며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창업보육센터 연계사업은 예비창업자의 인지도도 상대적으로 높았음
- 예비창업자와 기술창업기업 경영자 모두 마케팅, 재무, 기술의 순서로 경영기술지원에서 필요한 영역을 선택하였으나, 경영자는 상대적으로 마케팅 및 재무 분야의 필요성을 강조
- 시설지원사업은 청년창업센터와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으며 예비창업자의 인지도가 기술창업기업 경영자보다 높게 나타남
- 예비창업자와 기술창업기업 경영자 모두 창업보육센터 입주 시 가장 큰 이점으로 임대료 절약과 지원정보의 접근성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이어 예비창업자는 경영 컨설팅을, 경영자는 기업 네트워크를 선택
- 홍보지원사업의 경우 예비창업자는 창업경진대회, 창업투어 등의 인지도가 높은 반면, 기술창업기업 경영자는 국내외 전시회 및 제품 상담처 참가 지원과 기업인증 지원 등의 인지도가 높게 조사됨
- 기술창업을 위한 주요 홍보 대상으로 예비창업자들은 절반가량이 대학생을 꼽은 반면 기술창업기업 경영자는 절반 이상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선명한 차이를 보임
- 예비창업자와 기술창업기업 경영자 모두 과반수가 기술창업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분야로 자금지원을 꼽았고 이어 약 1/5에 해당하는 인원이 경영기술 지원이라고 응답
- 기술창업에 창업지원정책이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 예비창업자는 53.3%, 기술창업기업 경영자는 34.0%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예비창업자의 창업지원정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벤처자금 조달환경 조성이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나타났다 이어 예비창업자는 기업가 정신 및 창업 문화 확산을, 기술창업기업 경영자는 시장환경 조성을 우선 과제로 선택

### Ⅲ. 정책건의

#### 1. 기술창업정책 현황

- 창업 단계와 지원 방법에 따라 창업지원정책을 분류하여 비교·분석
  - 창업 단계에 따라 창업예비자 창업지원(기술개발·창업준비), 창업기업 지원(창업보육), 창업기업 시장안착 지원(기업성장·사후관리) 등 세 가지로 분류
  - 지원 방법에 따라 자금, 교육, 경영·기술, 시설, 홍보 등 다섯 종류로 분류
- 창업예비자 창업지원 단계에서 가장 많은 정책이 나타나는 부분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모두 교육이며, 홍보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핵심 사업이 존재
  - 실제 교육의 내용을 보면 기존의 창업 절차, 자금, 홍보·마케팅 등의 외부자원 획득 및 활용위주의 교육에서 점차 기업이 정신, 멘토링 등 창업에 대한 이해와 기대치 자체를 높이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관찰
  - 서울시는 산학연협력사업과 같은 연구개발에서 사업화를 아우르는 기술창업 지원사업을 운영
  - 중앙정부의 앱 창작터 지정운영 사업 및 서울시의 청년창업센터 등 창업예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도 중요
  - 상대적으로 홍보 영역에서는 창업 일반에 대한 홍보 사업 외에 기술창업에 특화된 사업을 찾아보기는 어려움
- 창업기업 지원 단계에서는 경영·기술 관련 지원 정책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남
  - 지원내용은 교육, 경영·기술, 홍보를 아우르며 특히 중앙정부사업은 기술창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영·기술 분야의 지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서울시사업은 중앙정부사업과 유사한 기능을 창업보육센터를 중심으로 한 연계사업의 형태로 구체화하는 경향을 보이나 아직 체계적으로 개별

사업 간의 관계가 정립되지는 않은 상황

- 창업기업 시장안착 지원 단계에서 기술창업 지원사업은 창업과 기업지원이 중첩되는 영역으로, 기술창업과 관련된 사업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교육을 제외하면 여러 분야에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임
  - －자금 영역에서는 중앙정부사업은 기술창업 특례보증, 서울시사업은 기술창업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조합의 운영이 대표적인 사업
  - －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개발이나 지식재산에 대한 컨설팅 제공이 주요한 사업이며 시설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통해 독자적인 기업으로 독립하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인 정책이 대부분
  - －시장안착 단계에서는 창업 단계의 특성상 교육보다는 전문적인 컨설팅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 진행 중

## 2. 기술창업 생태계 확립 정책방향

- 기술창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은 생산성, 강건성, 혁신성의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가능(Iansiti and Levien, 2004a; 2004b; 김기찬 외, 2006)
  - －생태계의 생산성은 생태계 각 개체의 역량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원가혁신에 의한 비용절감과 산출가치 증진이라는 ‘역량진화의 길’이 필수
  - －생태계의 강건성은 생태계 내 개체의 유입자수와 퇴출자수에 의해 결정되며 창업으로 유입되는 개체를 늘리고 퇴출되는 개체를 줄이는 ‘신뢰구조의 길’이 필요
  - －생태계의 혁신성은 생태계가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여 확장해 가는 능력으로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니치, 즉 틈새시장을 찾아갈 수 있도록 개체 간 수분, 혹은 매칭을 통한 ‘열린 혁신의 길’이 적절
  - －생태계는 필요조건인 일정정도의 생산성을 확보했다면 강건성, 그리고

무엇보다 혁신성을 진화의 원천으로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성장과 진화가 가능(혁신성>강건성>생산성>0) (Kim · Song · Rhee, 2010)

—강건성은 초기에 생산성과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일정수준이 지나면 일정해지는 특성이 있는 반면, 혁신성은 초기에 상관관계가 약하나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는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기술창업 생태계 지원은 예비창업자와 창업초기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측면에서 벗어나 생태계 전반의 크기를 키울 수 있는 측면, 그리고 기술 및 틈새시장 개발 기회 확대 측면을 주요한 방향으로 고려

—생산성 측면에서는 이미 충분한 기술창업정책이 시행 중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 이전에 기존 기술창업관련 정책을 성장단계에 따라 체계화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

—강건성 측면에서는 기술창업의 문턱을 낮추어 창업자의 수를 늘이는 것이 관건이며, 지자체 수준에서 이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은 창업 거점을 통해 예비창업자에게 가용한 자원 및 정책수단에 대한 정보 제공의 원활화와 동기부여를 위한 리더십 교육의 활성화

—혁신성 측면에서는 기술수준, 규모, 경험 수준을 달리하는 연구기관, 기업 간의 매칭을 확대함으로써 기술을 개발하는 혁신역량과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시장역량이 결합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방향이 필요

○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술창업 생태계 확립 방향을 설정

—생산성 : 기술창업정책의 체계화를 통한 순차적 지원체계 수립

—강건성 : 기술창업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전달 및 교육체계 강화

—혁신성 : 다양한 기술창업주체 간 혁신역량과 시장역량의 연계 확대

### 3. 기술창업 생태계 확립 정책제언

○ 기술창업 전반에 걸친 정책을 새로이 짜는 구상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정책



프레임에서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을 반영한 사업을 위주로 정책제언

## 1) 기술창업정책의 체계화를 통한 순차적 지원체계 수립

- 새로운 기술창업 정책의 시행보다는 현재 시행 중인 기술창업 정책을 기술 창업 단계별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용정책 체계화 추진
  -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자체 기술창업정책은 기능상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있으며 다수의 중앙정부 정책기관이 서울에 입지하고 있어 기술창업정책 간 시너지 효과의 잠재력이 풍부
  - 따라서 현재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에 분리되어 추진되고 있는 기술창업 정책을 기술창업단계에 따라 창업예비자 창업지원(기술개발·창업준비), 창업기업 지원(창업보육), 창업기업 시장안착 지원(기업성장·사후관리) 등 세 가지로 통합 혹은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 추진
  - 초기에는 서울시가 주축이 되어 단계별 기술창업 지원정책의 체계를 정립하고 이에 따라 정책정보 공유나 사업 지원 시 보조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점차 시설 공동사용이나 중앙정부-서울시 공동사업 등으로 확장
- 순차적인 지원체계가 정립된 이후에는 해당 체계를 통해 실제 우수한 기술창업기업을 육성하는 주요 방안으로 기술창업단계별 실적 누적제 도입
  - 현재도 일부 시행 중인 방식으로 창업 단계별로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한 실적을 보인 기술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그다음 단계인 기술창업지원사업 지원 평가 시 실적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

## 2) 기술창업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전달 및 교육 체계 강화

- 기술창업 지원 정보제공에서 단일 채널을 구축하는 대신 기술창업의 거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채널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
  - 기존의 원스톱 서비스 구축 정책은 단일 채널을 통한 정부주도의 서비스 제공 방식을 전제하고 있으나, 실제 예비창업자와 기술창업기업은 주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얻고 있으며 창업동아리/모임 혹은 창업박람회와 같은 소셜 채널을 통한 정보습득이 높게 나타남

—때문에 기술창업 지원 정보를 체계화하여 제공하는 방식 못지않게 민간 부문에서 이런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채널을 병행해서 확보하는 것이 정보확산에 효과적

—실질적으로는 서울시 창업센터가 기술창업 지원 창구를 운영하는 방식에서 확장하여 창업센터를 거점으로 하는 창업동아리 및 온라인 카페, 기술창업 기업 교류회 등의 소규모 정보 모임 운영 확대가 바람직

○교육 측면에서는 창업의 동기를 부여하여 예비창업자들이 실제 창업을 결심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창업 리더십 교육 확대 및 강화가 필요

—예비창업자들은 기회나 능력에 대한 우려보다도 창업에 대한 공포 때문에 창업에 부정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창업에 대한 기대와 성공한 기업가 사례가 이를 넘어설 수 있는 주요 동기부여로 부각

—때문에 현재 주류인 실무위주의 창업교육과 더불어 창업을 결단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교육이 필요하며, 해당 교육의 내용은 창업의 장단점을 성공 및 실패 기업의 주요 사례를 통해 접근하는 방식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

○다양한 채널을 통한 기술창업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와 방식에서도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 창업교육기관과 공동의 교육체계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예비창업자의 주류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 기관을 통한 홍보·교육 이외에도 일반 대학에서 정규교과목으로의 편성을 지원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기술창업교육의 활성화와 예비창업자 육성이 가능

—반대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기술창업교육도 교육을 제공하는 창업센터 인근의 대학 등을 대상으로 공동 학점제나 교육이수 인정 제도를 시행한다면 교육의 활용도도 높아지고 향후 기술창업의 거점으로 예비창업자

들을 이끄는 부가적인 성과도 거둘 수 있음

- 이외에도 현재 리더십교육을 제공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와도 창업센터 혹은 지역 수준에서 공동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교육이 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도록 노력

### 3) 다양한 기술창업주체 간 혁신역량과 시장역량의 연계 확대

- 기술창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기술창업자와 정책지원자 간의 경험과 자원의 불균형이라는 태생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비·초기창업자와 선도기업 연계가 민간 중심으로 시작
  - 기술창업을 이미 경험하고 네트워킹과 시장 파워를 갖춘 선도기업이 기술은 있으나 이와 같은 시장역량이 부족한 예비·초기창업자와 매칭하여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식
  - 전문가적 컨설팅이 아닌 창업에서 운영까지의 경험을 통한 멘토링을 제공하는 방식에서 엔젤로서 창업자에게 초기 투자를 제공하는 사례, 그리고 기업 대 기업이 아니라 청년 창업자와 노년 경영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
  - 서울시는 예비·초기창업자와 선도기업을 연계시켜 주는 조정자의 입장에서 멘토링과 매칭을 지원하는 연계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기술창업 혁신 생태계를 확장하는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역시 창업센터 등의 지역거점을 통해 지역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한 방법
- 기술창업에서 가장 요긴한 정책은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이며, 창업보육센터와 투자기능을 결합하는 것은 이러한 자금조달 기능을 혁신 생태계 내에서 조직하는 한 방안
  - 대부분의 기술창업기업은 자체 자금을 통해 독립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엔젤과 벤처투자의 비중은 R&D과제를 통한 기술개발자금보다도 낮은 실정으로 자금조달에서 기술개발로의 투자가 미흡한 실정

- 창업보육센터는 공간저가임대, 장비공동활용을 위주로 하는 1세대에서 컨설팅을 제공하는 2세대, 그리고 다시 투자와 시장진출을 돕는 3세대 플랫폼으로 진화 중
- 창업보육센터에 엔젤 및 벤처투자업체 등과의 공동입주를 추진하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등의 지원 창구를 같이 둔다면 입주기업과 투자자 간에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한 신뢰구축으로 투자기회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이 가능
- 서울시 중소규모 대학에 잠재된 혁신역량을 시장역량과 연결하여 기술개발과 창업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서울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고려
  - 서울시 소재 중소규모 대학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자체적으로 기술지주회사 운영이 어려운 중소규모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는 방안을 마련
  - 서울시의 산학연을 담당하는 서울기술혁신센터, 지식재산지원을 담당하는 서울지식재산센터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현재 서울대, 한양대 등 자체적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방안을 고려

# 목 차

---

제1장 연구개요 .....	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 배경 .....	3
2. 연구 목적 .....	4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4
1. 연구 내용 .....	4
2. 연구 방법 .....	5
제2장 기술창업 선순환 생태계 분석틀 .....	9
제1절 기술창업의 정의 .....	9
1. 창업의 정의 및 의의 .....	9
2. 기술창업의 정의 및 범위 .....	12
제2절 기술창업의 선순환 생태계 모형 .....	15
1. 선순환 생태계의 개념과 정의 .....	15
2. 기술창업 선순환 생태계 분석틀 .....	16
제3장 기술창업의 환경과 실태 .....	25
제1절 국내 기술창업 환경 .....	25
1. 생계창업 위주의 국내 창업 환경 .....	25
2. 서울 중심적 기술창업 생태계의 확장과 중심성의 약화 .....	31
제2절 서울시 기술창업 실태 .....	41
1. 신규 창업 사업체의 감소와 대비되는 법인화 증가 추세 .....	41
2. 생계창업에 비해 비중은 낮으나 평균 고용규모는 큰 기술창업 .....	46
3. 주요 기술창업 산업에서의 창업률은 최근 증가세로 전환 .....	50

제4장 기술창업기업의 정책수요 .....	75
제1절 기술창업기업 정책수요조사 개요 .....	75
1. 조사개요 .....	75
제2절 예비창업자와 기술창업기업의 정책수요 분석 .....	79
1. 일반현황 .....	79
2. 일반인식 .....	81
3. 기업매출 및 환경 .....	87
4. 애로사항 .....	93
5. 정책수요 .....	104
제5장 기술창업 생태계 확립 방안 .....	125
제1절 기술창업 지원정책 현황 .....	125
1.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주요 창업 지원사업 현황 .....	125
2. 창업지원 단계별 기술창업 지원사업 비교 .....	127
제2절 기술창업 생태계 확립 정책방향 .....	146
제3절 기술창업 생태계 확립 정책제언 .....	148
1. 기술창업정책의 체계화를 통한 순차적 지원체계 수립 .....	148
2. 기술창업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전달 및 교육 체계 강화 .....	149
3. 다양한 기술창업주체 간 혁신역량과 시장역량의 연계 확대 .....	151
참고문헌 .....	157
부    록 .....	161
영문요약 .....	169

# 표 목 차

---

〈표 2-1〉 전체 창업기업 생존율 .....	11
〈표 2-2〉 기술창업과 일반창업의 분류 .....	13
〈표 2-3〉 첨단·고기술업종 선정 기준 .....	14
〈표 2-4〉 8대 신성장동력산업 .....	15
〈표 2-5〉 조사대상 기업 및 조사대상자 .....	15
〈표 3-1〉 한국의 생계형 창업비율과 기회포착형 창업 비율 .....	27
〈표 3-2〉 창업기업가들의 태도와 인식 .....	28
〈표 3-3〉 전국의 유형별 벤처기업 업체수 현황 .....	32
〈표 3-4〉 전국의 업종별 벤처기업 현황 .....	32
〈표 3-5〉 매출 1000억원 이상 벤처기업의 지역별 분포 현황 .....	35
〈표 3-6〉 연도별 벤처투자조합 결성현황 .....	39
〈표 3-7〉 벤처기업 연도별 업종별 투자현황 .....	39
〈표 3-8〉 연도별 벤처투자 추이 .....	40
〈표 3-9〉 전국과 서울의 신규 사업체 평균 생존율의 차이 .....	42
〈표 3-10〉 서울시 창업사업체 수 및 비중 .....	47
〈표 3-11〉 서울시 창업사업체 종사자 수 및 비중 .....	48
〈표 4-1〉 조사설계 개요 .....	77
〈표 4-2〉 설문 세부조사 항목 .....	78
〈표 4-3〉 응답 예비창업자 특성 .....	79
〈표 4-4〉 응답 기술창업기업 특성 .....	81
〈표 4-5〉 기술창업기업 연도별 매출액 및 인건비 추이 .....	89
〈표 4-6〉 인력 확보 시 가장 큰 어려움 .....	90
〈표 4-7〉 R&D 및 설비(장비) 투자 실적 .....	91

〈표 5-1〉 중앙정부 주요 창업지원사업 현황 .....	126
〈표 5-2〉 서울시 주요 창업지원사업 현황 .....	127
〈표 5-3〉 창업예비자 창업지원 단계의 기술창업 지원정책 현황 .....	128
〈표 5-4〉 창업대학원 운영 대학 정보 .....	129
〈표 5-5〉 e-창업스쿨과 하이서울창업스쿨 교육관련 정보 .....	134
〈표 5-6〉 창업기업 지원 단계의 기술창업 지원정책 현황 .....	135
〈표 5-7〉 지식서비스 분야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 주관기관별 지원대상 업종 .....	138
〈표 5-8〉 창업기업 시장안착 지원 단계의 기술창업 지원정책 현황 .....	140
〈표 5-9〉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 과제별 상세내용 .....	142
〈표 5-10〉 서울시 투자펀드 현황 .....	144
〈표 5-11〉 전국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주체별 현황 .....	149
〈표 5-12〉 서울시 관내 창업시설 현황 .....	150
〈표 5-13〉 대학 기술지주회사 현황 .....	153



# 그림 목차

---

〈그림 1-1〉 연구흐름도 .....	5
〈그림 2-1〉 GEM의 기회포착형 창업 모형 .....	18
〈그림 2-2〉 기술창업 모형 .....	19
〈그림 2-3〉 기술창업 선순환 생태계 분석틀 .....	21
〈그림 3-1〉 경제구조별 초기창업활동의 산업별 분포 .....	26
〈그림 3-2〉 혁신주도형 국가 간 초기창업활동 비율 비교 .....	26
〈그림 3-3〉 혁신주도형 국가 간 생태형 창업비율과 기회포착형 창업비율 비교 ...	28
〈그림 3-4〉 초기창업활동(TEA) 비율 비교 .....	29
〈그림 3-5〉 창업기회 인식 비교 .....	29
〈그림 3-6〉 창업능력 인식 비교 .....	30
〈그림 3-7〉 창업에 대한 두려움 비교 .....	30
〈그림 3-8〉 전국 벤처기업 수 동향 .....	31
〈그림 3-9〉 전국의 종류별 혁신형 기업 현황 및 총계 .....	33
〈그림 3-10〉 수도권 벤처기업 수 동향 .....	34
〈그림 3-11〉 벤처기업 수와 서울의 비중 .....	34
〈그림 3-12〉 엔젤투자자 수 현황(2012.4.18 현재) .....	36
〈그림 3-13〉 신규 벤처투자조합 결성 추이 .....	37
〈그림 3-14〉 창업투자회사 등록현황과 납입자본금 추이 .....	38
〈그림 3-15〉 국내 벤처캐피털 투자 실적 .....	40
〈그림 3-16〉 연도별 신규 및 휴·폐업 사업체 증감 현황 .....	41
〈그림 3-17〉 서울의 신규 사업체 및 휴·폐업 사업체 증감 현황 .....	42
〈그림 3-18〉 신규 사업체 구성비율 .....	43
〈그림 3-19〉 휴·폐업 사업체 구성비율 .....	43
〈그림 3-20〉 신설법인 수 동향(2003~2011) .....	44

〈그림 3-21〉 전국의 산업별 신설법인 수 동향 .....	45
〈그림 3-22〉 수도권 신설법인 수 동향 .....	45
〈그림 3-23〉 전국의 신설법인 업종별 비중 .....	46
〈그림 3-24〉 서울의 신설법인 업종별 비중 .....	46
〈그림 3-25〉 서울시 전체 창업률 추세(1997~2008) .....	46
〈그림 3-26〉 서울시 8대 신성장동력산업 전체 사업체와 창업률 변화추이 .....	51
〈그림 3-27〉 서울시 8대 신성장동력산업 전체 종사자와 창업기업 종사자 변화추이 .....	51
〈그림 3-28〉 서울시 비즈니스서비스업 현황(신성장동력산업 대비) .....	52
〈그림 3-29〉 서울시 비즈니스서비스업의 권역별 비중 .....	52
〈그림 3-30〉 서울시 비즈니스서비스업 사업체와 창업률 변화추이 .....	53
〈그림 3-31〉 서울시 비즈니스서비스업 종사자와 창업기업 종사자 비율 변화추이 ...	53
〈그림 3-32〉 서울시 금융업 현황(신성장동력산업 대비) .....	54
〈그림 3-33〉 서울시 금융업의 권역별 비중 .....	55
〈그림 3-34〉 서울시 금융업 사업체와 창업률 변화추이 .....	55
〈그림 3-35〉 서울시 금융업 종사자와 창업기업 종사자 비율 변화추이 .....	56
〈그림 3-36〉 서울시 관광·MICE산업 현황(신성장동력산업 대비) .....	56
〈그림 3-37〉 서울시 관광·MICE산업의 권역별 비중 .....	57
〈그림 3-38〉 서울시 관광·MICE산업 사업체와 창업률 변화추이 .....	58
〈그림 3-39〉 서울시 관광·MICE산업 종사자와 창업기업 종사자 비율 변화추이 ...	58
〈그림 3-40〉 서울시 IT융합산업 현황(신성장동력산업 대비) .....	59
〈그림 3-41〉 서울시 IT융합산업 권역별 비중 .....	60
〈그림 3-42〉 서울시 IT융합산업 사업체와 창업률 변화추이 .....	60
〈그림 3-43〉 서울시 IT융합산업 종사자와 창업기업 종사자 비율 변화추이 .....	61

〈그림 3-44〉 서울시 바이오메디컬산업 현황(신성장동력산업 대비) .....	61
〈그림 3-45〉 서울시 바이오메디컬산업 권역별 비중 .....	62
〈그림 3-46〉 서울시 바이오메디컬산업 사업체와 창업률 변화추이 .....	63
〈그림 3-47〉 서울시 바이오메디컬산업 종사자와 창업기업 종사자 비율 변화추이 ...	63
〈그림 3-48〉 서울시 녹색산업 현황(신성장동력산업 대비) .....	64
〈그림 3-49〉 서울시 녹색산업의 권역별 비중 .....	65
〈그림 3-50〉 서울시 녹색산업 사업체와 창업률 변화추이 .....	65
〈그림 3-51〉 서울시 녹색산업 종사자와 창업기업 종사자 비율 변화추이 .....	66
〈그림 3-52〉 서울시 콘텐츠산업 현황(신성장동력산업 대비) .....	66
〈그림 3-53〉 서울시 콘텐츠산업의 권역별 비중 .....	67
〈그림 3-54〉 서울시 콘텐츠산업 사업체와 창업률 변화추이 .....	68
〈그림 3-55〉 서울시 콘텐츠산업 종사자와 창업기업 종사자 비율 변화추이 .....	68
〈그림 3-56〉 서울시 디자인·패션산업 현황(신성장동력산업 대비) .....	69
〈그림 3-57〉 서울시 디자인·패션산업 권역별 비중 .....	70
〈그림 3-58〉 서울시 디자인·패션산업 사업체와 창업률 변화추이 .....	70
〈그림 3-59〉 서울시 디자인·패션산업 종사자와 창업기업 종사자 비율 변화추이 ...	71
〈그림 4-1〉 창업에 관심을 갖게 된 요인 .....	82
〈그림 4-2〉 창업정보 습득 경로 .....	83
〈그림 4-3〉 창업의 주된 목적 .....	84
〈그림 4-4〉 창업 결심 동기 .....	86
〈그림 4-5〉 창업 성공의 중요요소 .....	87
〈그림 4-6〉 2011년 대비 올해 경영상황 전망 .....	88
〈그림 4-7〉 경영상황 악화 전망 이유 .....	88
〈그림 4-8〉 경영상황 호전 전망 이유 .....	89

〈그림 4-9〉 기술개발 및 신제품 개발의 주된 방식 .....	91
〈그림 4-10〉 사업장 입지조건 .....	92
〈그림 4-11〉 창업기회 인식 .....	93
〈그림 4-12〉 창업능력 인식 .....	94
〈그림 4-13〉 창업에 대한 두려움 인식 .....	95
〈그림 4-14〉 예비창업자의 기술창업 계획 유무 .....	95
〈그림 4-15〉 기술창업 준비 시 예상소요기간 .....	96
〈그림 4-16〉 기술창업 희망 분야 .....	96
〈그림 4-17〉 기술창업 시 애로사항 .....	97
〈그림 4-18〉 기술창업 시 소요시간 .....	98
〈그림 4-19〉 기술창업 유망분야 .....	99
〈그림 4-20〉 서울의 기술창업 활성화 정도 .....	100
〈그림 4-21〉 서울의 기술창업 시 애로사항 .....	102
〈그림 4-22〉 서울의 창업여건(예비창업자) .....	103
〈그림 4-23〉 서울의 창업여건(기술창업기업) .....	104
〈그림 4-24〉 서울시 기술창업 지원정책 인지여부 .....	105
〈그림 4-25〉 자금지원사업 인지 여부 .....	106
〈그림 4-26〉 가장 중요한 자금원 .....	107
〈그림 4-27〉 교육지원사업 인지 여부 .....	109
〈그림 4-28〉 기술창업교육 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내용 .....	110
〈그림 4-29〉 경영기술지원사업 인지 여부 .....	111
〈그림 4-30〉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경영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 .....	112
〈그림 4-31〉 시설지원사업 인지 여부 .....	114
〈그림 4-32〉 창업보육센터 입주 시 가장 큰 이점 .....	115

〈그림 4-33〉 홍보지원사업 인지 여부 .....	116
〈그림 4-34〉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점 홍보 대상 .....	117
〈그림 4-35〉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분야 .....	118
〈그림 4-36〉 창업지원정책의 기술창업 도움 정도 .....	119
〈그림 4-37〉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우선 과제 .....	120

#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제1장

## 연구개요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연구 배경

- 서울은 이미 성숙경제에 진입하여 높은 성장과 고용창출을 기대하기 어렵고,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로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전환기에 직면
  - 이러한 변화 시기에 요구되는 것은 혁신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창업하려는 인재와 우수한 지식·기술이 필요함
- 최근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대외 수출은 좋은 성과를 얻고 있으나 이러한 성과가 내수와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 이처럼 고용 없는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미진하며, 특히 청년 실업을 증가는 사회문제가 되고 경제발전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함
  - 기술과 지식에 기반을 둔 기업의 창업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기술창업은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서 개발된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혁신을 창출하고, 시장에 새로운 제품을 제공하며, 산업구조의 고

- 도화 과정을 거쳐 지역경제 성장과 활성화를 야기하게 됨
- 서울은 기술창업을 위한 기술과 인재들을 풍부하게 갖고 있으며, 창업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다양하게 갖추고 있음
  - 그러나 지식과 기술에 기반을 둔 창업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우수한 기술과 인재들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서울에서 우수한 기술로 무장한 인재들이 대량으로 창업하여, 높은 성공을 거두고 있으므로 이들 기술기반기업들이 집적하는 과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 2.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서울에서 기업가정신에 충만한 사람들이 지식·기술을 가지고 대량 창업하여 높은 성공률로 성장하고, 성공한 기업들의 집적을 형성해 나가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에 충만한 인재들이 많아야 하고, 창업하여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지식·기술이 풍부하여야 함
- 기술창업을 기술개발, 지식혁신, 창업, 사업화 등 경제주체들의 활동·정책·제도·문화적 환경 등과 연계하는 생태계적 관점에서의 정책 방안을 검토함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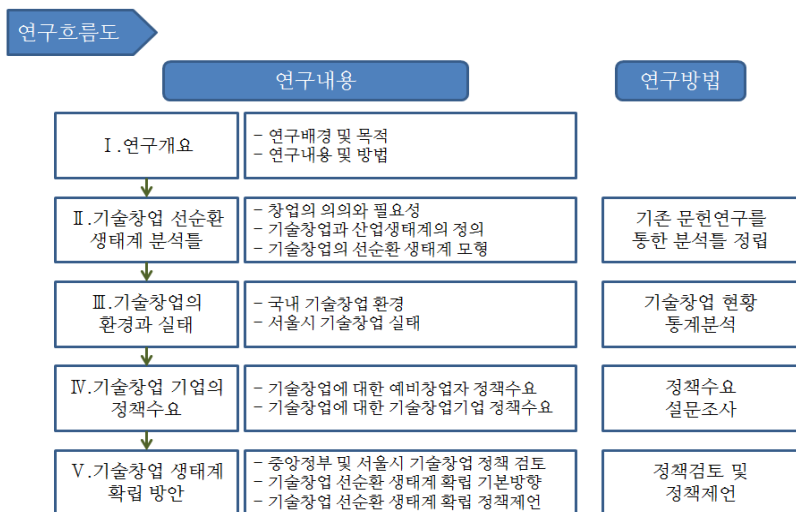
### 1. 연구 내용

- 이 연구는 ‘연구개요-분석틀 마련-실태 및 문제점 분석-정책수요 분석-정책



제언'의 5개 장으로 구성

-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목적, 내용 및 방법을 개관
- 제2장에서는 기존 문헌연구를 통해 기술창업과 산업생태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기술창업의 선순환 생태계 분석틀을 검토
- 제3장에서는 공식통계 및 실태자료 분석을 통하여 실태 및 문제점 파악
- 제4장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예비창업자 및 기술창업기업의 정책수요 파악
- 제5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기술창업 정책을 검토하고, 연구결과에 기반을 둔 향후 기술창업 정책 제언



〈그림 1-1〉 연구흐름도

## 2. 연구방법

- 문헌조사 : 기존 문헌의 분석을 통해 기술창업과 산업생태계를 개관하고 기술창업의 선순환 생태계 분석틀을 고찰

- 통계분석 : 기술창업 관련 국제 비교 설문조사 분석 등의 서울시 공식통계 자료를 사용하여 서울시 기술창업의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
- 설문조사 : 예비창업자와 기술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일반현황, 일반인식, 매출 및 환경, 애로사항, 정책수요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
- 자문회의 : 기술창업 학계 전문가, 관련 기관(협회 등) 관계자, 정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자문회의를 통해 정책방향 및 제언 논의

## 제2장      기술창업      선순환                  생태계      분석틀

제1절    기술창업의 정의

제2절    기술창업의 선순환 생태계 모형

## 제 2 장

# 기술창업 선순환 생태계 분석틀

### 제1절 기술창업의 정의

#### 1. 창업의 정의 및 의의

- ‘창업’이란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창업기업’은 창업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을 의미함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창업이라고 할 수 없음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일부 업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창업지원정책의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 무도장운영업
-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 기타 갠블링 및 베테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한다)
-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금융업은 서울시의 8대 신성장동력산업에 포함되지만 창업지원정책의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이 연구에서는 금융업이 일부분 다루어질 예정
- 창업의 의의는 고용창출, 혁신촉진, 경제성장 및 활성화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음
  - 고용창출 : 창업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기업수가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피고용자수도 증가하게 됨
  - 혁신촉진 : 창업으로 인해 생산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는 기존 기업에 대해서는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시장 전체에 새로운 혁신을 촉진
  - 경제성장 : 신규 창업기업에 의해 시장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가 성장하고 국가경제도 성장하게 됨
  - 창업은 새로운 기업의 설립이라는 측면에서 일자리의 순증가 효과를 나타내고 혁신을 통한 새로운 산업을 탄생시켜 블루오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성장에도 이바지함
- 창업기업은 2009년 국내총생산의 약 6.6%를 담당하고 고용비중은 전국 총 고용의 9.8%를 차지할 정도로 실업문제 해결에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으며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기 때문에 창업이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크다고 볼 수 있음(창업진흥원, 2011)

- 매년 100만명 이상이 자영업 창업에 나서고 있지만 80만명 이상은 폐업하는 악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음
  - － 특히 생계형 업종의 창업에 집중됨으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어 결국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업 업종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함
- 창업이 새로운 기업의 생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기술창업은 기업의 생성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개척해나가거나 기존 기술의 자극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 창업진흥원(2011)의 창업기업 생존율을 살펴보면 첨단·고기술업종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2-1〉 전체 창업기업 생존율

구분	3년생	5년생	10년생
전체	0.66	0.46	0.26
제조업	0.86	0.68	0.47
첨단·고기술업종	0.89	0.72	0.50

자료 : 창업진흥원(2011)

- 첨단·고기술업종의 창업은 고용효과도 다른 산업에 비해 크게 나타남
  - － 첨단·고기술업종 창업기업의 수는 2009년 전체의 1.36%이지만 전체 고용에서는 2.9%를 차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고용증가효과가 큼
- 현재는 경제의 글로벌화 때문에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경쟁으로는 승부를 걸 수 없고, 제품·서비스의 차별화 전략이 관건임
  - － 어떻게 하면 중국 등 인건비가 싼 국가에서 만들 수 없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가(차별화)가 승부의 관건이 되고, 그것은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달려 있음
- 기술의 혁신이나 독창적인 제품개발에서 대기업보다 나은 중소기업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음

—따라서 실험실 벤처나 연구개발형 벤처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술창업은 혁신의 원동력이 되어, 신산업의 창출이나 산업구조의 변혁, 대학 등 연구성과의 사회 환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활동이므로, 기술창업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음

## 2. 기술창업의 정의 및 범위

○ ‘기술창업’이란 ‘혁신 기술과 지식을 창출하는 기업의 창업’으로 정의되나, 실질적으로는 해당 기업군을 정의하는 공통의 기준이 없어 이에 해당하는 산업이나 제도를 통해 우회적으로 정의되는 추세

— ‘기술창업’은 혁신기술을 창출하는 기업의 창업을 지칭하나 해당 기업군을 정의하는 일관된 용어가 없어 벤처·기술혁신·혁신선도·기술집약형 기업의 창업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삼성경제연구소, 2004)

— ‘기술창업’은 혁신기술을 창출하는 기업의 창업을 지칭하지만 해당 기업군을 정의하는 일관된 용어가 없어 ‘벤처기업·이노비즈 기업 등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으로 정의(김대호·김홍, 2009)

○ 광의로는 첨단기술업종·고기술업종뿐만 아니라 지식을 동력으로 하는 업종의 창업도 기술창업의 범주에 포함

—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 기술뿐만 아니라 지식의 중요성도 강조

— 기술창업을 지식기술창업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창업’을 ‘일반창업’과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음

— ‘기술창업’은 신기술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품(용역)을 생산 및 판매하는 활동을 말하며, 고위험·고수익이 특징이고 고성장을 통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이 가능함

— 업종은 제조업, 전문서비스업, 지식문화사업을 주 대상으로 함

〈표 2-2〉 기술창업과 일반창업의 분류

창업분류	사업유형	사업수행 형태	특 성
기술창업	제조업 전문서비스업 (전문, 과학, 기술) 지식문화사업	신기술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품(용역)의 생산 및 판매 활동을 수행하는 형태	-하이리스크(고위험)이나 성공 시 하이리턴(고수익) -소규모 창업 고성장률 통한 중견기업 성장 가능
일반창업	일반서비스업 도소매업 (건설업)	음식점, 이미용업, 기타 일반 상품을 단순 유통하는 등의 일반적 사업형태	-낮은 진입장벽, 빈번한 창업 및 소멸 -소자본 창업으로 일반적 영세성, 낮은 부가가치

자료 : 기술보증기금(<http://www.kibo.or.k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0)은 지식기술 창업을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방식을 통해 산업으로 구분
  - 중분류에서 IT융합분야의 콘텐츠, 소프트웨어, 제조업 융합분야, 지식 기반 서비스업으로 한정하였으며 생계형 창업<sup>1)</sup>과 전통제조업 분야는 제외
- 창업진흥원(2011)도 첨단·고기술업종을 OECD 제조업 기술수준 산업분류방식을 적용하여 구분
  - 기술수준에 따라 첨단기술업종 5개와 고기술업종 5개로 분류
    - 첨단기술업종 :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 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항공기·우주선 및 부품, 의약품
    - 고기술업종 : 화합물 및 화학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1) 초기 창업활동에 속하는 사람 중 별다른 직업 선택의 여지가 없어 창업을 선택한 사람의 비율 (GEM 2010).



〈표 2-3〉 첨단·고기술업종 선정 기준

업종	8차개정안	9차개정안
첨단기술업종 (5개 업종)	30 :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26
	32 :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	26
	33 :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27
	353 :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313
	242 : 의약품	21
고기술업종 (5개 업종)	24(242제외) : 화합물 및 화학제품	20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29
	31 :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28
	34 : 자동차 및 트레일러	30
	35(351·353제외) : 기타 운송장비	31(311, 313 제외)

자료 : 창업진흥원(2011)

- 이 연구의 ‘기술창업’ 조사대상 산업과 기업 및 조사대상자의 범위 설정
  - － 산업의 범위로는 서울시의 『서울경제비전2020』의 8대 신성장동력산업을 서울시의 기술창업 대상 산업으로 한정
    - 8대 신성장동력산업 : 비즈니스서비스, 금융, 관광·MICE, IT융합, 바이오메디컬, 녹색산업, 콘텐츠, 패션·디자인
  - － 기술창업관련 조사대상자는 창업이전, 창업직후, 창업이후의 세 단계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크게 창업이전의 예비창업자와 창업직후/이후의 기술창업기업을 조사대상으로 설정
    - 창업이전 : 창업보육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에서 창업의 의도가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상태이며 창업관련 프로그램 수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예비창업자로 함
    - 창업직후 : 서울시 창업보육센터 중 기술창업과 관련이 있는 성수IT센터, 서울신기술창업센터(강서), 서울창업지원센터(구로)의 입주기업 중에서 기술창업 대상 업종의 창업준비기업 또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함
    - 창업이후 : 기술창업 이후 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 등의 인증과정을

거쳐 기술을 이용하여 보다 발전적인 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과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를 대상으로 함

〈표 2-4〉 8대 신성장동력산업

8대 신성장동력산업
비즈니스서비스
금융
관광 · MICE
IT융합
바이오메디컬
녹색산업
콘텐츠
패션 · 디자인

〈표 2-5〉 조사대상 기업 및 조사대상자

단계	조사대상
창업이전	예비창업자
창업직후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창업이후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기술지주회사

자료 : 서울시, 서울경제비전 2020(2011)

## 제2절 기술창업의 선순환 생태계 모형

### 1. 선순환 생태계의 개념과 정의

#### ○ 생태계의 개념

- －생태계(Eco-System)는 상호작용하는 유기체들, 그리고 그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주변의 무생물 환경을 묶어서 부르는 말
  - 같은 곳에 살면서 서로 의존하는 유기체 집단이 완전히 독립된 체계를 이루면 이를 ‘생태계’라고 부를 수 있음
  - 상호의존성과 완결성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는 데 필요한 요소
- －하나의 생태계 안에 사는 유기체들은 먹이사슬을 통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먹이사슬을 통해 영양 물질이 여러 유기체에 걸쳐 순환하고 에너지도 같이 이동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다양한 생태계가 생겨남

#### ○ 선순환의 개념

—우리나라에는 연매출 1,000억원대의 성공한 벤처기업이 2011년말 현재 315개에 달하며, 이중 서울소재 기업은 59개에 이릅니다

- 이러한 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 창업기업이 나와 서로 연계활동을 하면서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함
- 하지만 벤처기업이 이렇게 필요한 기술개발 활동을 모두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신생 기술창업 기업들과의 연계 협력이 요구됨

—따라서 대학이나 기업에서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는 예비창업자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창업하여 벤처기업으로 성장하고, 그러한 벤처기업들이 기존 기업들과 서로 연계관계를 가지면서 집적하여 클러스터를 형성하며, 이 클러스터로부터 새로운 기술 창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역동적 과정이 필요함

—이와 같이 기술을 가진 예비창업자가 창업하여 벤처기업으로 성공하고, 집적지를 이루어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며, 또 다시 새로운 창업을 촉진하는 구조를 말함

#### ○ 선순환 생태계의 정의

—이 연구에서는 기술 기업의 창업·성장·집적을 가능하게 한 산학연의 다양한 조직이나 기관의 연계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지식, 인재, 자금 흐름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낸 기업 순환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생태계를 사 용함

## 2. 기술창업 선순환 생태계 분석틀

○ 창업은 외부환경(Entrepreneurial Framework Conditions : EFCs)의 영향을

받으며, 생계형 창업과 기회포착형 창업<sup>2)</sup>으로 구분함

—전자는 실직, 이직 등으로 인해 필요에 압박받는 창업

—후자는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한 창업

- 기회포착형 창업에서는 창업자가 ①비즈니스 기회가 있다고 인식하고(Perceived Opportunities), ②자신에게 창업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며(Perceived Capabilities), ③창업의 손익을 따져보고(Opportunity Costs Assessment), ④실패의 두려움(Fear of Failure)을 극복한 다음 창업의사를 굳혀 실행에 옮김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지식·기술 기반 창업은 GEM 모델에서의 기회포착형 창업과 유사

- 창업활동(TEA<sup>3)</sup> : Total Entrepreneurial Activity)을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으로 구분하여 고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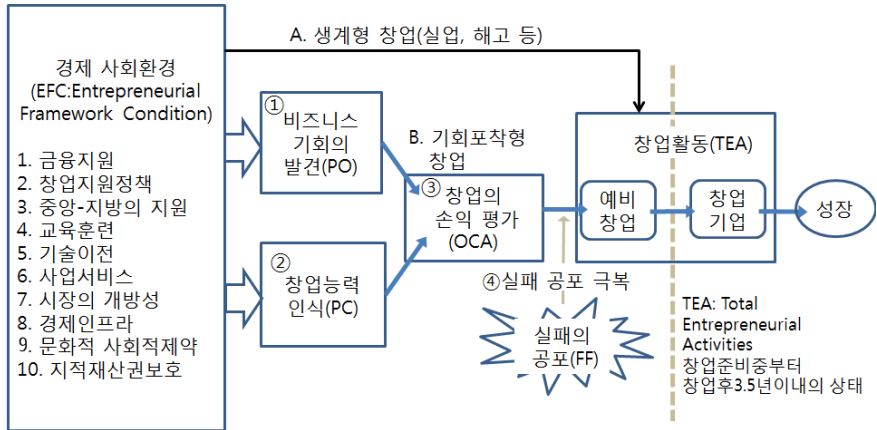
—예비창업자(Nascent Entrepreneur)는 기업설립 전의 단계를 말하고, 창업기업(Owner-manager)은 기업설립 후 3.5년 이내의 창업자를 말함

—18~64세까지의 사람 중에서 창업활동(TEA)을 하는 사람이 많은 국가를 창업이 왕성한 국가라 함

---

2) 개선형 기회추구 창업활동을 말하며 초기단계 창업활동에 속하는 사람 중 (1)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을 찾기 위해 일하기보다는 기회를 추구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2) 현 소득의 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독립성을 높이거나 더 높은 소득을 추구하는 경우(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GEM) 2010 연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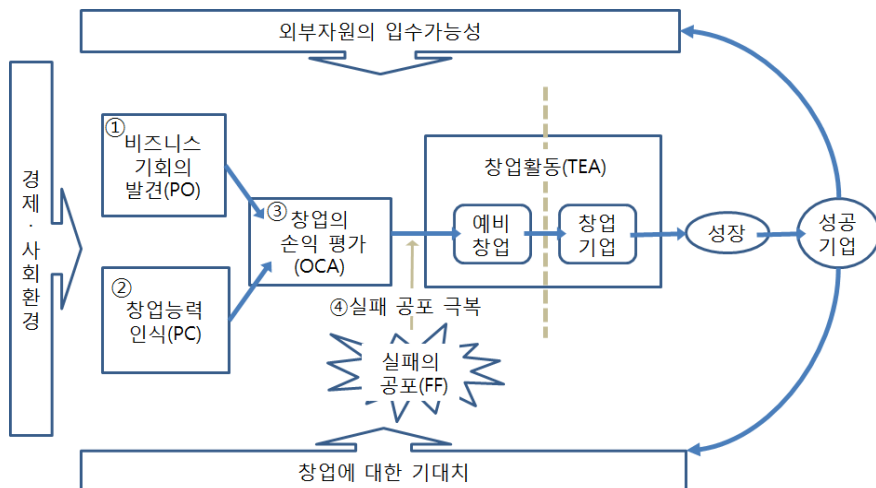
3) 초기 창업활동 비율로 18~64세 인구 중 현재 신생 기업 단계의 창업에 해당하는 사람과 현재 새로운 사업의 소유주자이며 경영인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임. 창업 및 경영 기간에 따라 태동기 창업활동(임금 지급이 3개월 이하로 이루어진 경우)과 초창기 소유경영(임금 지급이 3개월 이상 42개월 이하로 이루어진 경우)으로 나눌 수 있음(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GEM) 2010 연구보고서)



출처 : 西澤昭夫 外(2010)

〈그림 2-1〉 GEM의 기회포착형 창업 모형

- 이 모델은 창업의 선순환 생태계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해줌
  - － 사회경제적 환경, 외부자원의 활용가능성, 창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면 창업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 비즈니스 기회의 발견(PO)과 창업능력 인식(PC)을 깨닫게 된다면 창업의 손익평가(OCA) 단계로 이어짐
  - － 창업의 손익평가 후 실패의 공포(FF)를 극복하게 되면 창업활동이 시작됨
    - 창업에 대한 기대치가 커지면 실패의 공포를 극복할 가능성이 커짐
  - － 창업에 성공한 기업이 많아지면 창업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성공한 기업은 창업기업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면서 창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됨



자료 : 西澤昭夫 外(2010)에서 수정

〈그림 2-2〉 기술창업 모형

- 기술과 인재의 일정한 집적을 시점으로 하여 대량의 기술창업과 성장을 거쳐 기술기반 벤처기업의 집적으로 첨단 신산업이 형성되는 단계적 과정으로 나타냄
  -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요인과 과정의 상호작용을 동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술창업 생태계 구축 과정은 먼저, 기술과 인재가 집적되어 있어야 하고, 기술 창업예비자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지원제도가 정비되어야 하며, 다음으로 두 조건의 결합으로 기술 예비창업자의 대량 창업과 성장하는 단계를 거쳐 성공기업의 출현 및 집적의 경로를 따름
- 기술기반 기업의 대량 창업, 성장, 집적을 위한 생태계 구축 모델은 일정한 규모의 기술과 인재의 집적이 창업을 촉진하고 성공으로 이끌어 성공기업의 집적으로 전환하는 생태계 구축과정을 가시화함
- 이에 따라 <그림 2-3>과 같은 기술창업 선순환 생태계 분석틀을 정립할 수 있음

—생태계 조건 충족기

- 일정한 규모의 기술과 인재의 집적(필요조건), 기술 창업예비자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지원제도(충분조건)의 정비
- 기업 및 대학·기관 등에서 기술을 지닌 창업예비자를 창업자로 이끌어내 창업자의 집적이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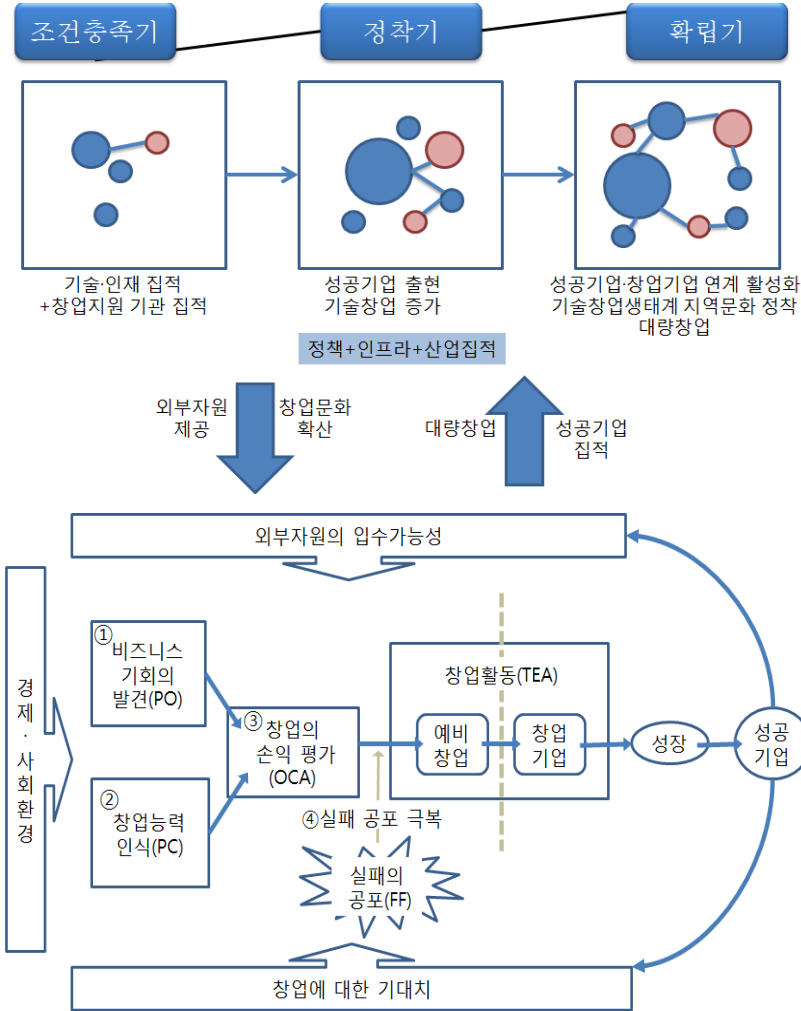
—생태계 형성기

-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결합을 통해 대량의 기술창업과 성장으로 전환하는 시기
- 자금·인력 등의 제공을 통하여 기술창업이 증가하고 정보·시설 등의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이 성장하며 홍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술 창업을 이끌어냄

—생태계 확립기

- 기술기반 기업의 집적을 통한 하이테크 신산업이 형성되는 시기
- 대량 기술창업이 이루어지고 성공기업의 연계 협력체제가 갖추어지게 되면 기술기반 창업의 선순환 생태계가 마련됨

# 생태계



# 창업

〈그림 2-3〉 기술창업 선순환 생태계 분석틀



## 제3장      기술창업의      환경과    실태

제1절    국내 기술창업 환경

제2절    서울시 기술창업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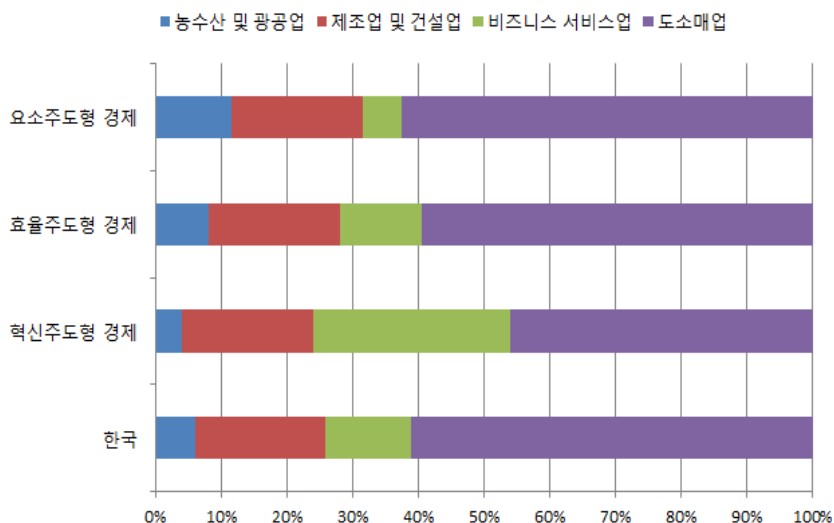
## 제1절 국내 기술창업 환경

## 1. 생계창업 위주의 국내 창업 환경

- 우리나라의 창업활동률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이 61.1%, 제조업 및 건설업이 19.6%, 비즈니스서비스업이 13.1%, 농수산 및 광공업이 6.1%로 나타나 대부분의 혁신주도형 국가(선진국가)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국은 혁신주도형 국가(선진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창업에서는 효율주도형 경제와 비슷한 현황을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초기창업활동(TEA) 비율은 2011년 7.8%로 조사대상인 혁신주도형 국가<sup>4)</sup> 23개국 중 6번째로 그 순위가 낮지 않음
  - 주요 국가 : 미국(1), 호주(2), 네덜란드(3), 그리스(4), 대만(5), 한국(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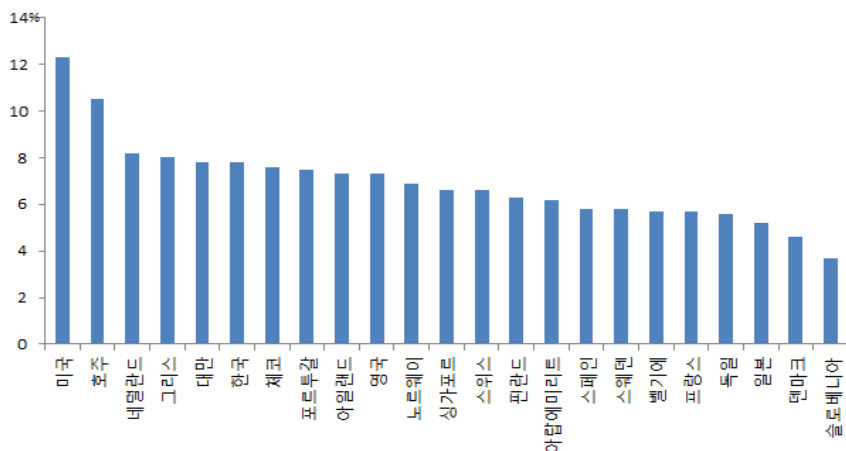
4) Schwab(2009)의 최근 국가경쟁력 보고서의 분류를 토대로 요소주도형 경제, 효율주도형 경제, 혁신주도형 경제로 구분하였음(GEM 2010). 이 보고서에서는 혁신주도형 경제 국가를 선진국가로 명칭

- 요소주도형 경제 : 주로 자연 상태에서 경제적 수단을 찾는 경제
- 효율주도형 경제 : 규모집약도가 경제발전의 동인이 되는 경제
- 혁신주도형 경제 : 연구개발, 지식집약, 혁신활동이 동인이 되는 경제



자료 :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GEM) 2010 연구보고서

〈그림 3-1〉 경제구조별 초기창업활동의 산업별 분포



자료 : The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1 Global Report

〈그림 3-2〉 혁신주도형 국가 간 초기창업활동 비율 비교

- 한국의 창업활동 유형에서 생계형 창업비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기회포착형) 창업비율이 최근 감소하였음
  - 2010년을 제외하면 생계형 창업비율이 기술(기회포착형) 창업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 생계형 창업비율은 2008년 이후 감소하다가 2011년에 다시 증가하였으며 기술(기회포착형) 창업비율은 2011년에 급격히 감소하였음

〈표 3-1〉 한국의 생계형 창업비율과 기회포착형 창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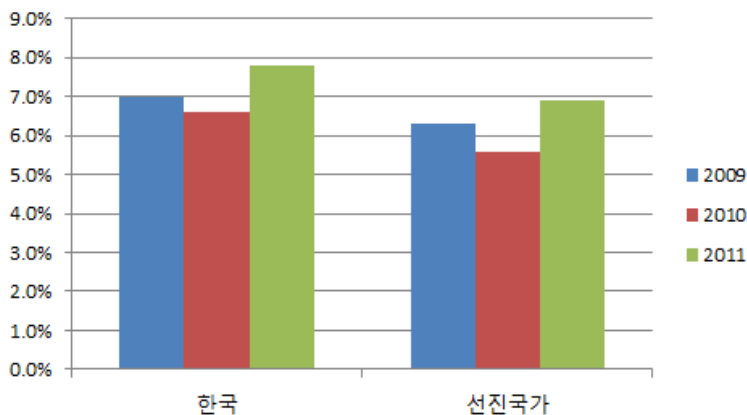
구분	2008	2009	2010	2011
생계형 창업 비율	56.0%	54.9%	39.7%	53.4%
기술 창업 비율 (기회포착형 창업 비율)	44.0%	45.1%	60.3%	46.6%

자료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각 년도 수정

※ 응답거부 및 무응답 제외

- 혁신주도형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생계형 창업비율은 높고 기술(기회포착형) 창업비율은 낮게 나타남
  - 한국의 2011년 생계형 창업비율은 53.4%로 1위, 기술(기회포착형) 창업비율은 46.6%로 23위를 기록함(응답거부 및 무응답 제외)
  - 창업에서 생계형 창업비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가(혁신주도형 국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기술(기회포착형) 창업비율은 선진국가(혁신주도형 국가) 중에서 가장 낮게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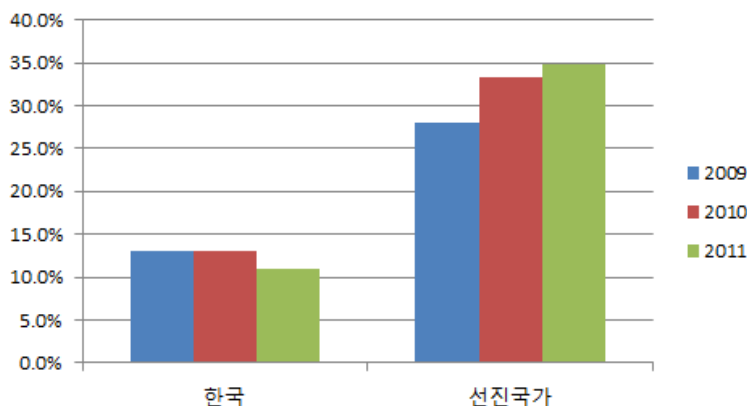




자료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각 년도

〈그림 3-4〉 초기창업활동(TEA) 비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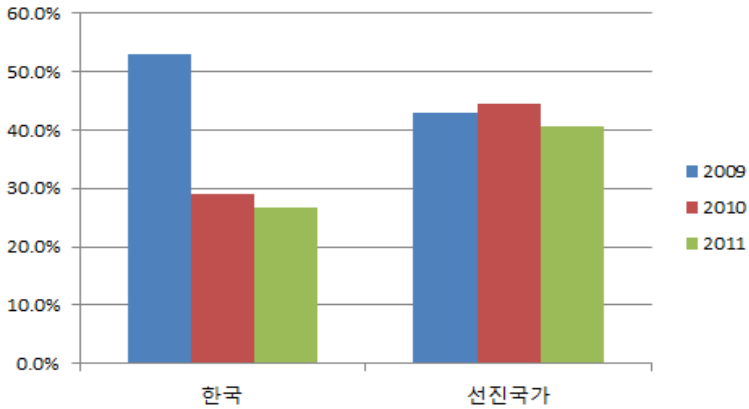
- 창업기회에 대한 인식은 선진국가(혁신주도형 국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한국은 감소하고 있으며 비율 또한 낮음
- 2011년 조사대상 23개국 중 22위(23위는 일본)



자료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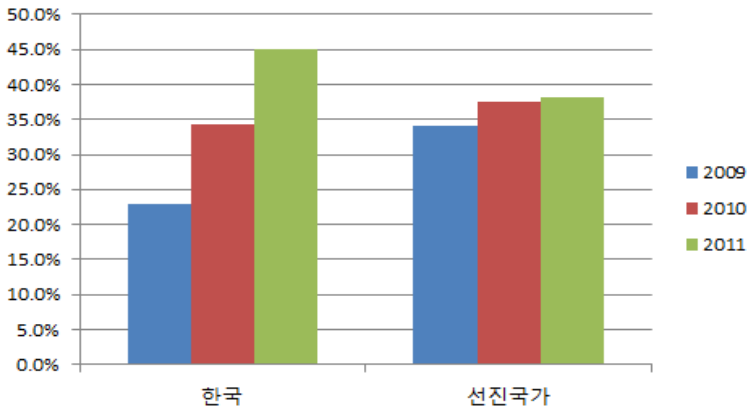
〈그림 3-5〉 창업기회 인식 비교

- 창업능력에 대한 인식에서 한국은 지속적이고 급격한 감소세
  - 2011년부터 선진국가(혁신주도형 국가)의 평균에 미치지 못함
  - 2011년 조사대상 23개국 중 21위(22위 싱가포르, 23위 일본)



자료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각 년도

〈그림 3-6〉 창업능력 인식 비교



자료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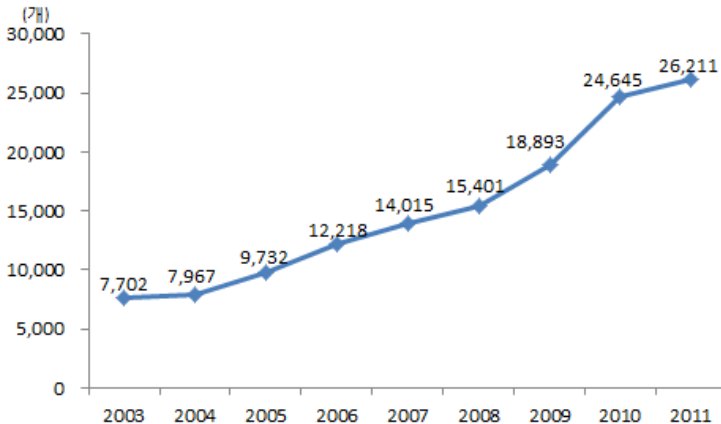
〈그림 3-7〉 창업에 대한 두려움 비교

- 창업에 대한 두려움은 한국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1년에는 선진국가(혁신주도형 국가)의 평균보다 높아짐
  - 2011년 조사대상 23개국 중 2위(1위 아랍에미리트)
- 창업기회와 창업능력에 대한 인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창업에 대한 두려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생계창업, 기술창업 공히 성공이 어려운 창업여건을 반영

## 2. 서울 중심적 기술창업 생태계의 확장과 중심성의 약화

### 1) 벤처기업

- 전국의 벤처기업 수는 2011년 12월 기준 26,211개이며 3D, 스마트폰, 녹색 바이오 열풍 등으로 인해 2009~2010년에 벤처기업이 급증하였으나 이후 벤처기업의 증가율은 둔화하는 추세



자료 : 중소기업 조사통계시스템

〈그림 3-8〉 전국 벤처기업 수 동향



- 벤처기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그 수는 대체로 증가추세에 있음
  - 2011년 벤처기업 유형별 비중 : 기술평가보증기업(87.27%), 기술평가대출기업(4.60%), 연구개발기업(5.68%), 벤처투자기업(2.15%), 예비벤처기업(0.30%)

〈표 3-3〉 전국의 유형별 벤처기업 업체수 현황

유형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벤처투자기업	367	523	604	555	622	564
연구개발기업	1,548	1,986	2,320	1,899	1,588	1,488
기술평가보증기업	1,491	7,113	12,097	15,783	21,313	22,874
기술평가대출기업	57	222	348	581	1,008	1,206
예비벤처기업	255	158	32	75	114	79
신기술기업	8,500	4,013	-	-	-	-
계	12,218	14,015	15,401	18,893	24,645	26,211

자료 : 중소기업 조사통계시스템

- 전국 벤처기업의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별로 차이가 있음
  - 2011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제조업 비중이 74.2%로 가장 높았고 정보처리·S/W 비중도 13.9%로 높았으나 나머지 업종 비중은 1% 내외로 낮음
  - 제조업과 정보처리·S/W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연구개발·서비스의 비중은 2008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완만한 성장세를 보임

〈표 3-4〉 전국의 업종별 벤처기업 현황

(단위 : 개)

업종별	2003	2005	2007	2009	2010	2011	비율 (2011)
계	7,702	9,732	14,015	18,893	24,645	26,211	100%
제조업	5,234	6,754	10,529	14,303	18,485	19,447	74.2%
정보처리, S/W	1,832	2,054	2,078	2,526	3,293	3,636	13.9%
연구개발, 서비스	278	410	321	206	281	283	1.1%
건설, 운수	117	194	268	303	410	405	1.5%

〈표 계속〉 전국의 업종별 벤처기업 현황

(단위 : 개)

업종별	2003	2005	2007	2009	2010	2011	비율 (2011)
도,소매업	144	184	229	309	396	390	1,5%
농,어,임,광업	25	30	38	47	62	70	0,3%
기타	72	106	552	1,199	1,718	1,980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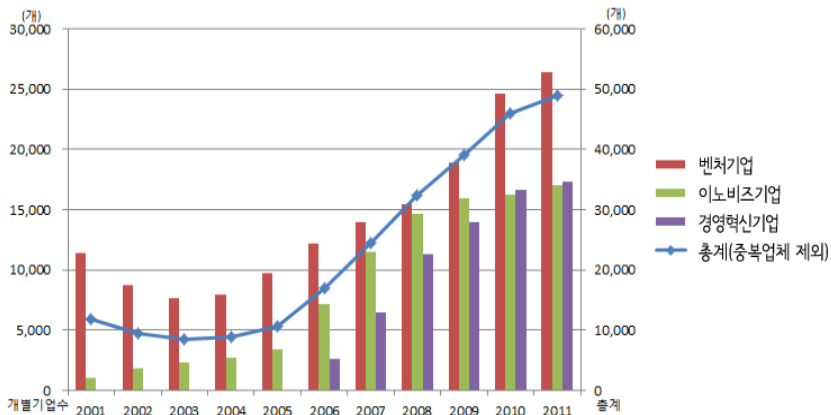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 조사통계시스템

○ 혁신형 기업 수의 증가추세도 기업종류별로 차이를 나타냄

— 혁신형 기업의 종류에는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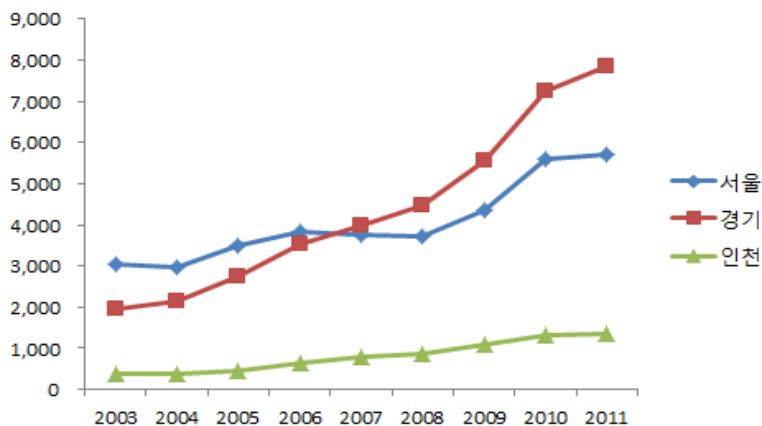
— 기업종류별로 증가는 계속되고 있으나 증가세는 둔화

○ 서울 및 수도권 벤처기업 수는 2003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자료 : 중소기업 조사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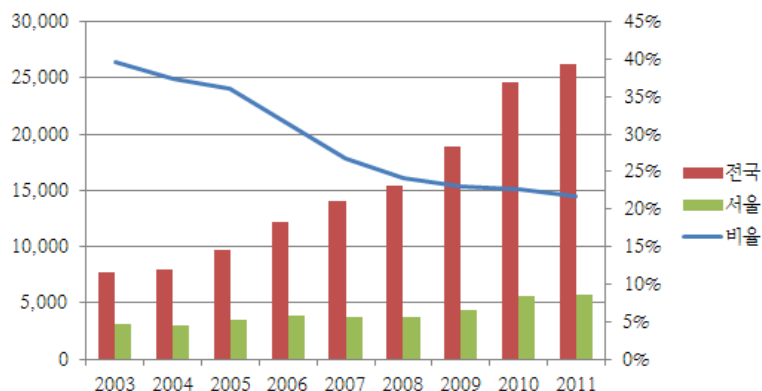
〈그림 3-9〉 전국의 종류별 혁신형 기업 현황 및 총계



자료 : 중소기업 조사통계시스템

〈그림 3-10〉 수도권 벤처기업 수 동향

- 서울의 벤처기업 수는 2011년 현재 5,962개이며 전국 대비 서울의 벤처기업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  
 - 2005년(36.1%) → 2008년(24.1%) → 2011년(21.7%)



자료 : 중소기업 조사통계시스템

〈그림 3-11〉 벤처기업 수와 서울의 비중

-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벤처기업은 2011년 현재 315개로 나타남
  - －서울은 59개로 총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음

〈표 3-5〉 매출 1000억원 이상 벤처기업의 지역별 분포 현황

지역	개수	지역	개수
서울	59	대구	11
경기	96	울산	11
충남	27	대전	6
경남	24	전북	5
인천	19	광주	4
부산	18	강원	3
충북	16	전남	3
경북	12	제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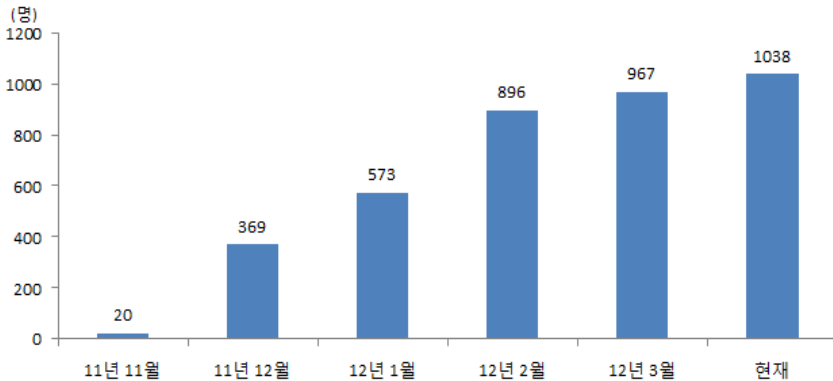
자료 : 벤처기업협회

## 2) 엔젤투자

- 2000년 벤처버블의 붕괴로 인해 투자열기가 급속히 냉각
  - －2000년 5,493억원이던 엔젤투자 금액은 2009년에는 346억원으로 감소
  - －벤처투자의 신뢰성 저하, 투자자 이탈, 정부지원 축소 등의 요인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 전문적인 엔젤의 발굴·관리 및 투자활동 지원 시스템의 결여도 원인 제공
- 벤처캐피털 지원규모에 비해 엔젤투자 규모는 미미함
  -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가 벤처캐피털과 비슷한 규모이지만 우리나라는 2009년 기준 엔젤투자(346억원)가 벤처캐피털 투자(1조 910억원)의 3% 정도에 불과함
- 최근에는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이 2011년 11월 엔젤투자지원센터(Angel Investment Support Center)를 설립
  - －등록 엔젤투자자는 2012년 4월18일 현재 총 1,038명으로 참가자들이 꾸

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

-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투자자가 845명으로 대다수 차지
- 엔젤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가 823명으로 엔젤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이 유추됨
- 엔젤투자자 모임인 엔젤클럽은 현재 28곳이 등록을 마쳤으며 현재 12곳이 등록절차를 진행 중임
- 엔젤투자 매칭펀드가 9개 창업초기기업에 13억원을 매칭투자함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3-12〉 엔젤투자자 수 현황(2012.4.18 현재)

- 엔젤투자지원센터(Angel Investment Support Center)의 주요 사업내용
  - 엔젤투자마트: 역량 있는 개인투자자와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창업초기 유망기업을 연결하는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프로그램 운영
  - 엔젤투자 아카데미: 엔젤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실무, 전문성 강화, 투자자 윤리 등의 교육을 시행하고, 창업초기기업을 대상으로 벤처금융 및 경영실무에 대한 교육을 제공
  - 엔젤투자포럼: 신기술, 산업분석 주제별로 정례적으로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주요 산업 및 기술동향 세미나와 성공벤처기업인, 투자전문가 등의 특강을 개최

—엔젤투자 매칭펀드 : 창업초기기업에 일정요건을 갖춘 엔젤투자자와 매칭의 방법으로 신주로 투자를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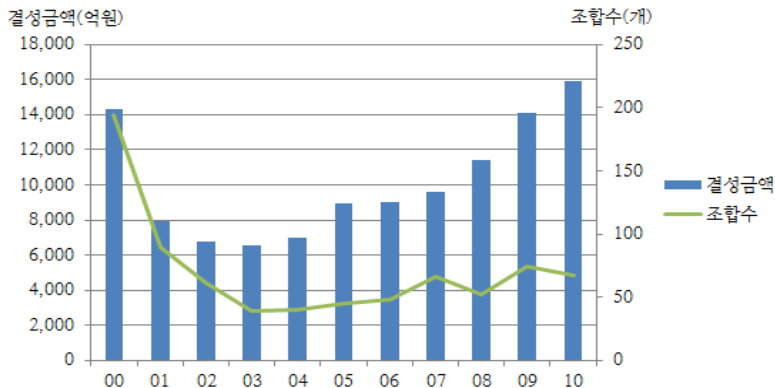
### 3) 벤처캐피탈

○ 1989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설립

—현재 정회원은 92개사이며 특별회원은 6개사로 이루어져 있음

—주요 사업기관으로는 한국벤처캐피탈 연수원, 전문인력확인, 벤처투자정보센터, R&D사업화투자협의회, 벤처투자로드쇼, 벤처투자사랑방, 벤처투자페어, 벤처기업확인, 엔젤투자지원센터, 무수익자산 유동화, 부당투자신고센터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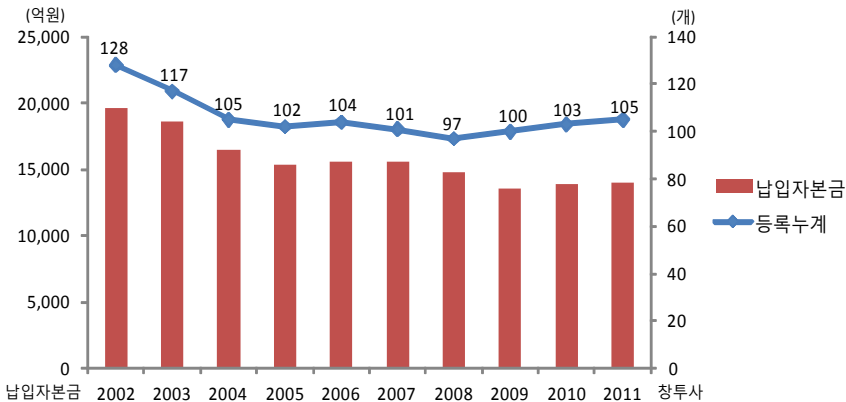
○ 신규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금액은 2003년 이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조합의 수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정보센터

〈그림 3-13〉 신규 벤처투자조합 결성 추이

- 창업투자회사의 수는 일정하게 유지
  - 2006년 이후 매년 10개 내외의 회사가 등록·말소되어 시장진입과 퇴출이 활발하게 진행
- 창투사 설립기준의 자본금 한도 규제 완화 이후 창투사 설립에 따른 개별 회사의 납입자본금의 액수는 감소
  - 납입자본금 감소로 창업투자 열기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없음



자료 : 중소기업 조사통계시스템

〈그림 3-14〉 창업투자회사 등록현황과 납입자본금 추이

- 2011년 신규 벤처투자조합 결성금액은 역대 최고치인 2조 2,591억원이며 운영 중인 조합의 재원은 9조 4,925억원
- 투자업체 및 금액을 살펴보면 업종별로 차이가 있음
  - 투자건수를 살펴보면 정보통신은 지속적인 감소추세, 일반제조는 현상 유지, 문화콘텐츠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임
  - 투자금액의 경우 정보통신은 감소 후 회복하는 추세, 일반제조와 문화콘텐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표 3-6〉 연도별 벤처투자조합 결성현황

(단위 : 개, 억원)

연도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신규	결성조합수	48	66	52	74	67	67
	결성금액	8,767	9,641	11,389	14,109	16,110	22,591
	조합평균금액	182.6	146.1	219.0	190.7	240.4	337.2
연속	운영조합수	350	332	336	366	393	419
	운영금액	48,925	49,272	56,598	65,790	76,396	94,925
	조합평균금액	139.8	148.4	168.4	179.8	194.4	226.6

\*결성 및 운영금액은 약정금액 기준임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정보센터

〈표 3-7〉 벤처기업 연도별 업종별 투자현황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정보통신	업체	307	271	227	163	140	150	164
	금액	3,006	2,713	3,137	2,105	1,970	2,956	3,409
일반제조	업체	99	106	141	96	121	129	148
	금액	1,378	1,503	2,701	1,808	2,687	3,102	3,696
문화콘텐츠	업체	133	131	126	142	159	185	209
	금액	1,946	1,657	1,997	1,677	2,106	2,677	3,097
생명공학	업체	33	46	35	23	36	40	43
	금액	651	609	585	400	638	840	933
서비스/교육	업체	25	34	46	34	23	24	35
	금액	273	433	961	511	397	633	530
유통	업체	30	22	35	24	30	17	22
	금액	220	293	354	341	494	311	740
원료재생/환경복원	업체	2	0	3	2	5	4	1
	금액	23	0	50	16	94	65	10
기타	업체	15	16	11	19	14	16	10
	금액	76	125	132	388	285	326	193
합계	업체	635	617	615	496	524	560	613
	금액	7,573	7,333	9,917	7,247	8,671	10,910	12,608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정보센터



○ 2011년 벤처투자실적은 1조 2,608억원으로 나타나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2년간 연속 투자 1조원을 상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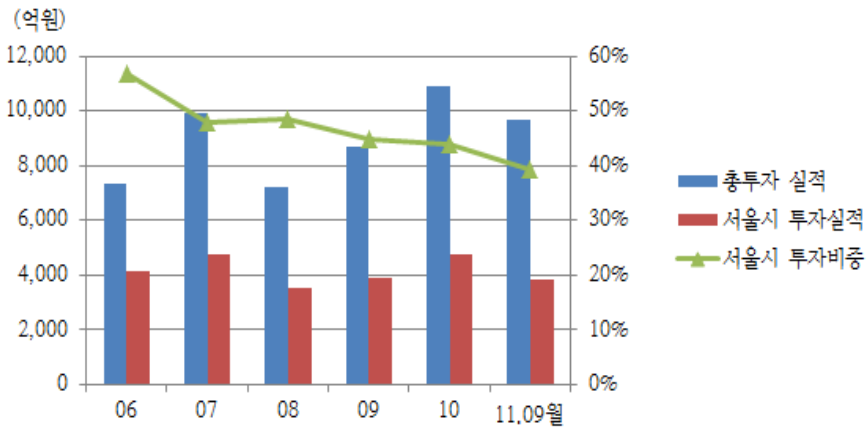
〈표 3-8〉 연도별 벤처투자 추이

(단위 : 억원, 개)

연도	20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금액	20,211	...	7,333	9,917	7,247	8,671	10,910	12,608
업체수	1,910		617	615	496	524	560	613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정보센터

○ 국내 벤처캐피털 투자실적 중 서울시의 투자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정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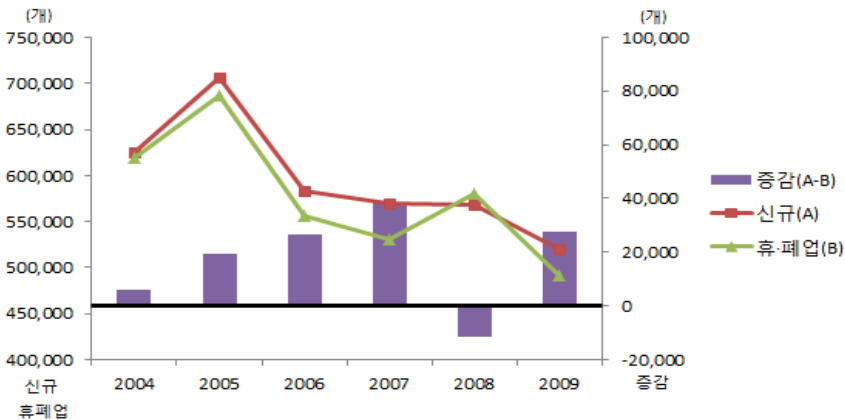
〈그림 3-15〉 국내 벤처캐피털 투자 실적

## 제2절 서울시 기술창업 실태

### 1. 신규 창업 사업체의 감소와 대비되는 법인화 증가 추세

#### 1) 사업체 현황

-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의 신규사업체는 연평균 595,336개이며 휴·폐업사업체는 연평균 577,501개로 순증규모가 연평균 17,835개로 조사됨



자료 : 통계청, 사업체 생성·소멸(생멸) 현황 분석(2011)

〈그림 3-16〉 연도별 신규 및 휴·폐업 사업체 증감 현황

- 신규사업체와 휴·폐업사업체는 2005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 서울의 사업체는 대체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 2004~2009년 전체 서울의 총 신규사업체 수는 855,943개이고, 총 휴·폐업사업체수는 878,683개로 6년간 22,740개의 사업체가 줄어들어 연평균 3,790개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자료 : 통계청, 사업체 생성·소멸(생멸) 현황 분석(2011)

〈그림 3-17〉 서울의 신규 사업체 및 휴·폐업 사업체 증감 현황

○ 서울의 신규사업체 생존율은 전국평균에 비해 낮음

— 서울의 신규사업체 생존율의 경우 1년 생존율은 71.09%, 2년 생존율은 54.29%, 3년 생존율은 43.83%로 전국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표 3-9〉 전국과 서울의 신규 사업체 평균 생존율의 차이

(단위 :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전국(a)	72.63	56.47	46.42	39.19	33.42
서울(b)	71.09	54.29	43.83	36.40	30.37
차이(a-b)	0.46	2.18	2.59	2.79	3.05

자료 : 통계청, 사업체 생성·소멸(생멸) 현황 분석(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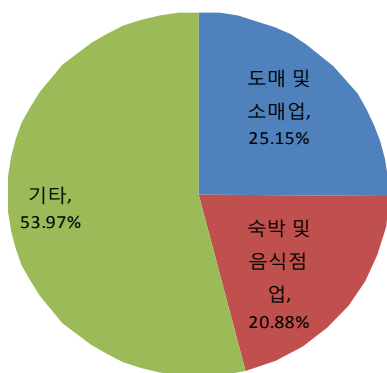
— 서울의 신규사업체 평균생존율은 연차가 높아질수록 전국평균과 차이가 커짐

○ 2004~2009년 신규사업체 및 휴·폐업사업체에서 ‘도매 및 소매업’과 ‘숙

박 및 음식점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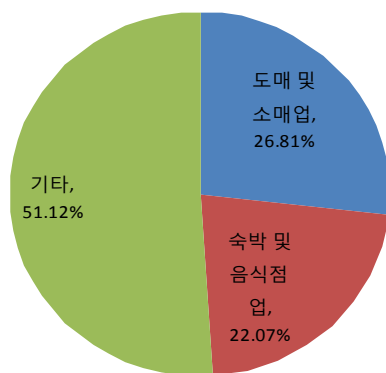
—연평균 신규사업체(595,336개)에서 '도매 및 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5.15%(149,730개), '숙박 및 음식점업'(123,299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88%로 조사됨

—연평균 휴·폐업사업체(577,501개)에서 '도매 및 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6.81%(154,800개), '숙박 및 음식점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2.07% (127,443개)로 파악됨



자료 : 통계청, 사업체 생성·소멸(생멸) 현황 분석 (2011)

〈그림 3-18〉 신규 사업체 구성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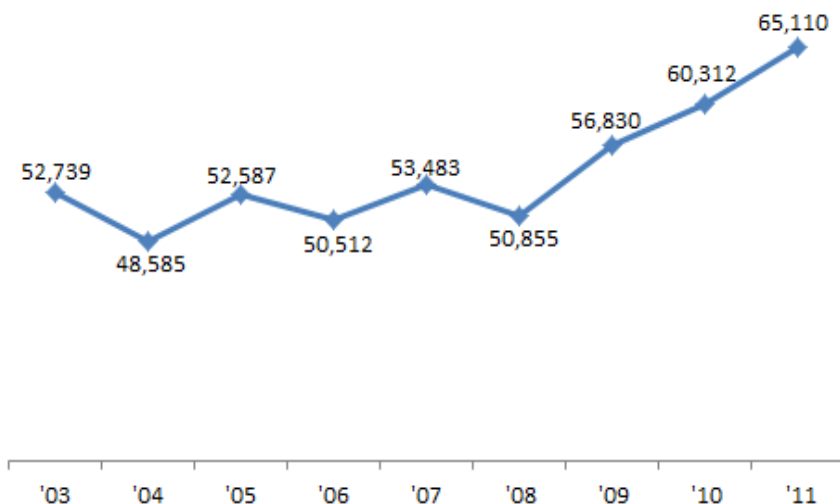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업체 생성·소멸(생멸) 현황 분석 (2011)

〈그림 3-19〉 휴·폐업 사업체 구성비율

## 2) 신설법인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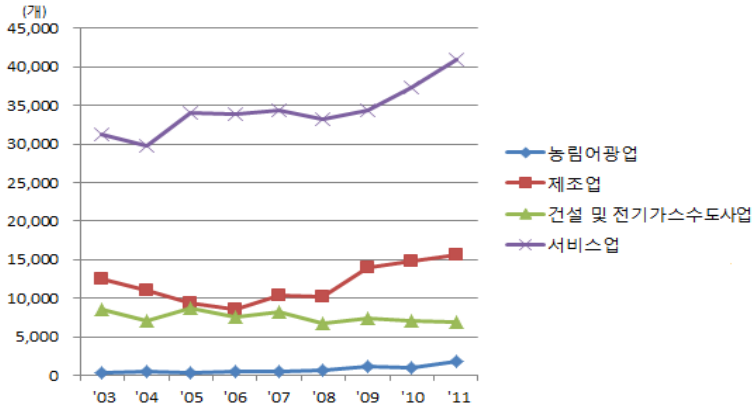
—2011년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65,110개로 전년동기 대비 8.0% 증가하였으며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



자료 : 중소기업 조사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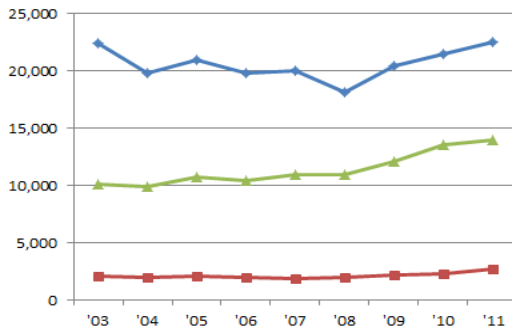
〈그림 3-20〉 신설법인 수 동향(2003~2011)

- 전국의 신설법인 수를 업종별로 보면 증가추세에는 세부적인 차이가 있음
  - －2011년 신설법인의 산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서비스업이 62.8%로 가장 높으며 이어 제조업이 23.9%, 건설 및 전기·가스·수도사업은 10.6%, 농업·임업·어업 및 광업이 2.7%로 나타남
  - －서비스업, 제조업, 농림어광업은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건설 및 전기·가스·수도사업은 감소추세를 나타냄
- 수도권은 2008년 이후 신설법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2011년 지역별 신설법인의 비중은 서울 34.5%, 경기 21.1%, 인천 4.1%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60.7%에 달함
  -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2011년 22,486개로 전년동기 대비 4.7% 증가



자료 : 중소기업 조사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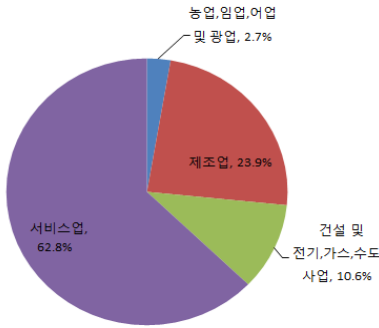
〈그림 3-21〉 전국의 산업별 신설법인 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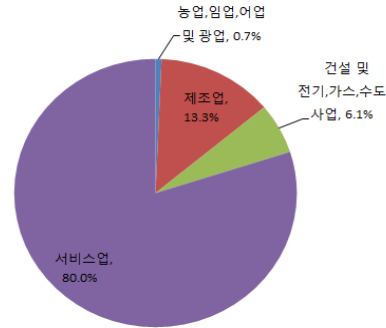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 조사통계시스템

〈그림 3-22〉 수도권 신설법인 수 동향

- 서울의 신설법인 수를 업종별로 보면 전국적인 추세와 차이가 있음
  - 서울의 2011년 신설법인의 산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서비스업이 80.0%로 가장 높으며 이어 제조업이 13.3%, 건설 및 전기·가스·수도사업이 6.1%, 농업·임업·어업 및 광업이 0.7%로 나타나 전국에 비해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으며 다른 산업의 비중은 낮은 특징이 있음



자료 : 중소기업 조사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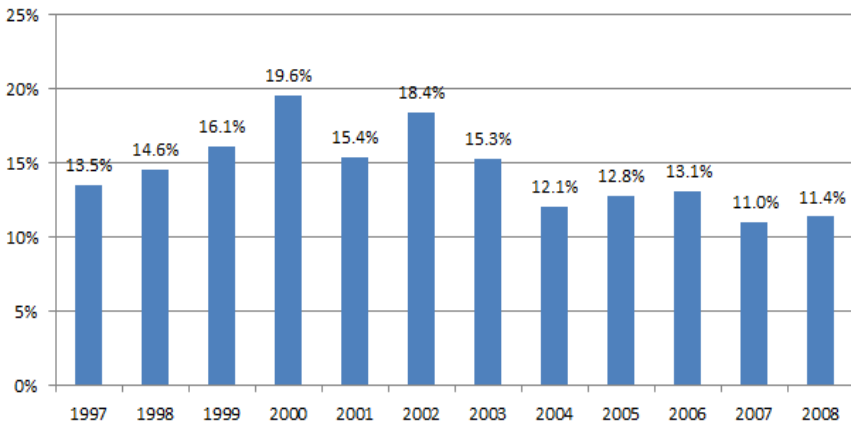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 조사통계시스템

〈그림 3-23〉 전국의 신설법인 업종별 비중 〈그림 3-24〉 서울의 신설법인 업종별 비중

## 2. 생계창업에 비해 비중은 낮으나 평균 고용규모는 큰 기술창업

- 서울시의 전체 창업률 추세를 살펴보면 최근 정체하는 추세에 있음
- 2000년 19.6%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에는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임



자료 : 김묵한 외 2명(2010)

〈그림 3-25〉 서울시 전체 창업률 추세(1997~2008)

- 2007~2009년의 서울시 창업사업체 수와 창업사업체 종사자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업종별로 차이가 많이 나며 세부업종별로 증가율에 차이가 있음
  - 2007년에 비해 2009년의 전체 창업사업체 수와 창업사업체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10% 내외의 증가가 있었음
  - 창업사업체 수를 보면 2009년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28.31%)이며 그다음은 숙박 및 음식점업(23.66%)으로 대표적인 생계형 창업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기술창업으로 분류되는 제조업(4.62%),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6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95%)은 생계형 창업에 비해 비율이 낮게 나타남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증가추세가 뚜렷하지만 제조업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표 3-10〉 서울시 창업사업체 수 및 비중

(단위 : 개)				
대분류	2007	2008	2009	2009 비중
농업, 임업 및 어업	2	1	3	0.00%
광업	2	5	6	0.01%
제조업	4,127	3,717	4,051	4.6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4	9	11	0.01%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5	19	24	0.03%
건설업	1,866	1,655	1,671	1.90%
도매 및 소매업	21,520	22,453	24,836	28.31%
운수업	6,950	6,994	7,022	8.00%
숙박 및 음식점업	18,395	19,533	20,761	23.6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222	1,170	1,432	1.63%
금융 및 보험업	884	830	856	0.98%
부동산업 및 임대업	5,573	5,286	5,314	6.0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132	2,261	2,586	2.9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086	970	1,038	1.18%



〈표 계속〉 서울시 창업사업체 수 및 비중

(단위 : 개)

대분류	2007	2008	2009	2009 비중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2	32	23	0.03%
교육 서비스업	4,482	4,503	4,691	5.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764	1,977	1,921	2.1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502	3,918	4,269	4.8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406	7,039	7,227	8.24%
총합계	79,944	82,372	87,742	100%

- 2007~2009년 서울시 창업사업체 수와 창업사업체 종사자 수를 비교해보면 기술창업 업종이 일반창업 업종에 비해 단위사업체당 고용규모가 큼
- 먼저 생계형 창업인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창업사업체 수 (비중)가 2009년 각각 24,836개(28.31%), 20,761개(23.66%)로 나타났으며 창업사업체 종사자 수는 2009년 각각 71,187명(23.26%), 65,265명(21.33%)으로 조사됨
- 2009년 기준 도매 및 소매업 창업사업체의 단위사업체당 고용규모는 약 2.9명이고 숙박 및 음식점업의 단위사업체당 고용규모는 약 3.1명으로 나타남

〈표 3-11〉 서울시 창업사업체 종사자 수 및 비중

(단위 : 명)

대분류	2007	2008	2009	2009 비중
농업, 임업 및 어업	8	3	18	0.01%
광업	11	16	16	0.01%
제조업	16,347	13,470	15,338	5.0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92	100	246	0.08%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88	94	178	0.06%
건설업	8,118	8,660	7,551	2.47%
도매 및 소매업	59,669	61,160	71,187	23.26%
운수업	10,361	11,305	10,821	3.54%

〈표 계속〉 서울시 창업사업체 종사자 수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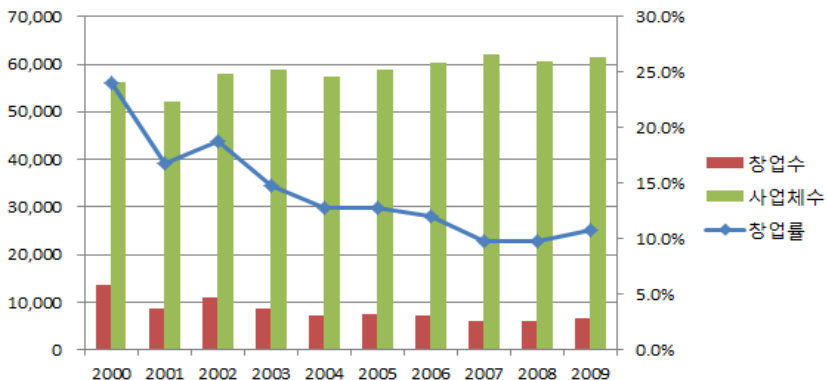
(단위 : 명)

대분류	2007	2008	2009	2009 비중
숙박 및 음식점업	58,369	60,661	65,265	21.3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0,360	7,788	12,188	3.98%
금융 및 보험업	11,600	10,933	12,582	4.1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4,576	11,902	15,013	4.9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3,678	14,312	23,356	7.6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949	8,267	11,960	3.9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75	2,690	1,354	0.44%
교육 서비스업	17,192	17,494	17,052	5.5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143	12,985	12,828	4.1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792	9,089	10,732	3.5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5,670	17,035	18,320	5.99%
총합계	264,298	267,964	306,005	100%

- －기술창업 업종인 제조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창업사업체의 수(비중)가 2009년 각각 4,051개(4.62%), 1,432개(1.63%), 2,586개(2.95%)로 나타났으며 창업사업체 종사자 수는 15,338명(5.01%), 12,188명(3.98%), 23,256명(7.63%)으로 조사됨
- －2009년 기준 제조업 창업사업체의 단위사업체당 고용규모는 약 3.8명이고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단위 사업체당 고용규모는 약 8.5명이며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단위 사업체당 고용규모는 약 9명으로 나타남
- －대표적인 생계형 창업 업종에 비해 기술창업 업종은 단위사업체당 고용규모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창업현황을 기준으로 보면 생계형 창업의 비율이 높은 현재의 서울시 산업구조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현 산업역량을 기본으로 하는 서울시 경제체질개선이 요청되는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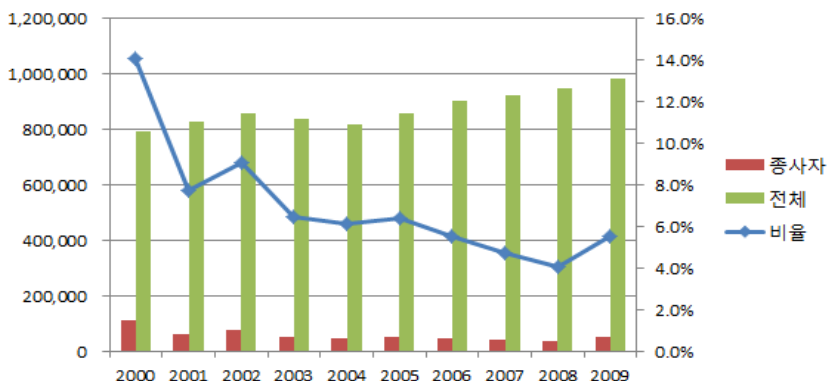
### 3. 주요 기술창업 산업에서의 창업률은 최근 증가세로 전환

- 서울시는 서울경제비전 2020(2011)을 통해 8대 신성장동력산업과 4대 도시형제조업을 서울경제를 스마트화하기 위한 핵심산업으로 선정
  - 산업구조 변화방향과 현 산업역량을 기본으로 하여 서울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글로벌 트렌드와 서울산업의 여건에 적합한 산업을 선정
  - 이 연구에서는 이중 기술창업의 정의에 보다 적합한 8대 신성장동력산업을 중심으로 하여 기술창업 현황을 분석
- 8대 신성장동력산업은 다음과 같으며, 개별 산업의 표준산업분류 상의 정의는 부록을 참조
  - 지식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 비즈니스서비스, 금융, 관광·MICE
  - 차세대 스마트 기술 육성 : IT융합, 바이오메디컬, 녹색산업
  - 창조산업 육성과 창조인재 양성 : 콘텐츠 디자인·패션
- 8대 신성장동력산업의 사업체와 창업추이를 살펴보면 사업체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창업기업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창업률이 낮아지다가 2007년부터 회복세를 보임
- 8대 신성장동력산업의 종사자와 창업기업의 종사자를 살펴보면 종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창업기업 종사자는 감소하여 창업기업 종사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2009년에는 증가함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년도(단위 : 개, %)

〈그림 3-26〉 서울시 8대 신성장동력산업 전체 사업체와 창업률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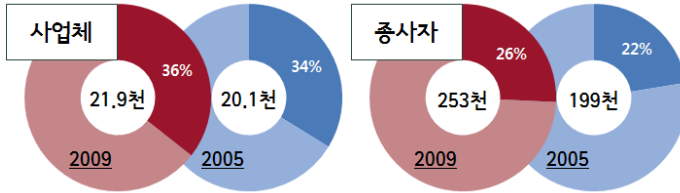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년도(단위 : 명, %)

〈그림 3-27〉 서울시 8대 신성장동력산업 전체 종사자와 창업기업 종사자 비율 변화추이

## 1) 비즈니스서비스

- 서울시 비즈니스서비스업은 2009년 기준 8대 신성장동력산업 중 사업체 기준 36%, 종사자 기준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체는 2,295개로 10.5%의 창업률을 보임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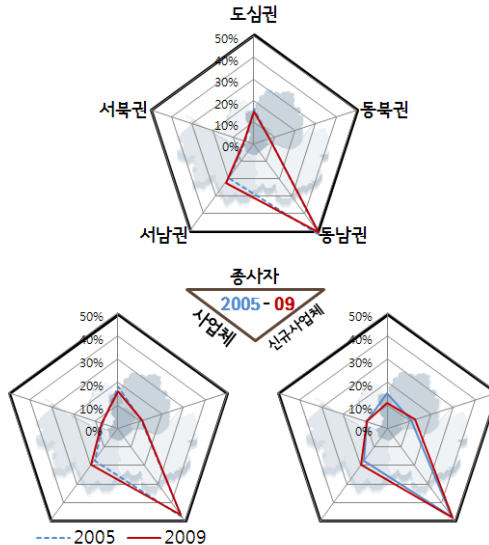
〈그림 3-28〉 서울시 비즈니스서비스업 현황(신성장동력산업 대비)

○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남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서남권이 그다음  
을 차지하고 있음

— 사업체 기준 : 동남권 > 서남권 > 도심권 > 동북권 > 서북권

— 종사자 기준 : 동남권 > 서남권 > 도심권 > 동북권 > 서북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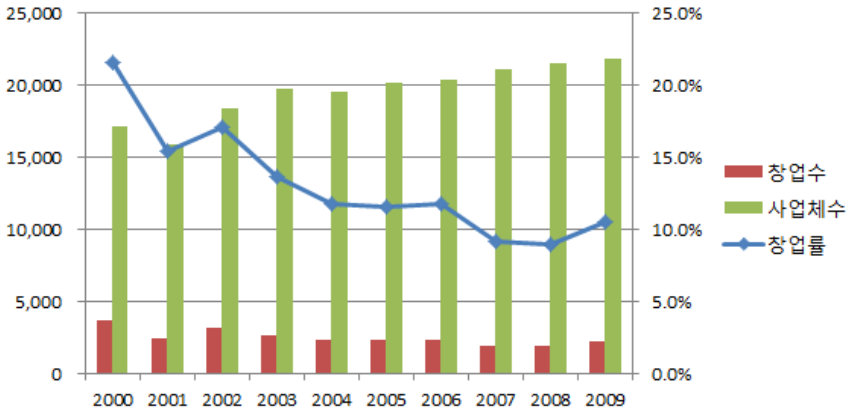
— 신규사업체 기준 : 동남권 > 서남권 > 동북권 > 도심권 > 서북권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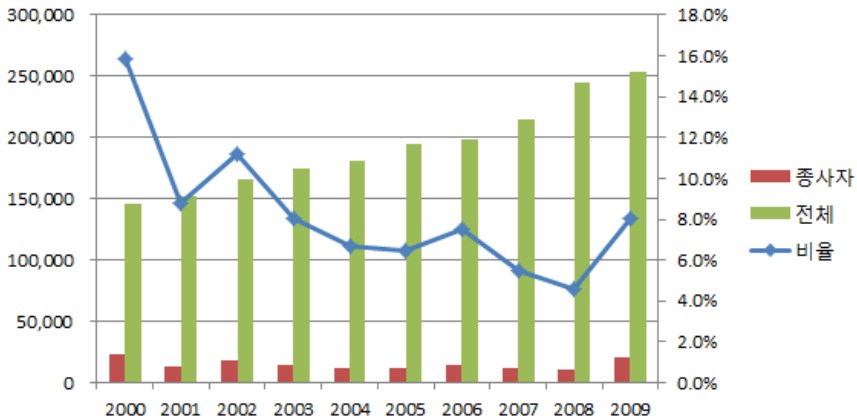
〈그림 3-29〉 서울시 비즈니스서비스업의 권역별 비중

○ 서울시 비즈니스서비스업의 사업체 수는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창업과 창업률의 감소추세가 나타났지만 '08~'09년에는 창업기업수 및 창업률이 상승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년도(단위 : 개, %)

〈그림 3-30〉 서울시 비즈니스서비스업 사업체와 창업률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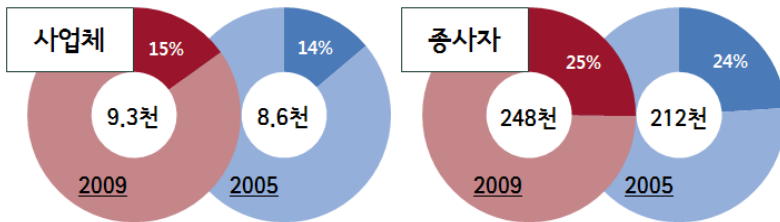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년도(단위 : 명, %)

〈그림 3-31〉 서울시 비즈니스서비스업 종사자와 창업기업 종사자 비율 변화추이

- 서울시 비즈니스서비스업의 종사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창업기업의 종사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며 창업기업 종사비율도 감소추세가 나타났지만 '08~'09년에는 창업기업 종사자 및 창업기업 종사비율이 상승

## 2)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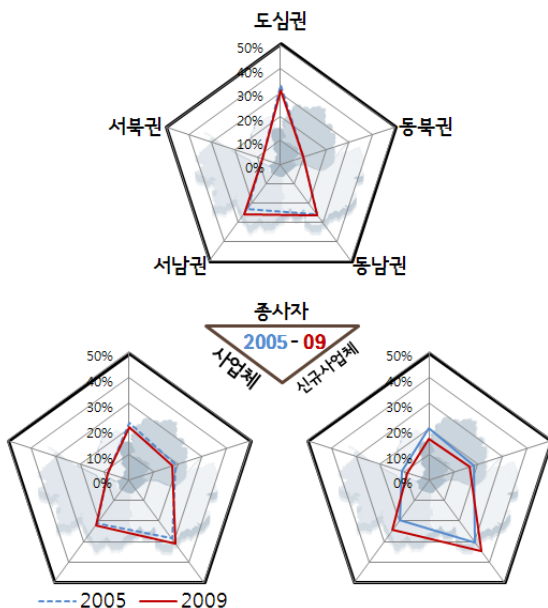
- 서울시 금융업은 2009년 기준 8대 신성장동력산업 중 사업체 기준 15%, 종사자 기준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체는 861개로 9.3%의 창업률을 보임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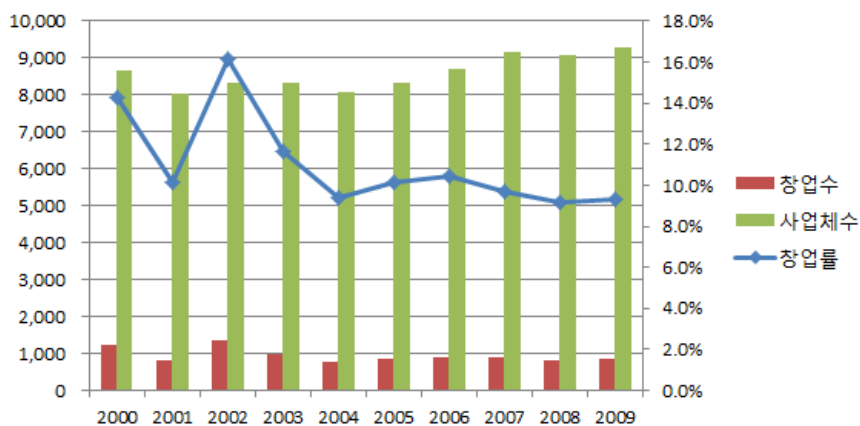
〈그림 3-32〉 서울시 금융업 현황(신성장동력산업 대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업체는 서북권을 제외하고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도심권·동남권·서남권 등 세 권역이 82.4%에 이름
- 서울시 금융업의 사업체 수는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창업은 최근 일정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며 창업률도 큰 변동이 없음
- 서울시의 전체 금융업의 종사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창업기업의 종사자 수는 최근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창업기업 종사자 비율도 일정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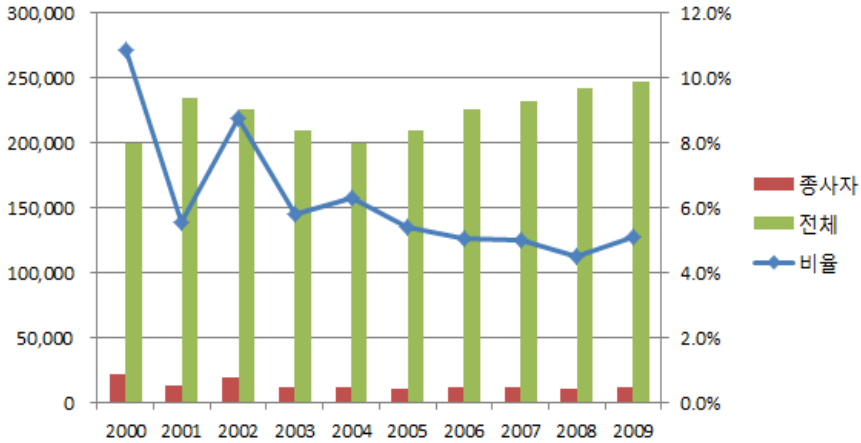
〈그림 3-33〉 서울시 금융업의 권역별 비중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년도(단위 : 개, %)

〈그림 3-34〉 서울시 금융업 사업체와 창업률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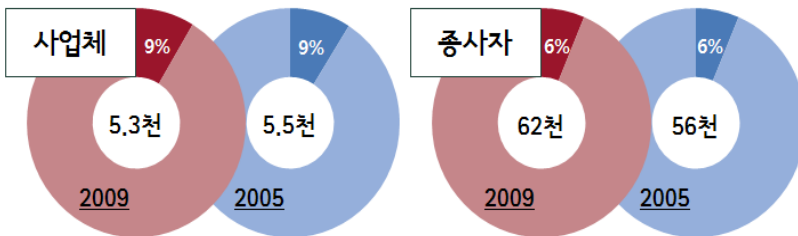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년도(단위 : 명, %)

〈그림 3-35〉 서울시 금융업 종사자와 창업기업 종사자 비율 변화추이

### 3) 관광 · M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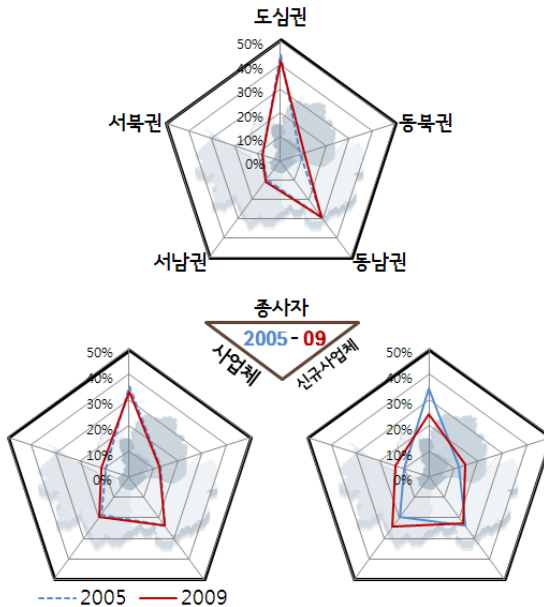
○ 서울시 관광 · MICE산업은 2009년 기준 8대 신성장동력산업 중 사업체 기준 9%, 종사자 기준 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체는 565개로 10.7%의 창업률을 보임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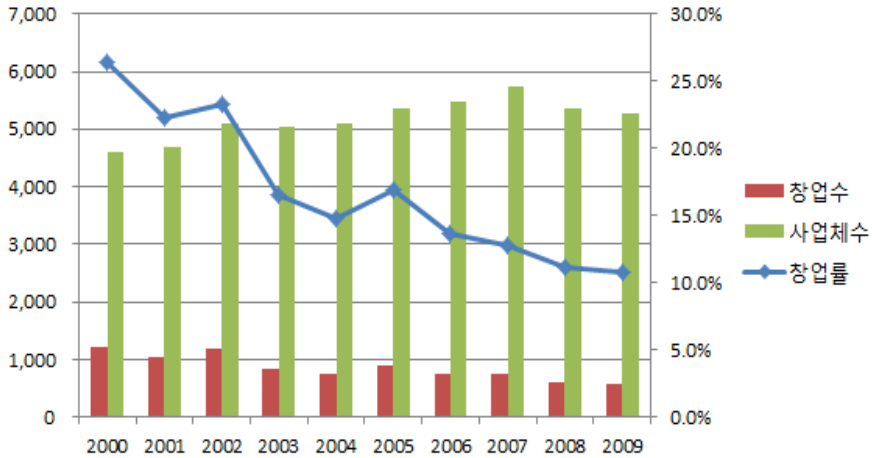
〈그림 3-36〉 서울시 관광 · MICE산업 현황(신성장동력산업 대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업체는 도심권·동남권·서남권에 76.2%가 밀집되어 있으며 종사자는 도심권·동남권이 70.9%를 차지할 정도로 밀집되어 있음
- 서울시 관광·MICE산업의 사업체 수는 2007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창업기업의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창업률은 2005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서울시의 전체 관광·MICE산업의 종사자 수는 변동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창업기업의 종사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창업기업 종사자 비율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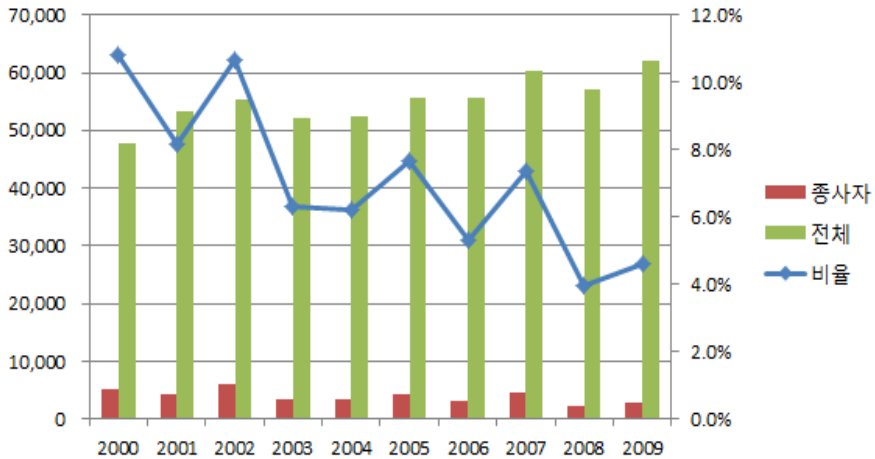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년도

〈그림 3-37〉 서울시 관광·MICE산업 권역별 비중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년도(단위 : 개, %)

〈그림 3-38〉 서울시 관광·MICE산업 사업체와 창업률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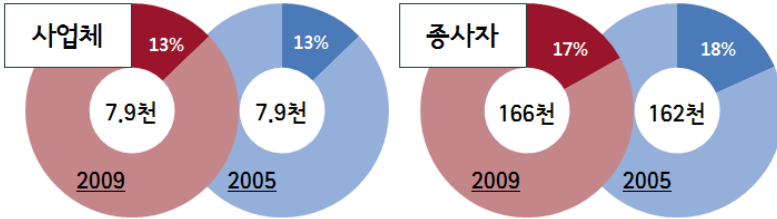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년도(단위 : 명, %)

〈그림 3-39〉 서울시 관광·MICE업 종사자와 창업기업 종사자 비율 변화추이

#### 4) IT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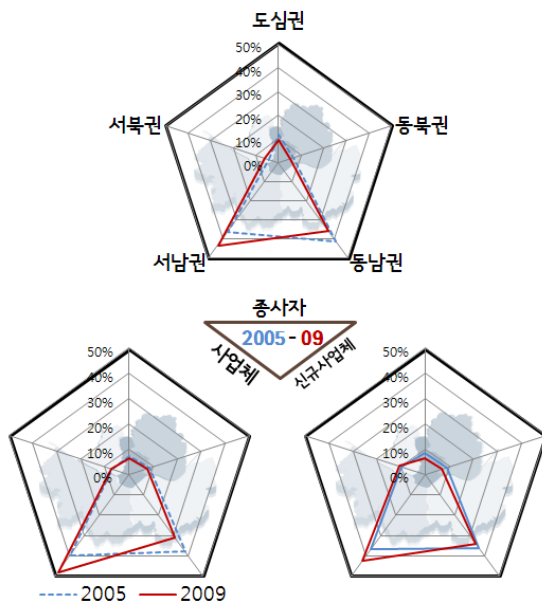
- 서울시 IT융합산업은 2009년 기준 8대 신성장동력산업 중 사업체 기준 13%, 종사자 기준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체는 923개로 11.7%의 창업률을 보임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년도

〈그림 3-40〉 서울시 IT융합산업 현황(신성장동력산업 대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업체는 서남권(47.8%)과 동남권(30.8%)에 78.6%가 밀집되어 있고 종사자도 마찬가지로 서남권(43.4%)과 동남권(35.8%)에 79.2%가 집중되어 있으며 나머지 지역은 모두 10% 이하로 나타남
- 서울시 IT융합산업의 사업체 수는 변동하면서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창업기업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창업률이 하락하다가 2009년에 다시 상승함
- 서울시의 전체 IT융합산업의 종사자 수는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창업기업의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창업기업 종사자 비율이 낮아지다가 2009년에 다시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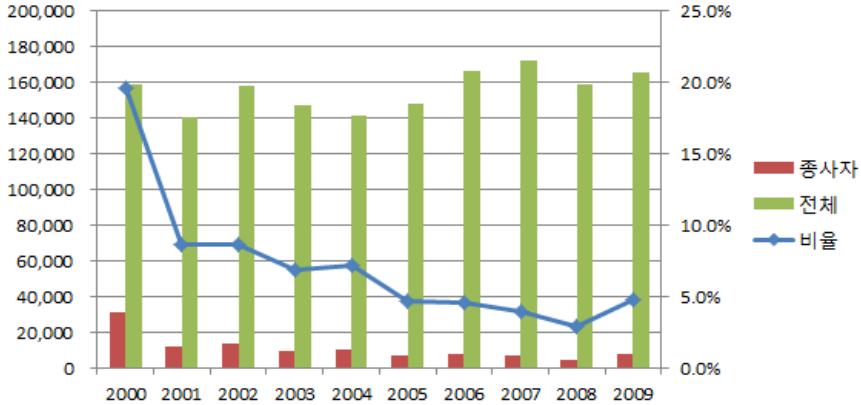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년도

〈그림 3-41〉 서울시 IT융합산업 권역별 비중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년도(단위 : 개, %)

〈그림 3-42〉 서울시 IT융합산업 사업체와 창업률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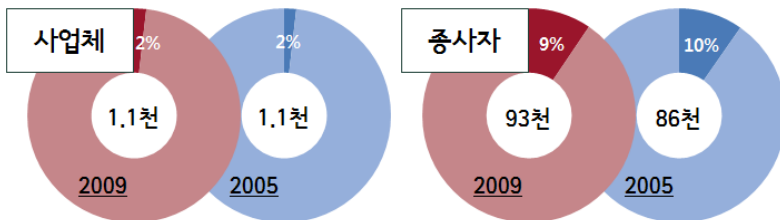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년도(단위 : 명, %)

〈그림 3-43〉 서울시 IT융합산업 종사자와 창업기업 종사자 비율 변화추이

## 5) 바이오메디컬

○ 서울시 바이오메디컬산업은 2009년 기준 8대 신성장동력산업 중 사업체 기준 2%, 종사자 기준 9%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체는 89개로 7.9%의 창업률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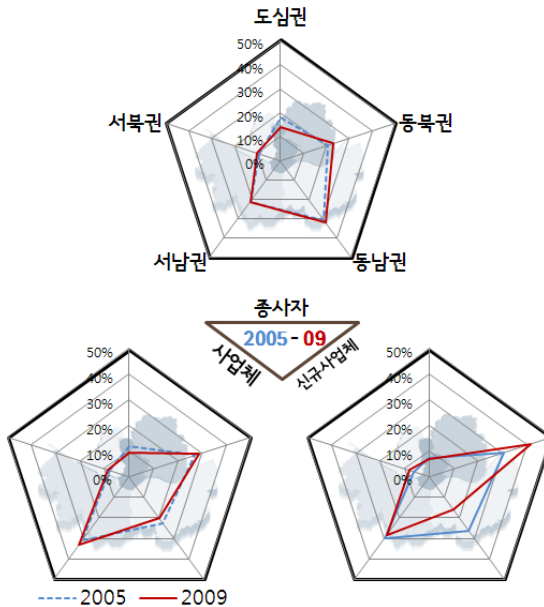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년도

〈그림 3-44〉 서울시 바이오메디컬산업 현황(신성장동력산업 대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업체는 서남권(33.0%) · 동북권(28.7%) · 동남권(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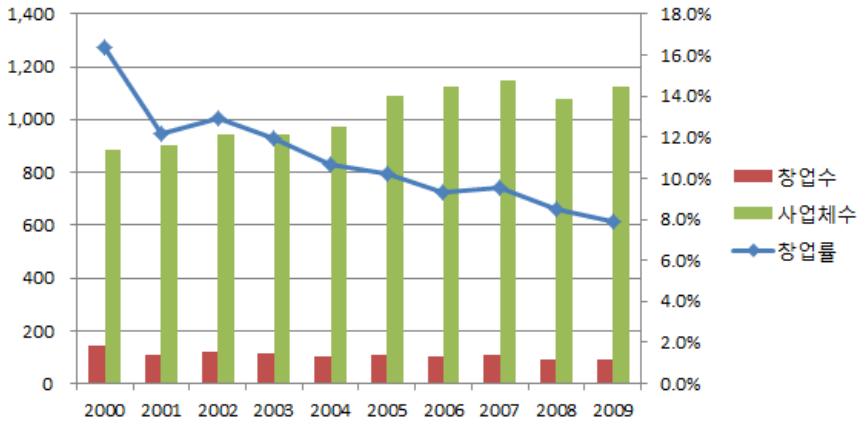
에 밀집되어 있는 반면, 종사자는 동남권(31.7%)·동북권(23.1%)·서남권(21.1%)에 집중되어 있는 대조적인 현상이 나타남

- 서울시 전체 바이오메디컬산업의 사업체 수는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창업은 일정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며 창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 서울시의 전체 바이오메디컬산업의 종사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창업기업의 종사자 수와 창업기업 종사자 비율은 변동폭이 크지만 타 산업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년도

〈그림 3-45〉 서울시 바이오메디컬산업 권역별 비중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년도(단위 : 개, %)

〈그림 3-46〉 서울시 바이오메디컬산업 사업체와 창업률 변화추이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년도(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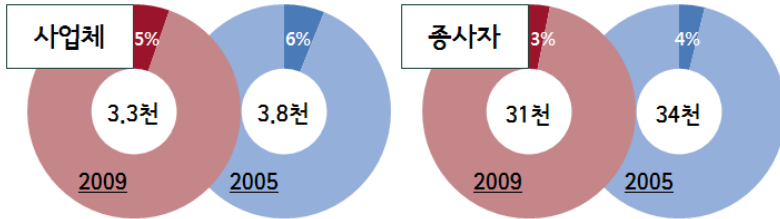
〈그림 3-47〉 서울시 바이오메디컬산업 종사자와 창업기업 종사자 비율 변화추이

## 6) 녹색산업

○ 서울시 녹색산업은 2009년 기준 8대 신성장동력산업 중 사업체 기준 5%, 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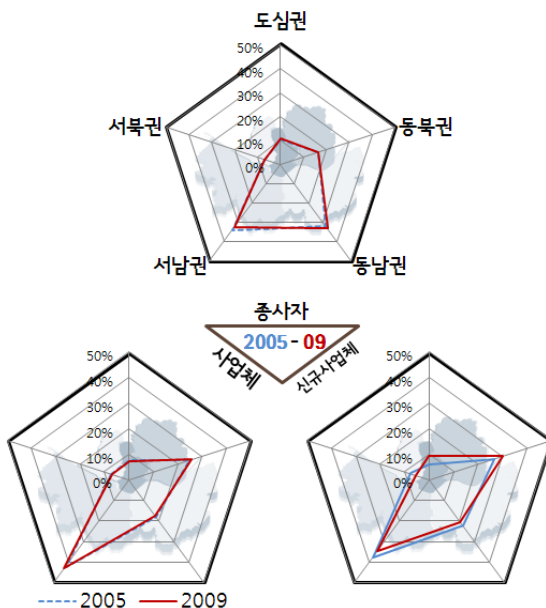
사자 기준 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체는 286개로 8.7%의 창업률을 보임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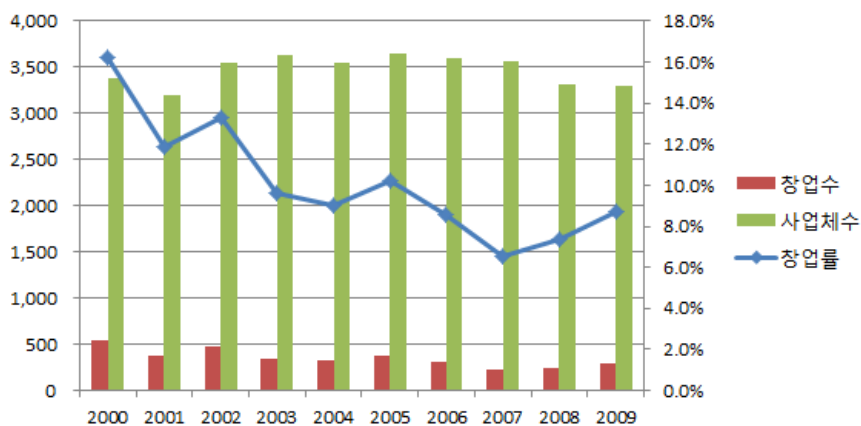
〈그림 3-48〉 서울시 녹색산업 현황(신성장동력산업 대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업체는 서남권·동북권에 밀집되어 있으나 종사자는 동남권·서남권에 집중되어 있음
- 서울시 녹색산업의 사업체 수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창업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7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창업률도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 서울시의 전체 녹색산업의 종사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창업기업의 종사자 수도 감소하여 창업기업 종사자 비율이 하락하였으나 2009년에는 창업기업 종사자 수가 증가하여 창업기업 종사자 비율이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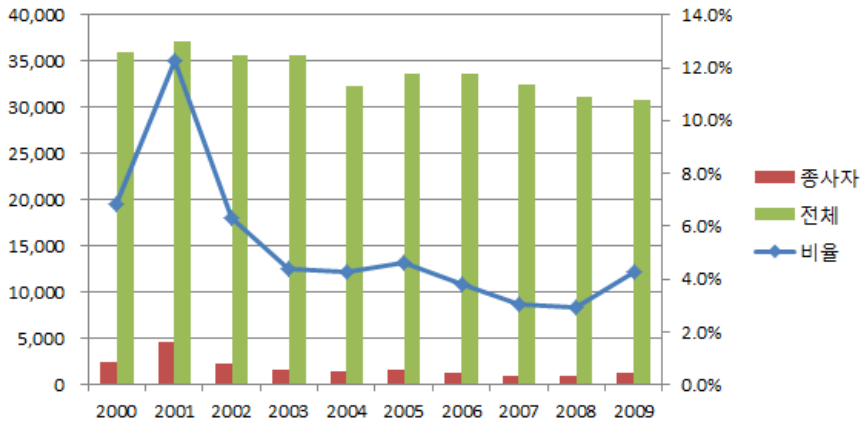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년도

〈그림 3-49〉 서울시 녹색산업 권역별 비중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년도(단위 : 개, %)

〈그림 3-50〉 서울시 녹색산업 사업체와 창업률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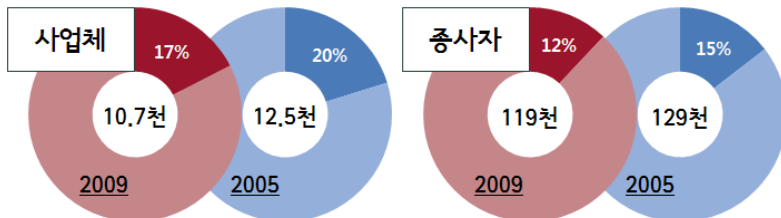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년도(단위 : 명, %)

〈그림 3-51〉 서울시 녹색산업 종사자와 창업기업 종사자 비율 변화추이

## 7)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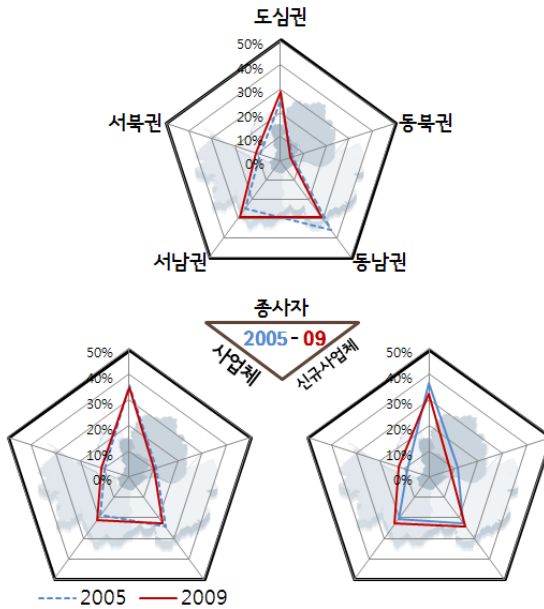
- 서울시 콘텐츠산업은 2009년 기준 8대 신성장동력산업 중 사업체 기준 17%, 종사자 기준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체는 1,272개로 11.9%의 창업률을 보임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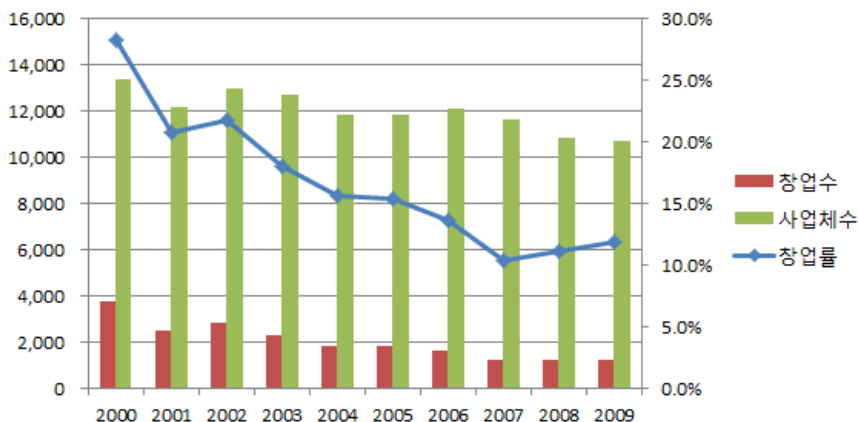
〈그림 3-52〉 서울시 콘텐츠산업 현황(신성장동력산업 대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업체는 도심권(34.7%)에 가장 밀집되어 있고 동남권(22.4%) · 서남권(21.3%)이 2위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서남권(29.0%) · 동남권(28.9%) · 도심권(26.8%)에서 비슷한 비중이 나타남
- 서울시 콘텐츠산업의 사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창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에는 안정화추세를 보이며 2007년 이후에는 창업률이 증가하고 있음
- 서울시의 콘텐츠산업의 종사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창업기업의 종사자 수도 감소하여 창업기업 종사자 비율은 2007년 이후 일정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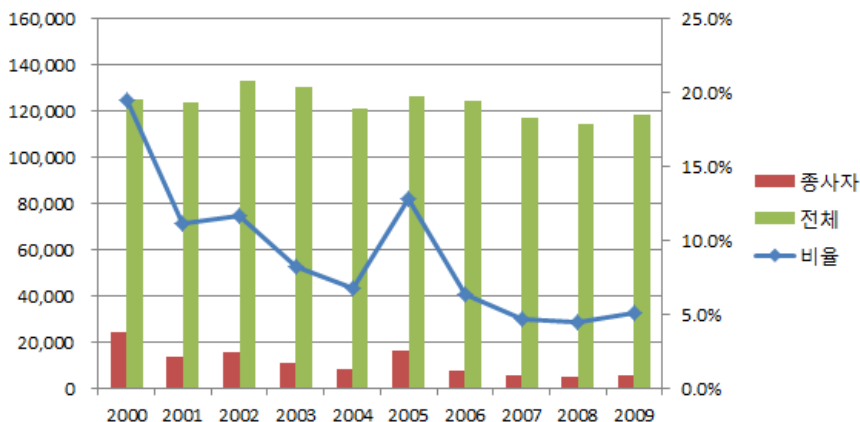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년도

〈그림 3-53〉 서울시 콘텐츠산업 권역별 비중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년도(단위 : 개, %)

〈그림 3-54〉 서울시 콘텐츠산업 사업체와 창업률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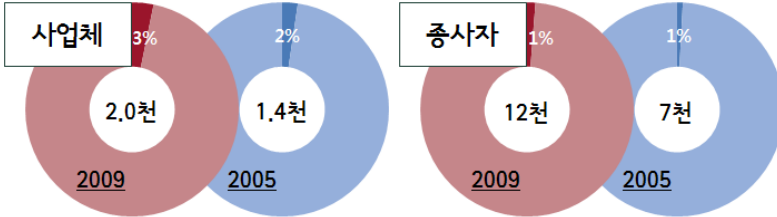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년도(단위 : 명, %)

〈그림 3-55〉 서울시 콘텐츠산업 종사자와 창업기업 종사자 비율 변화추이

## 8) 디자인 · 패션

○ 서울시 디자인 · 패션산업은 2009년 기준 8대 신성장동력산업 중 사업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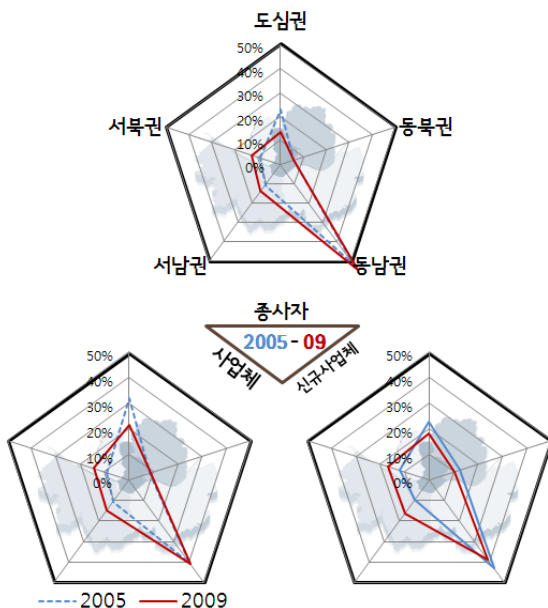
준 3%, 종사자 기준 1%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체는 290개로 14.6%의 창업률을 보임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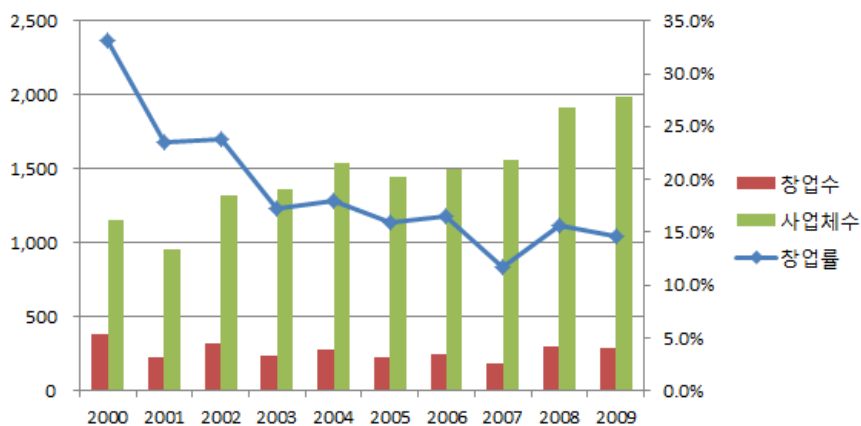
〈그림 3-56〉 서울시 디자인·패션산업 현황(신성장동력산업 대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업체는 동남권(40.6%)에 가장 밀집되어 있고 도심권(21.3%)의 밀집도도 높으며 종사자는 동남권(54.5%)이 압도적인 가운데 서남권(13.9%)·도심권(13.4%)·서북권(12.4%)의 비중이 비슷하게 나타남
- 서울시 디자인·패션산업의 사업체 수는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창업은 최근 일정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며 창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서울시의 전체 디자인·패션산업의 종사자 수는 최근 급증하였으나 창업기업의 종사자 수는 감소추세 후 증가추세로 변화되었으며 창업기업 종사자 비율도 증가추세로 반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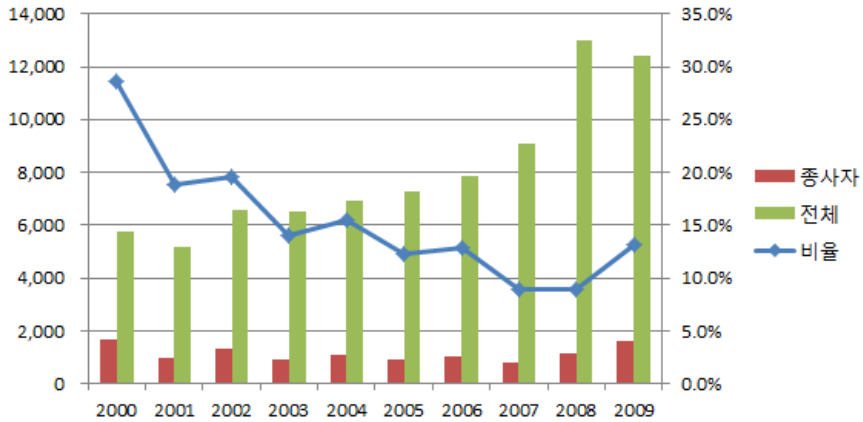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년도

〈그림 3-57〉 서울시 디자인·패션산업 권역별 비중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년도(단위 : 개, %)

〈그림 3-58〉 서울시 디자인·패션산업 사업체와 창업률 변화추이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년도(단위 : 명, %)

〈그림 3-59〉 서울시 디자인·패션산업 종사자와 창업기업 종사자 비율 변화추이



## 제4장      기술창업기업의 정책수요

제1절   기술창업기업 정책수요조사 개요

제2절   예비창업자와 기술창업기업의 정책수요 분석

## 제 4 장

# 기술창업기업의 정책수요

### 제1절 기술창업기업 정책수요조사 개요

#### 1. 조사개요

##### 1) 조사목적

- 향후 서울시 기술창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방안을 확립하기 위해 예비창업자 및 기술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수요 조사
  - － 예비창업자에게는 창업에 대한 일반현황, 일반인식, 기술창업 시 애로사항을 조사 및 분석하고 잠재적인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기술창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 기술창업기업에게는 일반현황, 일반인식, 기업매출 및 환경, 기술창업 시 애로사항을 조사 및 분석하여 기업현황을 인식하고 기업이 느끼는 기존 정책의 문제점 파악 및 향후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기술창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2) 조사설계

- 이 연구에서의 정책수요 조사는 조건충족기-도약기-확립기로 이어지는 기

술창업 선순환 생태계 분석틀을 바탕으로 예비창업자·기술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함

—예비창업자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창업보육센터 운영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과 대학의 창업동아리 학생 및 하이서울 창업스쿨의 기술창업교육을 받은 수강생을 대상으로 함

—기술창업기업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기술창업과 관련 있는 창업센터인 성수IT센터, 서울신기술창업센터, 서울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과 서울시 관내에 있는 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 포함) 및 서울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를 대상으로 함(기술지주회사가 서울시 관내에 있으나 자회사가 타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제외)

○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방문면접·협조요청·FAX 및 E-mail을 활용하여 진행

○ 표본은 예비창업자 152명과 기술창업기업 350개를 추출

—예비창업자는 창업보육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에서 창업 의도가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상태이며 창업관련 프로그램이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 사람 및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창업교육인 하이서울창업스쿨의 창업전문과정 중 기술창업교육과정을 수강한 교육생 중에서 추출

—기술창업기업은 서울시 창업보육센터 중 기술창업과 관련이 있는 성수IT센터, 서울신기술창업센터(강서), 서울창업지원센터(구로)의 입주기업 중에서 기술창업 대상 업종의 창업준비기업 또는 창업기업과 기술창업 이후 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 등의 인증과정을 거쳐 기술을 이용하여 보다 발전적인 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 및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술지주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실질적인 기술창업 사례인 자회사를 대상으로 추출

—조사기간은 2012년 5월23일부터 6월21일까지 총 30일

〈표 4-1〉 조사설계 개요

구분	예비창업자	기술창업기업
조사대상	①서울시 관내 대학교 운영 창업보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 및 창업준비자 ②대학의 창업동아리 학생 ③하이서울창업스쿨의 기술창업교육 수강대상자	①기술창업관련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성수 IT센터, 서울신기술창업센터, 서울창업지원센터) ②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 포함) ③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방문면접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방문면접 또는 협조요청 및 FAX/E-mail 조사
표본추출	16개 대학 소속 센터 전수조사 및 기술창업 교육대상자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 및 기업체 리스트 무작위 추출
유효표본	152명	총 350개 기업체 (①27개 ②295개 ③28개)
조사기간	2012년 5월23일 ~ 6월21일	

### 3)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일반현황, 일반인식, 기업매출 및 환경, 애로사항, 정책수요의 5개 범주로 구성

- －일반현황은 응답자 및 응답기업의 특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
- －일반인식은 창업정보와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
- －기업매출 및 환경은 매출액, 인건비, 향후 전망 등의 질문으로 구성
- －애로사항은 창업 시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
- －정책수요는 기존정책의 인지도와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질문으로 구성

〈표 4-2〉 설문 세부조사 항목

구분	세부 조사항목	
	예비창업자	기술창업기업
I.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li> <li>· 연령</li> <li>· 학년</li> <li>· 전공</li> <li>· 현재과정</li> <li>· 창업동호회 참여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자 성별</li> <li>· 창업자 연령</li> <li>· 창업자 학력</li> <li>· 창업자 전공</li> <li>· 회사명</li> <li>· 소재지</li> <li>· 연락처</li> <li>· 창업자 성명</li> <li>· 창업자 이전근무지</li> <li>· 창업연도</li> <li>· 총업원수</li> <li>· 회사유형</li> <li>· 회사업종</li> <li>· 기업상장유무</li> <li>· 메인비즈 및 이노비즈 인증 여부</li> <li>· 벤처기업 지정 여부 및 유형</li> <li>· 사업장 유형과 규모 및 자가 여부</li> <li>· 연구조직형태</li> <li>· 주요제품 및 서비스</li> </ul>
II.일반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정보 획득 경로</li> <li>· 창업의 목적</li> <li>· 창업 결심 및 창업 의지가 커지게 된 동기</li> <li>· 창업 성공의 중요 요소</li> <li>· 창업에 관심을 갖는데 영향을 준 요인</li> </ul>	
III.기업매출 및 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비중</li> <li>· 매출액과 인건비</li> <li>· R&amp;D투자실적</li> <li>· 사업장 입지조건</li> <li>· 인력확보 시 애로사항</li> <li>· 2011년 경영환경 전망</li> <li>· 기술 및 신제품개발 방식</li> </ul>
IV.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창업기회</li> <li>· 본인의 창업능력</li> <li>· 창업에 대한 두려움</li> <li>· 본인의 기술창업 애로사항</li> <li>· 기술창업 소요시간</li> <li>· 기술창업 유망분야</li> <li>· 기술창업 의향 및 분야</li> <li>· 서울의 기술창업 활성화 정도</li> <li>· 서울에서의 기술창업 애로사항</li> <li>· 서울의 사회경제적 창업여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의 기술창업 애로사항</li> <li>· 기술창업 소요시간</li> <li>· 기술창업 유망분야</li> <li>· 서울의 기술창업 활성화 정도</li> <li>· 서울에서의 기술창업 애로사항</li> <li>· 서울의 사회경제적 창업여건</li> </ul>
V.정책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기술창업정책 인지도</li> <li>· 자금지원사업의 인지도 및 중요 자금원</li> <li>· 교육지원사업의 인지도 및 중요한 요소</li> <li>· 경영기술지원사업의 인지도 및 가장 필요한 부분</li> <li>· 시설지원사업의 인지도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 시 이점</li> <li>· 홍보지원사업의 인지도 및 홍보대상</li> <li>· 현재 창업지원정책의 도움 정도</li> <li>·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시해야 할 부분</li> <li>· 자유의견</li> </ul>	

## 제2절 예비창업자와 기술창업기업의 정책수요 분석

### 1. 일반현황

#### 1) 예비창업자

- 설문에 응답한 총 152명 예비창업자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음
  - － 성별로는 남성이 115명으로 75.7%, 여성은 24.3%로 나타남
  - － 연령은 19~29세가 106명으로 69.7%, 30세 이상은 46명으로 30.3%로 조사됨

〈표 4-3〉 응답 예비창업자 특성

구 분		사례수(명)	비율(%)
전 체		152	100.0
성	남성	115	75.7
	여성	37	24.3
연령	19~29세	106	69.7
	30세 이상	46	30.3
학년	대재	108	72.0
	대졸	19	12.7
	석사과정	16	10.7
	박사과정	3	2.0
	박사 후 과정	4	2.7
전공	공학	64	42.1
	자연과학	11	7.2
	인문	18	11.8
	사회	28	18.4
	의학	1	0.7
	예체능	25	16.4
	경영/상경계열	5	3.3
현재과정	교육생	70	46.1
	예비창업 중	82	53.9
창업동호회 참여 경험	참여 경험 있다	68	44.7
	참여 경험 없다	84	55.3
기술창업 의향	계획 있음	101	66.4
	계획 없음	51	33.6

※ 전체 통계표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세부항목의 합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학력은 대학 재학이 72%(108명)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대졸 12.7%, 석사과정 10.7%, 박사과정 2%, 박사후 과정 2.7%로 나타남
- 전공은 공학이 42.1%(64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그다음은 사회계열 18.4%, 예체능계열 16.4%, 인문계열 11.8%, 자연과학 7.2%의 순으로 조사됨
- 현재 예비창업을 준비 중이 53.9%(82명), 창업교육생은 46.1%(70명)로 나타남
- 기술창업 계획이 있는 대상자는 66.4%(101명), 계획이 없는 대상자는 33.6%(51명)로 조사됨

## 2) 기술창업기업

- 설문에 응답한 총 350개 기술창업기업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음
  - 기업유형별로는 벤처기업이 295개로 84.3%를 차지하며 기술지주회사가 28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 27개로 나타남
  - 종업원 규모는 10명 이하 사업체가 177개로 과반수인 50.6%에 달하며 11인 이상 사업체는 49.6%로 조사됨
  - 주요업종은 제조 26.0%(91개), 소프트웨어 21.1%(74개), 정보통신 17.4%(61개), 전기전자 8.3%, 문화콘텐츠 6.9%, 기계 4.3%, 바이오 2.6%, 기타업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메인비즈 인증기업은 4.6%(16개), 비해당 기업은 92.9%(325개)로 조사됨
  - 이노비즈 인증기업은 37.1%(130개), 비해당 기업은 210개 60.0%(210개)로 나타남
  - 벤처기업 지정 기업은 91.1%(319개), 미지정 기업은 8.6%(30개), 무응답은 0.3%(1개)로 조사됨

〈표 4-4〉 응답 기술창업기업 특성

구 분			사례수 (명)	비율 (%)	구 분			사례수 (명)	비율 (%)
전 체			350	100.0	전 체			350	100.0
기업구분	벤처기업		295	84.3	업종	연구용역		2	0.6
	기술지주회사		28	8.0		교육서비스		1	0.3
	창업보육센터		27	7.7		광고		2	0.6
종업원 규모	1~5명		85	24.3		마케팅		1	0.3
	6~10명		92	26.3		출판		1	0.3
	11~20명		84	24.0		해양조사		1	0.3
	21~30명		35	10.0		인테리어		3	0.9
	31~50명		27	7.7		환경		2	0.6
	51~99명		15	4.3		의료서비스		1	0.3
	100명 이상		12	3.4		구강위생용품		1	0.3
회사 유형	주식회사		332	94.9		여행업		1	0.3
	개인회사		17	4.9		화장품		1	0.3
	무응답		1	0.3		원자력기술서비스		1	0.3
업종	바이오		9	2.6		신재생에너지		2	0.6
	기계		15	4.3		석유화학		1	0.3
	정보통신		61	17.4		무응답		1	0.3
	전기전자		29	8.3	메인비즈 인증 여부	인증		16	4.6
	제조		91	26.0		비해당		325	92.9
	소재		2	0.6		무응답		9	2.6
	의료기기		8	2.3	이노비즈 인증 여부	인증		130	37.1
	문화콘텐츠		24	6.9		비해당		210	60.0
	소프트웨어		74	21.1		무응답		10	2.9
	토목/건설		11	3.1	벤처기업 지정 여부	지정		319	91.1
	디자인		3	0.9		미지정		30	8.6
	오염물질분석		1	0.3		무응답		1	0.3

※ 전체 통계표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세부항목의 합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2. 일반인식

### 1) 창업에 관심을 갖게 된 요인

○ 예비창업자들은 창업에 관심을 갖게 된 요인으로, ‘사회에 널리 알려진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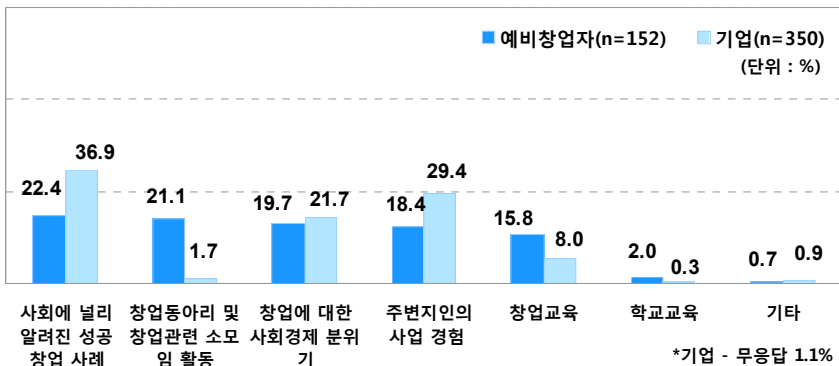


공 창업 사례’(22.4%), ‘창업동아리 및 창업 관련 소모임 활동’(21.1%), ‘창업에 대한 사회경제 분위기’(19.7%), ‘주변 지인의 사업 경험’(18.4%), ‘창업교육’(15.8%) 등의 순으로 응답함

— ‘사회에 널리 알려진 성공 창업 사례’는 기술창업 계획이 없는(33.3%) 응답자에서 특히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

— ‘창업동아리 및 창업 관련 소모임 활동’은 창업동호회 참여(29.4%)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기술창업기업 경영자들이 창업에 관심을 갖게 된 요인으로서는 ‘사회에 널리 알려진 성공 창업 사례’(36.9%)가 가장 많이 꼽혔고, ‘주변 지인의 사업 경험’(29.4%), ‘창업에 대한 사회경제 분위기’(21.7%)도 많이 선택됐으며 그 밖에 ‘창업교육’(8.0%), ‘창업동아리 및 창업 관련 소모임 활동’(1.7%), ‘아이템 발견’(0.6%), ‘학교교육’(0.3%) 등의 순으로 조사됨(기타 0.3%, 무응답 1.1%)
- ‘사회에 널리 알려진 성공 창업 사례’는 창업보육센터(55.6%), 31~50인 기업(44.4%), ‘주변 지인의 사업 경험’은 21~30인 기업(40.0%)에서 각각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임



〈그림 4-1〉 창업에 관심을 갖게 된 요인

- 성공창업사례, 주변 지인의 사업 경험 등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주변

환경이 창업에 대한 관심을 끄는 주요한 요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음

## 2) 창업정보 습득 경로

○ 예비창업자들은 창업 정보를 ‘인터넷’(73.7%)을 통해 얻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이어 ‘창업동아리 또는 창업모임’(38.8%), ‘방송·신문 등의 미디어’(27.6%), ‘창업교육’(22.4%), ‘창업보육센터’(15.8%), ‘홍보포스터’(5.9%), ‘창업박람회’(5.3%) 등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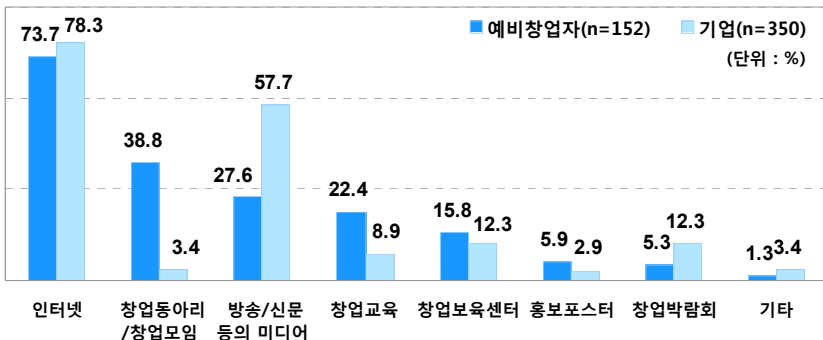
— ‘인터넷’을 통한 습득은 30세 이상(87.0%), 창업동호회에 미참여(83.3%)한 응답자에서 특히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창업동아리 또는 창업모임’은 여성(56.8%), 창업동호회 참여(69.1%), 기술창업 계획이 없는(52.9%)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기술창업기업 경영자들은 주로 ‘인터넷’(78.3%)을 통해 창업 정보를 얻고 있고, ‘방송/신문 등의 미디어’(57.7%)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다음은 ‘창업보육센터’(12.3%), ‘창업박람회’(12.3%), ‘창업교육’(8.9%), ‘창업동아리 또는 창업모임’(3.4%), ‘홍보포스터’(2.9%)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인터넷’은 6~10인 기업(84.8%)에서 특히 높은 응답률을 보임

— ‘방송/신문 등의 미디어’는 11~50인 기업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4-2〉 창업정보 습득 경로

○ 전체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습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예비창업자들은 암묵적 지식을 통한 창업정보습득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기술창업기업 경영자들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정보습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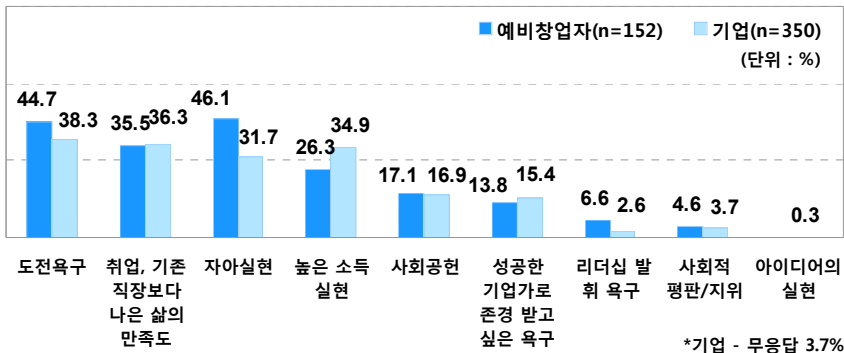
### 3) 창업의 주된 목적

○ 예비창업자들은 ‘자아실현’(46.1%), ‘도전 욕구’(44.7%)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 ‘취업 또는 기존 직장보다 나은 삶의 만족도’(35.5%), ‘높은 소득 실현’(26.3%), ‘사회공헌’(17.1%), ‘성공한 기업가로 존경받고 싶은 욕구’(13.8%), ‘리더십 발휘 욕구’(6.6%), ‘사회적 평판/지위’(4.6%) 순으로 조사됨

– ‘자아실현’은 30세 이상(56.5%) 연령층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임

– ‘도전 욕구’는 여성(54.1%)에서 높게 나타남

– ‘취업 또는 기존 직장보다 나은 삶의 만족도’는 기술창업 계획이 없는(45.1%)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4-3〉 창업의 주된 목적

○ 기술창업기업 경영자들은 ‘도전 욕구’(38.3%), ‘취업 또는 기존 직장보다 나은

삶의 만족도’(36.3%), ‘높은 소득 실현’(34.9%), ‘자아실현’(31.7%), ‘사회공헌’(16.9%), ‘성공한 기업가로 존경받고 싶은 욕구’(15.4%), ‘사회적 평판/지위’(3.7%), ‘리더십 발휘 욕구’(2.6%), ‘아이디어의 실현’(0.3%) 순으로 응답함(무응답 3.7%)

— ‘도전 욕구’는 기술지주회사(46.4%)에서 특히 높은 응답률을 기록함

— ‘높은 소득 실현’은 21~50인 기업, 이노비즈 인증(40.0%), ‘자아실현’은 기술지주회사(39.3%)에서 각각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예비창업자는 이상적인 목적(자아실현)으로, 기술창업기업 경영자는 현실적인 목적(높은 소득 실현)으로 창업을 하려는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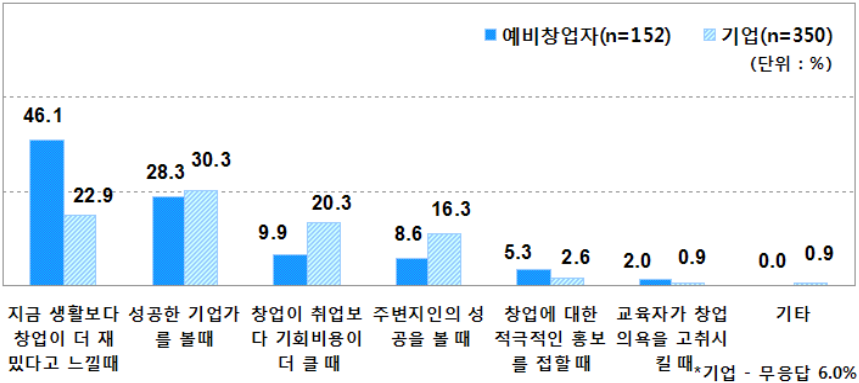
#### 4) 창업 결심 동기

○ 예비창업자들은 창업을 결심하거나 창업 의지가 커지게 된 동기로 ‘지금의 생활보다 창업이 더 재밌다고 느낄 때’가 46.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다음은 ‘성공한 기업가를 볼 때’(28.3%)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밖에 ‘창업이 취업보다 기회비용이 더 클 때’(9.9%), ‘주변 지인의 성공을 볼 때’(8.6%), ‘창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접할 때’(5.3%), ‘교육자가 창업의욕을 고취시킬 때’(2.0%) 순으로 나타남

— ‘지금의 생활보다 창업이 더 재밌다고 느낄 때’는 대부분의 계층에서 높은 응답률을 기록함

— ‘성공한 기업가를 볼 때’는 기술창업 계획이 없는(37.3%)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기술창업기업 경영자들은 ‘성공한 기업가를 볼 때’가 30.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은 ‘지금의 생활보다 창업이 더 재밌다고 느낄 때’(22.9%), ‘창업이 취업보다 기회비용이 더 클 때’(20.3%), ‘주변 지인의 성공을 볼 때’(16.3%), ‘창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접할 때’(2.6%), ‘교육자가 창업의욕을 고취시킬 때’(0.9%) 등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4-4〉 창업 결심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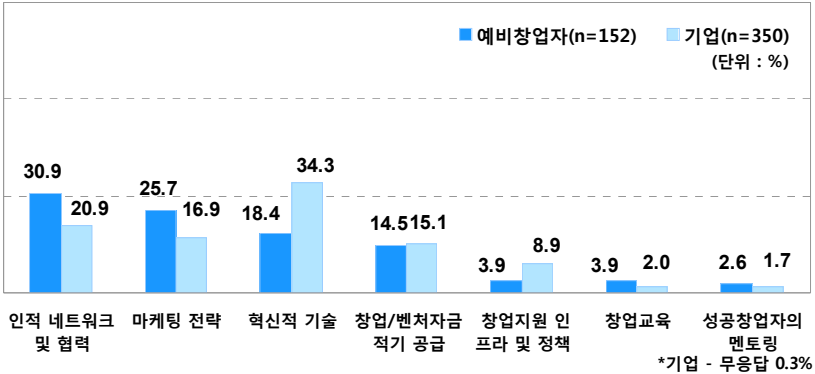
- ‘성공한 기업가를 볼 때’는 창업보육센터(40.7%), 벤처기업 미지정(43.3%) 기업에서 특히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지금의 생활보다 창업이 더 재밌다고 느낄 때’는 창업보육센터(29.6%), 11~20인 기업(28.6%)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예비창업자는 흥미를 가지고 창업을 결심하게 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기술창업기업 경영자는 기회비용을 고려한 현실적인 이유로 창업을 결심하게 된 경우가 높게 나타남

## 5) 창업성공의 중요 요소

- 예비창업자는 창업 성공을 위해 ‘인적 네트워크 및 협력’(30.9%)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마케팅 전략’(25.7%), ‘혁신적 기술’(18.4%)이라는 응답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인적 네트워크 및 협력’이 대부분의 계층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임
- ‘마케팅 전략’은 여성(48.6%), 교육생(35.7%)에서 특히 응답률이 높음
- 기술창업기업 경영자는 창업 성공을 위해 ‘혁신적 기술’(34.3%)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인적 네트워크 및 협력’(20.9%), ‘마케팅

전략'(16.9%), ‘창업/벤처자금 적기 공급’(15.1%), ‘창업지원 인프라 및 정책’(8.9%), ‘창업교육’(2.0%), ‘성공 창업자의 멘토링’(1.7%)이라는 응답 순으로 조사됨

－‘혁신적 기술’은 11~30인 기업, 이노비즈 인증(43.1%) 기업, ‘인적 네트워크 및 협력’은 창업보육센터(40.7%), 벤처기업 미지정(26.7%) 기업에서 각각 매우 높은 응답률을 기록함



〈그림 4-5〉 창업 성공의 중요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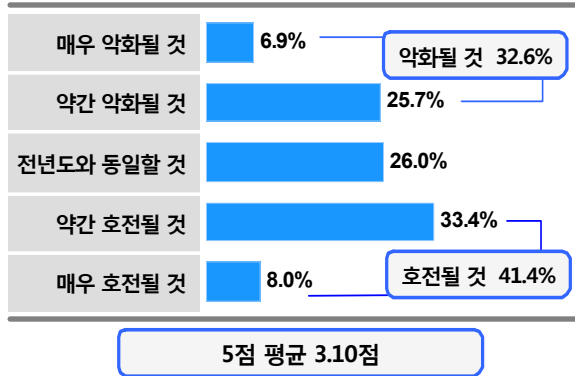
○ 예비창업자는 인적 네트워크 및 협력과 마케팅 전략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기업 경영자는 혁신적 기술과 창업지원 인프라 및 정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예비창업자와 기업경영자의 인식 차이를 볼 수 있음

### 3. 기업매출 및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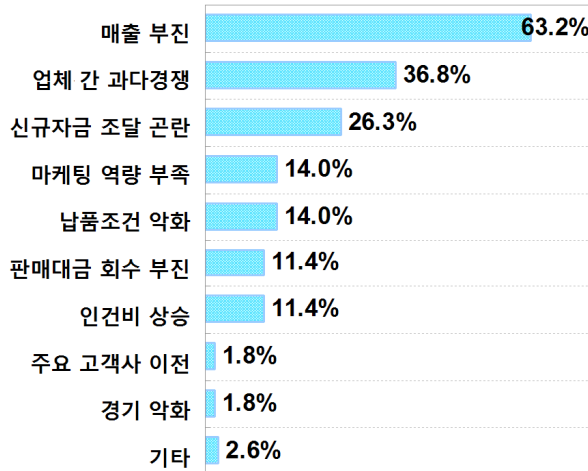
#### 1) 경영전망

○ 전년도와 비교할 때, 올해 경영상황이 ‘호전될 것’(41.4%)이라는 전망이 ‘악화될 것’(32.6%)보다 8.8%p 높게 나타남(n=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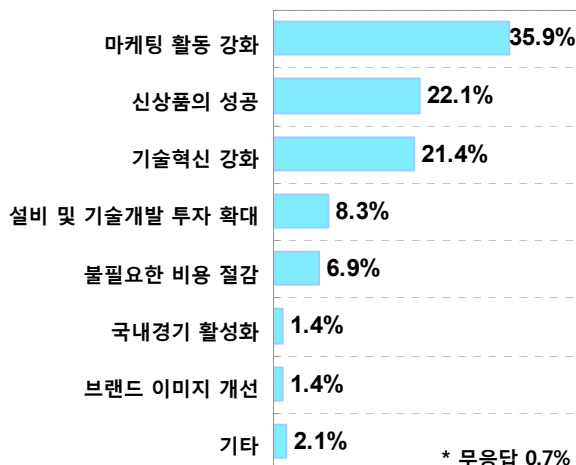
—악화 전망 이유는 ‘매출 부진’(63.2%) (n=114), 호전 전망 이유는 ‘마케팅 활동 강화’(35.9%) (n=145)가 각각 주된 요인으로 꼽힘



〈그림 4-6〉 2011년 대비 올해 경영상황 전망



〈그림 4-7〉 경영상황 악화 전망 이유



〈그림 4-8〉 경영상황 호전 전망 이유

## 2) 매출액 및 인건비

○ 기술창업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정체하고 인건비는 증가하는 추세임

〈표 4-5〉 기술창업기업 연도별 매출액 및 인건비 추이

(단위 : %)

구 분	매출액			인건비		
	'09년	'10년	'11년	'09년	'10년	'11년
3000만원 미만	1.5	2.8	2.6	2.6	4.0	2.3
3000만원~1억원 미만	3.3	6.8	4.6	7.7	6.5	9.8
1억~10억원 미만	19.7	20.2	25.1	38.0	42.2	42.9
10억~50억원 미만	31.0	30.1	29.7	10.9	12.1	12.4
50억~100억원 미만	6.6	8.7	9.5	0.7	0.6	0.6
100억원 이상	6.9	7.5	6.6	0.4	0.3	0.3
없음	2.9	2.8	3.2	1.1	2.2	2.3
무응답	28.1	21.1	18.7	38.7	32.0	29.4
평균(만원)	387,813	381,437	385,784	70,517	71,457	74,051

－기업의 연도별 평균 매출액은 2009년 이후 다소간의 증감을 보인 반면,



연도별 평균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며 전반적으로 매출액은 10억~50억원 미만 기업, 인건비는 1억~10억원 미만 기업의 비중이 각각 높음

### 3) 인력 확보 시 문제점

- 기업 경영자는 인력 확보를 할 때,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인력 부족’(30.6%) 문제를 가장 많이 겪는 것으로 파악함
-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인력 부족’은 31~50인 기업(37.0%)에서 특히 응답률이 높음

〈표 4-6〉 인력 확보 시 가장 큰 어려움

응답 내용(n=350)	응답률(%)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인력 부족	30.6
임금 및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 기대치와 불일치	25.1
해당 전문분야 인력이 적음	17.1
취업 희망자의 대기업 선호	12.0
채용 후 잦은 이직	8.9
인력에 대한 정보 부족	3.1
해당산업 및 해당 기업에 대한 선입견 또는 편견	1.7
대중교통 수단 부족 및 주거문제	1.1

### 4) R&D 및 설비투자

- 기업의 R&D 투자 및 설비 투자 현황을 보면, ‘없다’가 과반 안팎의 높은 비중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나, 2011년 평균 R&D 및 설비 투자 실적은 동반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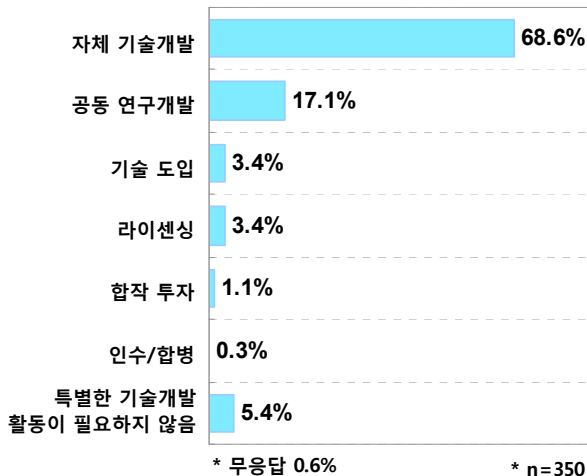
〈표 4-7〉 R&D 및 설비(장비) 투자 실적

(단위 : %)

구 분	R&D 투자 실적			설비(장비) 투자 실적		
	'09년	'10년	'11년	'09년	'10년	'11년
1건	14.2	16.5	18.4	9.9	12.7	14.1
2건	8.4	10.6	9.2	4.0	5.6	4.6
3건	4.4	5.6	8.1	3.6	5.0	5.2
4건	0.0	1.6	2.0	0.4	0.9	1.4
5건 이상	4.0	3.4	4.6	4.0	5.3	6.6
없음	46.4	43.2	39.2	54.7	50.9	49.0
무응답	22.6	19.3	18.4	23.4	19.6	19.0
평균 [건]	2.4	2.4	2.6	2.7	2.7	3.1

## 5) 기술개발 및 신제품 개발 방식

- 기업이 최근 3년간 기술개발 및 신제품 개발을 해온 주된 방식은 ‘자체 기술 개발’(68.6%)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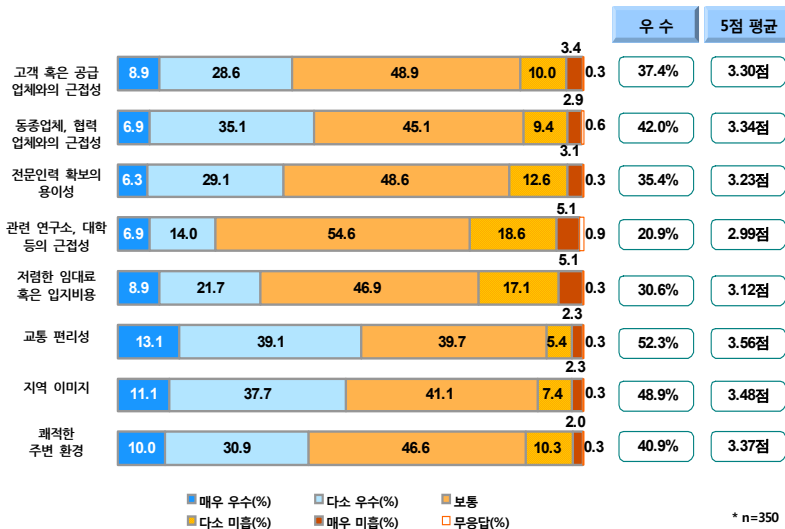


〈그림 4-9〉 기술개발 및 신제품 개발의 주된 방식

－계층별로도 큰 차이 없이 대부분 ‘자체 기술개발’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됨

## 6) 사업장 입지조건

- 현재 사업장의 입지조건 평가 결과(5점 척도 기준)를 보면 응답자들은 ‘교통 편리성’(3.56점) 항목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다음은 ‘지역 이미지’(3.48점)와 ‘쾌적한 주변환경’(3.37점)을 꼽았음
  - － ‘교통 편리성’은 창업보육센터(4.00점), 벤처기업 미지정(3.93점) 기업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 동종업체/협력업체와의 근접성(3.34점), 고객 혹은 공급업체와의 근접성(3.30점),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3.23점)이 그 뒤를 이었으나 저렴한 임대료(3.12점), 연구소 및 대학과의 근접성(2.99점)은 낮은 평가를 받음



〈그림 4-10〉 사업장 입지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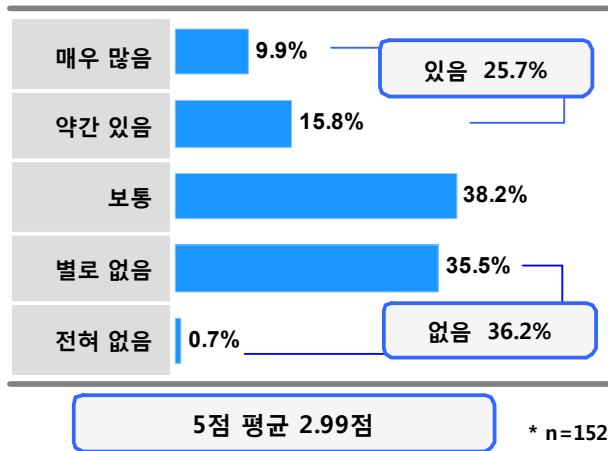
## 4. 애로사항

### 1) 예비창업자의 창업환경 인식

#### (1) 창업기회의 인식

○ 창업기회의 정도에 대한 예비창업자의 인식

- 응답자의 4명 중 1명 이상은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창업 기회가 ‘있다’(25.7% = 매우 많음 9.9% + 약간 있음 15.8%)고 평가함(5점 평균 2.99점)
- ‘없다’는 36.2%(전혀 없음 0.7% + 별로 없음 35.5%)로 ‘있다’보다 10.5%p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보통’은 38.2%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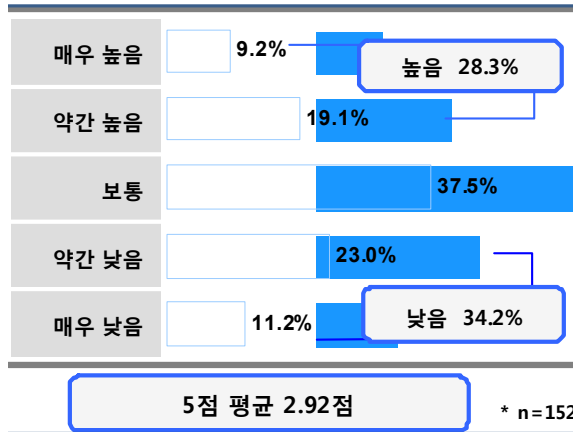
〈그림 4-11〉 창업기회 인식

#### (2) 창업능력 인식

○ 본인의 현재 창업 능력에 대한 예비창업자의 인식

- 응답자 본인의 현재 창업 능력이 ‘높다’는 응답은 28.3%(매우 높음 9.2% + 약간 높음 19.1%)로 나타남(5점 평균 2.9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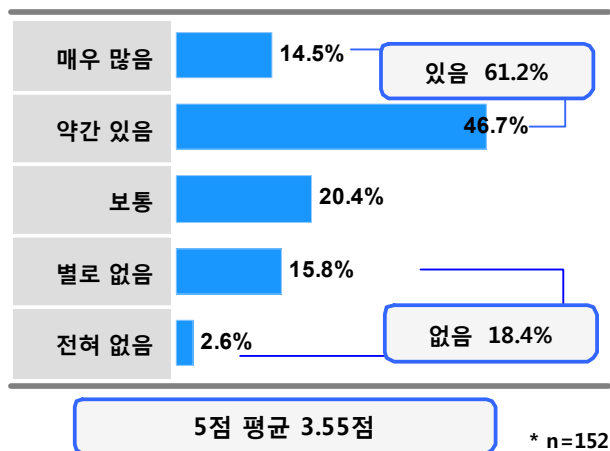
- 반면, ‘낮다’는 응답은 34.2%(매우 낮음 11.2% + 약간 낮음 23.0%)로 ‘높다’보다 5.9%p 높음
- ‘보통’은 37.5%를 차지함



〈그림 4-12〉 창업능력 인식

### (3) 창업의 두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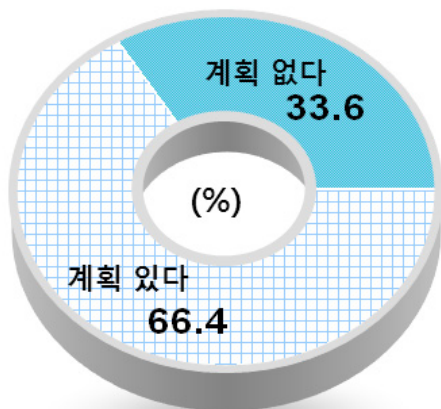
- 창업의 두려움 정도에 대한 예비창업자의 인식
  - 응답자의 61.2%는 창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매우 많음 14.5% + 약간 있음 46.7%)고 응답함(5점 평균 3.55점)
  - 반면, ‘없다’는 응답은 18.4%(전혀 없음 2.6% + 별로 없음 15.8%)임
  - ‘보통’은 20.4%임
- 예비창업자들의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창업기회의 유무와 창업능력 보유의 정도는 비슷한 추세를 보이지만 창업의 두려움 정도는 높게 나타나 창업에 대한 공포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 4-13〉 창업에 대한 두려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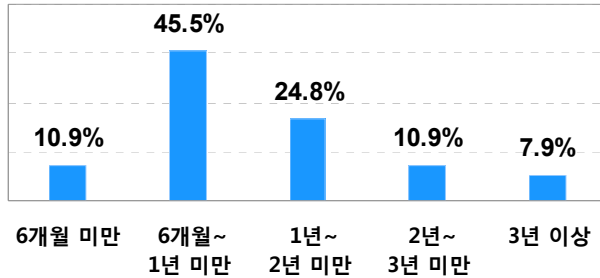
#### (4) 기술창업 계획

- 응답자 3명 중 2명가량에 해당하는 66.4%(101명)는 기술창업을 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33.6%(51명)는 ‘계획이 없다’고 대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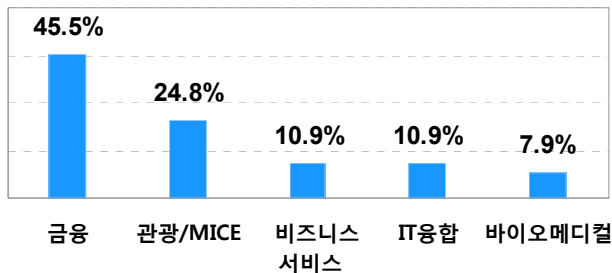
〈그림 4-14〉 예비창업자의 기술창업 계획 유무

- 기술창업을 할 계획이 있다고 한 예비창업자 101명 중 45.5%는 ‘6개월~1년 미만’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며 다음은 ‘1년~2년 미만’(24.8%), ‘6개월 미만’(10.9%), ‘2년~3년 미만’(10.9%), ‘3년 이상’(7.9%) 순으로 응답



〈그림 4-15〉 기술창업 준비 시 예상소요기간

- 기술창업을 할 계획이 있다고 한 예비창업자 101명 중 45.5%가 기술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로 ‘금융’ 분야를 꼽았으며 다음은 ‘관광·MICE’(24.8%), ‘비즈니스 서비스’, ‘IT융합’(각 10.9%), ‘바이오메디컬’(7.9%) 순으로 대답



〈그림 4-16〉 기술창업 희망 분야

## 2) 기술창업 시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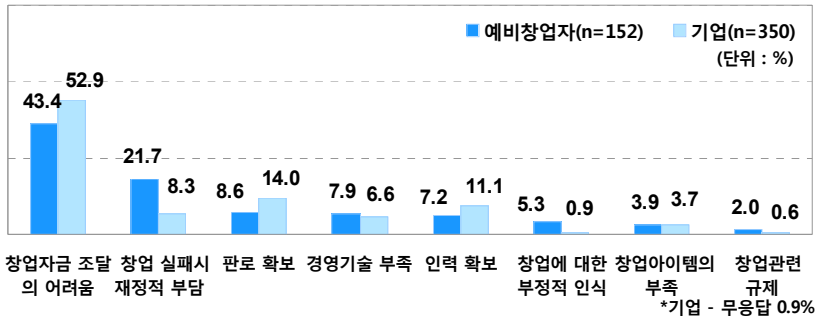
- 예비창업자들이 기술창업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창업자금 조달의 어려

움’(43.4%)인 것으로 파악되며, 다음은 ‘창업 실패 시 재정적 부담’(21.7%), ‘판로 확보’(8.6%), ‘경영기술 부족’(7.9%), ‘인력 확보’(7.2%), ‘창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5.3%), ‘창업 아이템의 부족’(3.9%), ‘창업 관련 규제’(2.0%) 순으로 조사됨

－‘창업자금 조달의 어려움’은 30세 이상(56.5%) 연령층의 응답률이 특히 높음

－‘창업 실패 시 재정적 부담’은 교육생(31.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기술창업기업 경영자들은 기술창업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이 ‘창업자금 조달의 어려움’(52.9%)을 꼽았으며 다음은 ‘판로 확보’(14.0%), ‘인력 확보’(11.1%), ‘창업 실패 시 재정적 부담’(8.3%), ‘경영기술 부족’(6.6%), ‘창업 아이템의 부족’(3.7%), ‘창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창업분야 정보 취득의 어려움’(각 0.9%), ‘창업 관련 규제’(0.6%) 순으로 대답함(무응답 0.9%, 없음 0.3%)

－‘창업자금 조달의 어려움’은 대부분의 계층에서 특히 높은 비율로 꼽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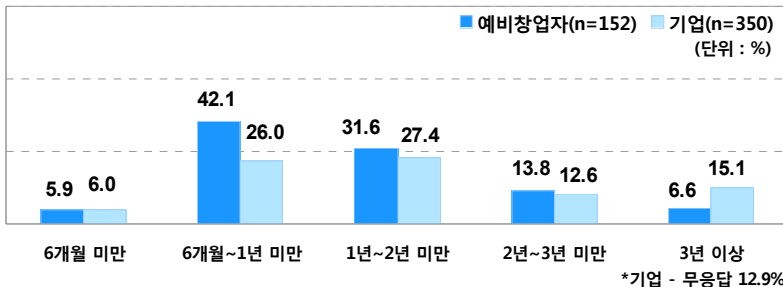
〈그림 4-17〉 기술창업 시 애로사항

○ 기술창업에서 애로사항을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은 창업자금과 관련된 부분이며 특히 기술창업기업 경영자의 체감정도가 큼



### 3) 기술창업 준비 시 소요시간

- 예비창업자의 경우 기술창업 준비 시 소요시간을 예상한 결과, ‘6개월~1년 미만’(42.1%)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1년~2년 미만’(31.6%), ‘2년~3년 미만’(13.8%), ‘3년 이상’(6.6%), ‘6개월 미만’(5.9%) 순으로 조사됨
  - ‘6개월~1년 미만’은 대부분의 계층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임
  - ‘1년~2년 미만’은 여성(43.2%), 창업동호회 참여, 기술창업 계획이 없는 (각 41.2%) 응답자에서 높게 나타남
- 기업 경영자의 경우 기술창업을 할 때 소요되었던 시간으로는 ‘1년~2년 미만’(27.4%), ‘6개월~1년 미만’(26.0%)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 ‘3년 이상’은 15.1%, ‘2년~3년 미만’은 12.6%, ‘6개월 미만’은 6.0%로 나타남 (무응답 12.9%)
  - ‘1년~2년 미만’은 31~50인 기업(40.7%)에서, ‘6개월~1년 미만’은 기술지주회사(39.3%), 1~5인 기업(38.8%), 벤처기업 미지정(33.3%) 기업에서 각각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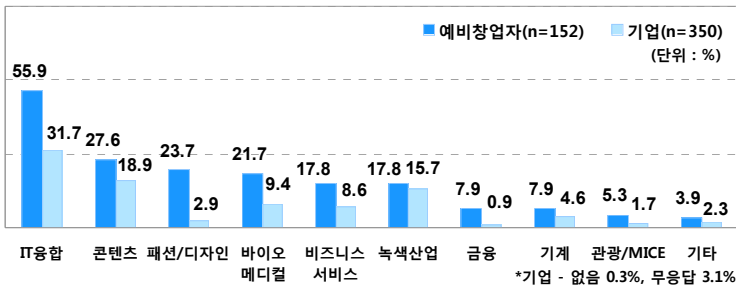


〈그림 4-18〉 기술창업 시 소요시간

- 기술창업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예비창업자와 기술창업기업 경영자의 인식에 차이가 있으며 예비창업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4) 기술창업 유망분야

- 예비창업자들은 기술창업 유망 분야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IT융합’(55.9%)을 꼽았으며 이어 ‘콘텐츠’(27.6%), ‘패션·디자인’(23.7%), ‘바이오메디컬’(21.7%), ‘비즈니스서비스’(17.8%), ‘녹색산업’(17.8%), ‘금융’, ‘기계’(각 7.9%), ‘관광·MICE’(5.3%), ‘의류봉제’(1.3%), ‘귀금속’, ‘인쇄’, ‘실버산업’, ‘SNS’(각 0.7%) 순으로 응답함
- ‘IT융합’이 유망하다는 응답률은 30세 이상(71.7%), 기술창업 계획이 있는(65.3%) 응답자에서 특히 높게 조사됨
- ‘콘텐츠’는 고르게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패션·디자인’은 여성(43.2%), 19~29세(31.1%), 창업동호회 참여(32.4%), ‘바이오메디컬’은 교양생(32.9%), 공학 전공(32.8%), 기술창업 계획이 없는(37.3%) 응답자에서 각각 상대적으로 높음
- 기술창업기업 경영자들은 응답 기업의 주력업종 이외에 기술창업 유망 분야로 ‘IT융합’(31.7%)을 가장 많이 제시하였으며, 다음은 ‘콘텐츠’(18.9%), ‘녹색산업’(15.7%), ‘바이오메디컬’(9.4%), ‘비즈니스서비스’(8.6%), ‘기계’(4.6%), ‘패션·디자인’(2.9%), ‘관광·MICE’(1.7%) 등의 순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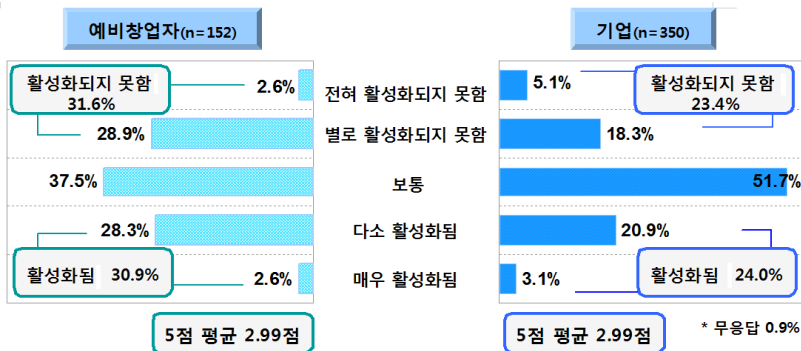
〈그림 4-19〉 기술창업 유망분야

– ‘IT융합’은 기술지주회사(39.3%), 창업보육센터(40.7%) 입주 기업에서 특히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

○ IT융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예비창업자들은 상대적으로 고른 업종분포를 나타내는 반면, 기업들은 그렇지 않음

## 5) 서울의 기술창업 활성화 정도

○ 예비창업자의 경우 5점 만점에 평균 2.99점으로 서울에서의 기술창업이 ‘활성화 되었다’는 응답은 30.9%(매우 활성화됨 2.6% + 다소 활성화됨 28.3%)를 기록하였으며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응답은 31.6%(전혀 활성화되지 못함 2.6% + 별로 활성화되지 못함 28.9%)로 ‘활성화되었다’는 응답과 유사한 수준임. 한편 ‘보통’은 37.5%를 차지함(평균 2.99점)



〈그림 4-20〉 서울의 기술창업 활성화 정도

– 기술창업의 활성화 수준에 대한 긍정 평가(5점 척도 기준)는 여성(3.14점), 30세 이상(3.13점), 기술창업 계획이 있는(3.12점) 응답자에서 비교적 높음

○ 기술창업기업 경영자의 경우 5점 만점에 평균 2.99점으로 서울에서의 기술창업이 ‘활성화 되었다’는 응답은 24.0%(매우 활성화됨 3.1% + 다소 활성화

화됨 20.9%)로 ‘활성화되지 못했다’(23.4% = 전혀 활성화되지 못함 5.1% + 별로 활성화되지 못함 18.3%)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사됨. 한편, 응답 기업의 과반은 ‘보통’(51.7%)이라고 평가함(무응답 0.9%)

—기술창업 활성화 정도에 대한 평가를 보면(5점 척도 기준), 기술지주회사(3.41점), 창업보육센터(3.19점), 11~20인 기업(3.15점)에서 긍정 평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예비창업자와 기술창업기업 경영자 모두 서울의 기술창업 활성화 정도의 평균적인 체감은 비슷하지만 예비창업자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차가 크게 나타남

## 6) 서울의 기술창업 시 애로사항

- 예비창업자들은 서울에서의 기술창업 시 애로사항으로 ‘초기 창업 자금 조달 어려움’(45.4%)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은 ‘기술창업의 높은 실패율’(21.7%), ‘기술창업 기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9.2%), ‘내수시장 침체’(9.2%), ‘선발기업 또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불공정 경쟁’(6.6%), ‘안정적 직장 선호에 따른 기업가 정신의 약화’(4.6%), ‘세계적인 경기 침체’(2.0%), ‘창업 관련 법규 및 행정적 규제’(1.3%) 순으로 응답함

—‘초기 창업 자금 조달 어려움’은 30세 이상(60.9%)에서 특히 높은 응답률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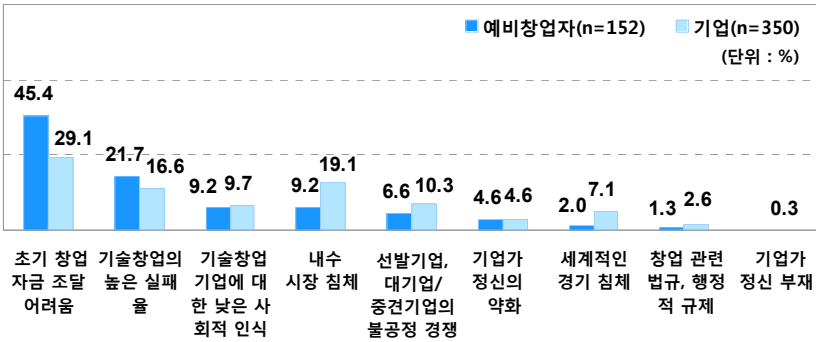
—‘기술창업의 높은 실패율’은 기술창업 계획이 없는(29.4%)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기술창업기업 경영자들은 서울에서의 기술창업 시 애로사항으로 ‘초기 창업자금 조달 어려움’(29.1%)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은 ‘내수시장 침체’(19.1%), ‘기술창업의 높은 실패율’(16.6%), ‘선발기업 또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불공정 경쟁’(10.3%), ‘기술창업 기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9.7%), ‘세계적인 경기침체’(7.1%), ‘안정적 직장 선호에 따른 기업가

정신의 약화’(4.6%), ‘창업 관련 법규 및 행정적 규제’(2.6%), ‘기업가 정신 부재’(0.3%) 순으로 대답함(없음 0.3%, 무응답 0.3%)

— ‘초기 창업 자금 조달 어려움’은 기술지주회사(35.7%), 창업보육센터(40.7%), 1~5인 기업(40.0%)에서 특히 높은 응답률을 얻음

— ‘내수시장 침체’는 11~20인 기업(27.4%), ‘기술창업의 높은 실패율’은 21~30인 기업(25.7%), 벤처기업 미지정(30.0%)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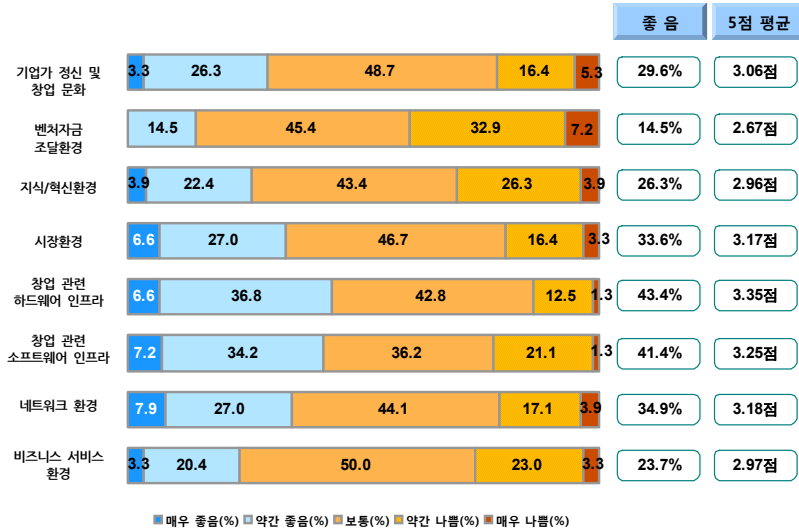
〈그림 4-21〉 서울의 기술창업 시 애로사항

- 예비창업자와 기업 모두 자금 조달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내수시장 등 시장환경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

## 7) 서울의 창업여건

- 예비창업자들은 서울의 창업 여건 중(5점 척도 기준), ‘창업관련 하드웨어 인프라’(3.35점)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이어 ‘창업관련 소프트웨어 인프라’(3.25점), ‘네트워크 환경’(3.18점), ‘시장환경’(3.17점) 순으로 높게 평가
  - ‘창업 관련 하드웨어 인프라’ : 5점 평균 3.35점
  - ‘창업 관련 소프트웨어 인프라’ : 5점 평균 3.25점
  - ‘네트워크 환경’ : 5점 평균 3.18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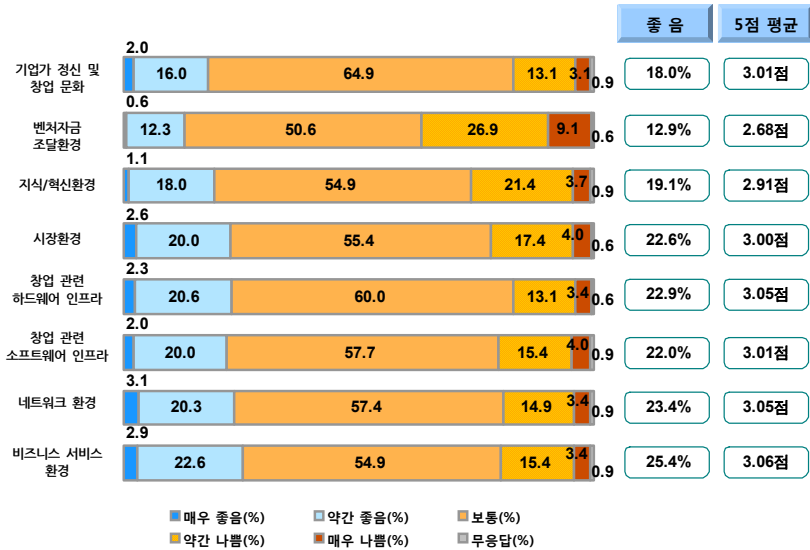
- ‘시장환경’ : 5점 평균 3.17점
- ‘기업가 정신 및 창업문화’ : 5점 평균 3.06점
- ‘비즈니스 서비스 환경’ : 5점 평균 2.97점
- ‘지식/혁신환경’ : 5점 평균 2.96점
- ‘벤처자금 조달환경’ : 5점 평균 2.67점



〈그림 4-22〉 서울의 창업여건(예비창업자)

- 기술창업기업 경영자들은 서울의 ‘비즈니스 서비스 환경’(3.06점), ‘창업관련 하드웨어 인프라’, ‘네트워크 환경’(각각 3.05점) 순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 ‘비즈니스 서비스 환경’ : 5점 평균 3.06점
- ‘창업 관련 하드웨어 인프라’ : 5점 평균 3.05점
- ‘네트워크 환경’ : 5점 평균 3.05점
- ‘기업가 정신 및 창업문화’ : 5점 평균 3.01점
- ‘창업 관련 소프트웨어 인프라’ : 5점 평균 3.01점

- ‘시장환경’ : 5점 평균 3.00점
- ‘지식/혁신환경’ : 5점 평균 2.91점
- ‘벤처자금 조달환경’ : 5점 평균 2.68점



〈그림 4-23〉 서울의 창업여건(기술창업기업)

- 공통적으로 ‘창업관련 하드웨어 인프라’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반면, ‘벤처자금 조달환경’은 부정적으로 평가됨

## 5. 정책수요

### 1) 서울시 기술창업 지원정책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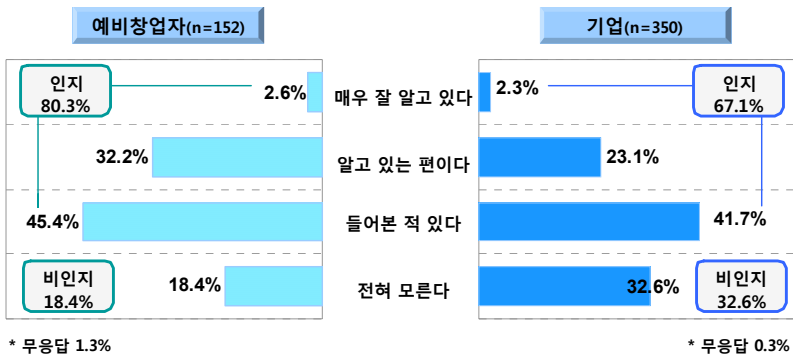
- 예비창업자의 경우 서울시 기술창업 지원정책을 ‘인지’한 비율은 80.3% (매우 잘 알고 있다 2.6% + 알고 있는 편이다 32.2% + 들어본 적 있다

45.4%)로 매우 높은 반면, 전혀 모른다는 ‘비인지’ 비율은 18.4%임(무응답 1.3%)

－기술창업 지원정책 ‘인지’ 비율은 30세 이상(89.1%)에서 특히 높음

○기업의 경우 서울시 기술창업 지원정책을 인지하는 비율은 67.1%(매우 잘 알고 있다 2.3% + 알고 있는 편이다 23.1% + 들어본 적 있다 41.7%)인 반면, ‘전혀 모른다’는 비인지 비율은 32.6%임(무응답 0.3%)

－‘인지’ 비율은 기술지주회사(78.6%), 창업보육센터(92.6%), 벤처기업 미지정(83.3%) 기업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그림 4-24〉 서울시 기술창업 지원정책 인지여부

○기업에 비해 예비창업자의 정책인지 정도가 더 높게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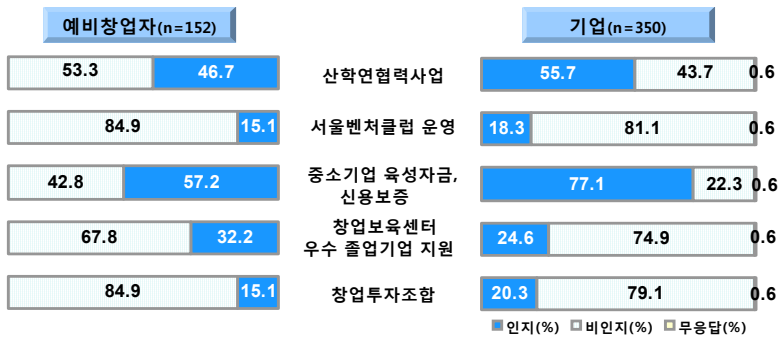
## 2) 자금지원사업 인지 여부

○예비창업자의 서울시 자금지원사업별 인지 비율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용보증’(인지 57.2%, 비인지 42.8%)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산학연협력사업’(인지 46.7%, 비인지 53.3%), ‘창업보육센터 우수창업 기업 지원’(인지 32.2%, 비인지 67.8%), ‘서울벤처클럽 운영’, ‘창업투자조합’(각각 인지 15.1%, 비인지 84.9%) 순으로 나타남



—(‘창업투자조합’ 사업을 제외한)‘산학협력사업’, ‘서울벤처클럽 운영’,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용보증’, ‘창업보육센터 우수졸업 기업 지원’에 대한 인지 비율은 30세 이상에서 특히 높음

○기업의 서울시 자금지원사업별 인지 비율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용보증’(인지 77.1%, 비인지 22.3%, 무응답 0.6%)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산학협력사업’(인지 55.7%, 비인지 43.7%, 무응답 0.6%), ‘창업보육센터 우수졸업 기업 지원’(인지 24.6%, 비인지 74.9%, 무응답 0.6%), ‘창업투자조합’(인지 20.3%, 비인지 79.1%, 무응답 0.6%), ‘서울벤처클럽 운영’(인지 18.3%, 비인지 81.1%, 무응답 0.6%) 순으로 조사됨



〈그림 4-25〉 자금지원사업 인지 여부

—인지 비율을 보면 ‘산학협력사업’은 기술지주회사(78.6%), 창업보육센터(63.0%), 이노비즈 인증(62.3%), 벤처기업 미지정(63.3%) 기업에서 특히 높음

—‘서울벤처클럽 운영’은 기술지주회사(25.0%)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용보증’은 창업보육센터(85.2%), 벤처기업 미지정(86.7%) 기업에서 매우 높음

—‘창업보육센터 우수졸업 기업 지원’은 창업보육센터(37.0%), 벤처기업 미지정(33.3%) 기업에서 특히 높음

— ‘창업투자조합’은 기술지주회사(28.6%), 1~5인 기업(29.4%), 벤처기업 미지정(33.3%) 기업에서 비교적 높음

○ 자금지원사업은 기업이 예비창업자보다 인지를 더 잘하고 있음

### 3) 기술창업 시 가장 중요한 자금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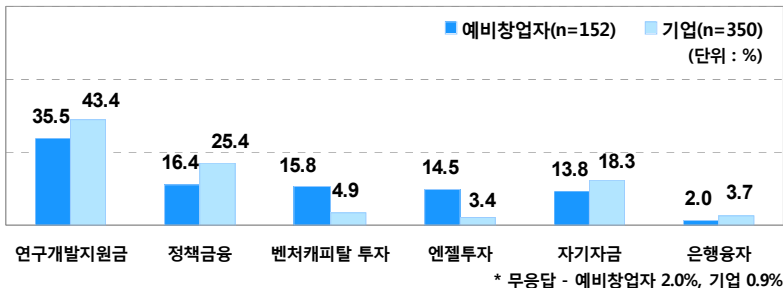
○ 예비창업자들은 ‘연구개발 지원금’(35.5%)을 기술창업 시 가장 중요한 자금원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이어 ‘정책금융’(16.4%), ‘벤처캐피탈 투자’(15.8%), ‘엔젤 투자’(14.5%), ‘자기자금’(13.8%), ‘은행융자’(2.0%) 순으로 응답함(무응답 2.0%)

— ‘연구개발 지원금’은 여성(45.9%)에서 특히 높은 응답률을 보임

— ‘벤처캐피탈 투자’는 기술창업 계획이 없는 응답자(29.4%)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기업들은 기술창업 시 가장 중요한 자금원으로 ‘연구개발 지원금’(43.4%)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이어 ‘정책금융’(25.4%), ‘자기자금’(18.3%), ‘벤처캐피탈 투자’(4.9%), ‘은행융자’(3.7%), ‘엔젤 투자’(3.4%) 순으로 대답함(무응답 0.9%)

— ‘연구개발 지원금’은 기술지주회사(53.6%), 21~30인 기업(51.4%), 벤처기업 미지정(53.3%) 기업에서 특히 응답률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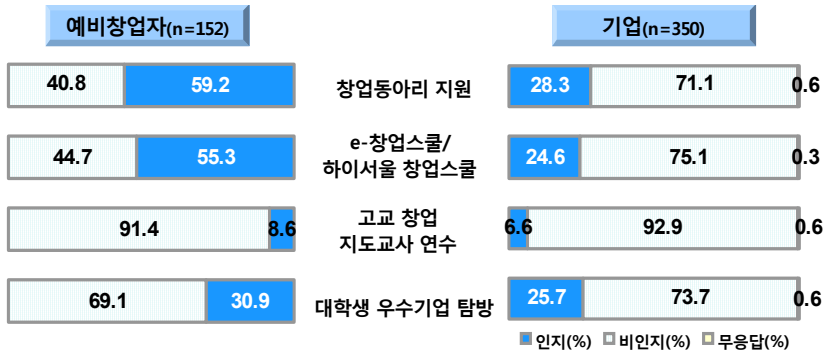
〈그림 4-26〉 가장 중요한 자금원

- －‘정책금융’은 1~5인 기업(32.9%), 벤처기업 미지정(33.3%)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예비창업자들은 벤처캐피털 투자와 엔젤투자 등의 투자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업들은 연구개발지원금 및 정책금융 등 정부 및 단체의 지원금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등 인식의 차이가 나타남

#### 4) 교육지원사업 인지 여부

- 예비창업자들의 서울시 교육지원사업별 인지 비율을 보면, ‘창업동아리 지원’(인지 59.2%, 비인지 40.8%)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e-창업스쿨/하이서울 창업스쿨’(인지 55.3%, 비인지 44.7%), ‘대학생 우수기업 탐방’(인지 30.9%, 비인지 69.1%) 등의 순이었으며, ‘고교 창업 지도교사 연수’(인지 8.6%, 비인지 91.4%)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창업동아리 지원’은 창업동호회 참여(75.0%), ‘e-창업스쿨/하이서울 창업스쿨’은 30세 이상(71.7%) 응답자에서 인지 비율이 특히 높게 조사됨
- 기업들의 서울시 교육지원사업별 인지 비율을 보면, ‘창업동아리 지원’(인지 59.2%, 비인지 40.8%)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e-창업스쿨/하이서울 창업스쿨’(인지 55.3%, 비인지 44.7%), ‘대학생 우수기업 탐방’(인지 30.9%, 비인지 69.1%) 등의 순이었으며, ‘고교 창업 지도교사 연수’(인지 8.6%, 비인지 91.4%)는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창업동아리 지원’은 기술지주회사(39.3%), 31~50인 기업(40.7%), 벤처기업 미지정(46.7%) 기업에서 특히 높은 인지 비율을 기록함
  - －‘e-창업스쿨/하이서울 창업스쿨’은 기술지주회사(42.9%), 창업보육센터(44.4%), 1~5인 기업(31.8%), 31~50인 기업(33.3%), 벤처기업 미지정(56.7%) 기업에서 특히 높음
  - －‘고교 창업 지도교사 연수’는 31~50인 기업(18.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대학생 우수기업 탐방’은 31~50인 기업(44.4%), 벤처기업 미지정(40.0%) 기업에서 매우 높음



〈그림 4-27〉 교육지원사업 인지 여부

○ 교육지원사업은 예비창업자가 기업보다 인지를 더 잘하고 있음

## 5) 기술창업교육 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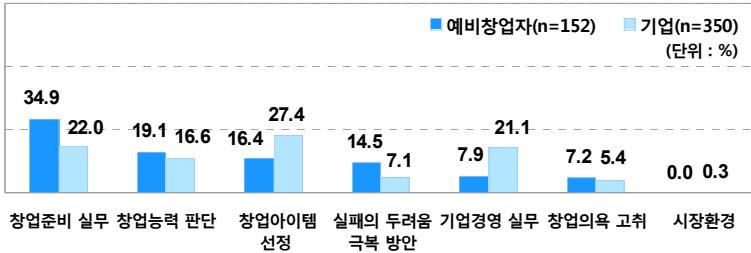
○ 예비창업자들은 기술창업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내용으로, ‘창업준비 실무’(34.9%)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창업능력 판단’(19.1%), ‘창업 아이템 선정’(16.4%), ‘실패의 두려움 극복 방안’(14.5%), ‘기업경영 실무’(7.9%), ‘창업의욕 고취’(7.2%) 순으로 응답함

— ‘창업준비 실무’는 30세 이상(45.7%) 응답자에서 특히 높은 응답률을 보임

○ 기업들은 기술창업교육을 실시할 때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내용으로, ‘창업 아이템 선정’(27.4%)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은 ‘창업준비 실무’(22.0%), ‘기업경영 실무’(21.1%), ‘창업능력 판단’(16.6%), ‘실패의 두려움 극복 방안’(7.1%), ‘창업의욕 고취’(5.4%), ‘시장환경’(0.3%) 순으로 대답함

— ‘창업 아이템 선정’은 11~30인 기업에서 특히 높은 응답률을 보임

—한편, ‘기업경영 실무’는 기술지주회사(28.6%), 창업보육센터(33.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28〉 기술창업교육 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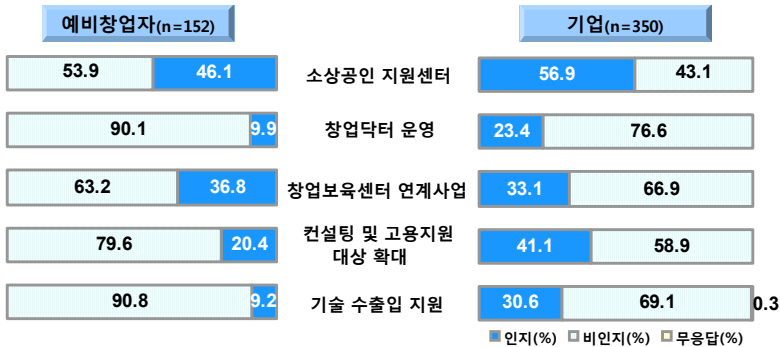
- 예비창업자들은 창업준비와 관련된 내용 등 창업이전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 기업들은 기업경영 실무 및 창업아이템 선정 등 창업시도 및 창업이후와 관련된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함

## 6) 경영기술지원사업 인지 여부

- 예비창업자들의 서울시 경영기술지원사업별 인지 비율을 보면, ‘소상공인 지원센터’(인지 46.1%, 비인지 53.9%)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창업보육센터 연계사업’(인지 36.8%, 비인지 63.2%), ‘컨설팅 및 고용지원대상 확대’(인지 20.4%, 비인지 79.6%) 등의 순이었으며, ‘창업닥터 운영’(인지 9.9%, 비인지 90.1%), ‘기술 수출입 지원’(인지 9.2%, 비인지 90.8%)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소상공인 지원센터’(67.4%), ‘컨설팅 및 고용지원대상 확대’(34.8%), ‘기술 수출입 지원’(19.6%) 사업은 30세 이상 연령층의 인지 비율이 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창업보육센터 연계사업’은 30세 이상(58.7%), 기술창업 계획이 있는(45.5%)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기업들의 서울시 경영기술지원사업별 인지 비율을 보면, ‘소상공인 지원센터’(인지 56.9%, 비인지 43.1%)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컨설팅 및 고용지원대상 확대’(인지 41.1%, 비인지 58.9%), ‘창업보육센터 연계사업’(인지 33.1%, 비인지 66.9%), ‘기술 수출입 지원’(인지 30.6%, 비인지 69.1%, 무응답 0.3%), ‘창업닥터 운영’(인지 23.4%, 비인지 76.6%)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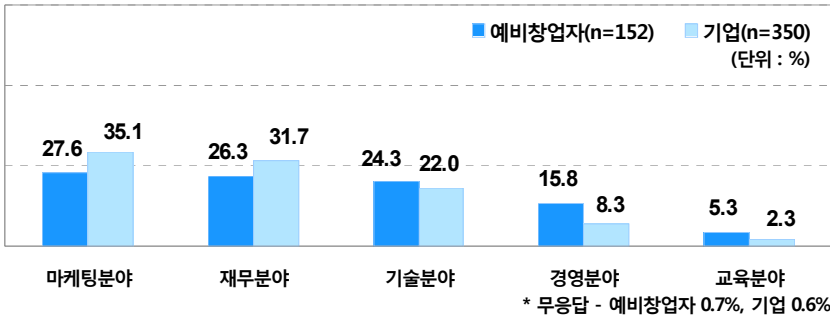


〈그림 4-29〉 경영기술지원사업 인지 여부

-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창업보육센터(81.5%), 1~5인 기업(68.2%), 벤처기업 미지정(73.3%) 기업에서 특히 높은 인지 비율을 보임
  - ‘창업닥터 운영’은 창업보육센터(63.0%), 1~5인 기업(32.9%), 벤처기업 미지정(50.0%)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창업보육센터 연계사업’은 기술지주회사(60.7%), 창업보육센터(59.3%), 1~5인 기업(47.1%), 벤처기업 미지정(56.7%) 기업에서 특히 높음
  - ‘컨설팅 및 고용지원대상 확대’는 창업보육센터(77.8%), 1~5인 기업(49.4%), 벤처기업 미지정(60.0%)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기술 수출입 지원’은 창업보육센터(48.1%) 기업에서 매우 높게 조사됨
- 경영기술지원사업은 대체적으로 기업이 예비창업자보다 인지를 더 잘하고 있음

## 7)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경영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

- 예비창업자들은 기술창업 기업의 경영에서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마케팅분야’(27.6%), ‘재무분야’(26.3%), ‘기술분야’(24.3%), ‘경영분야’(15.8%) 등의 순으로 선택하였으며 ‘교육분야’는 5.3%를 차지함(무응답 0.7%)
  - ‘마케팅분야’는 여성(40.5%), ‘재무분야’는 30세 이상(39.1%), 예비창업생(34.1%), 기술창업 계획이 있는(34.7%) 응답자에서 각각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임
- 기업들은 기술창업 기업의 경영에서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35.1%가 ‘마케팅분야’를 꼽아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재무분야’(31.7%), ‘기술분야’(22.0%) ‘경영분야’(8.3%), ‘교육분야’(2.3%) 순으로 응답함(무응답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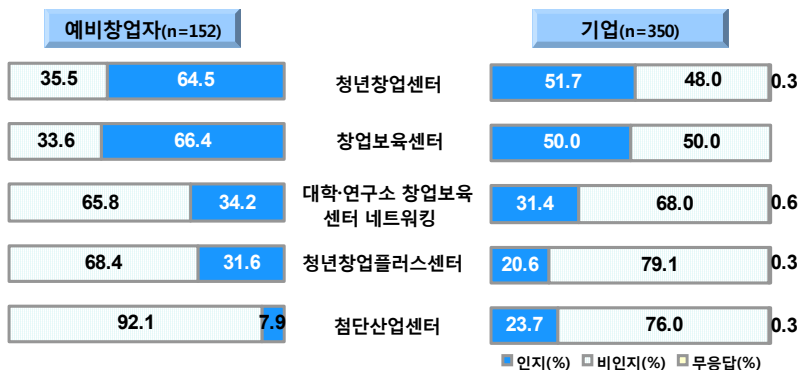
〈그림 4-30〉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경영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

- ‘마케팅분야’는 1~5인 기업(55.3%), 벤처기업 미지정(56.7%) 기업에서 특히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재무분야’는 창업보육센터(40.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예비창업자들은 마케팅·재무·기술 분야의 필요성을 골고루 언급하는 반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마케팅 및 재무 분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8) 시설지원사업 인지 여부

- 예비창업자들의 서울시 시설지원사업별 인지 비율을 보면, ‘창업보육센터’(인지 66.4%, 비인지 33.6%), ‘청년창업센터’(인지 64.5%, 비인지 35.5%)가 가장 높았고 이어 ‘대학·연구소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인지 34.2%, 비인지 65.8%), ‘청년창업플러스센터’(인지 31.6%, 비인지 68.4%) 등의 순이었으며, ‘첨단산업센터’(인지 7.9%, 비인지 92.1%)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청년창업센터’는 여성(73.0%), ‘창업보육센터’는 30세 이상(82.6%)과 예비창업생(75.6%), ‘대학·연구소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은 30세 이상(54.3%), ‘청년창업플러스센터’는 30세 이상(58.7%)과 기술창업 계획이 있는(40.6%) 응답자에서 각각 매우 높은 인지 비율을 기록함
- 기업들의 서울시 시설지원사업별 인지 비율을 보면, 응답 기업의 과반이 ‘청년창업센터’(인지 51.7%, 비인지 48.0%, 무응답 0.3%), ‘창업보육센터’(인지 50.0%, 비인지 50.0%)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은 ‘대학·연구소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인지 31.4%, 비인지 68.0%, 무응답 0.6%), ‘첨단산업센터’(인지 23.7%, 비인지 76.0%, 무응답 0.3%), ‘청년창업플러스센터’(인지 20.6%, 비인지 79.1%, 무응답 0.3%) 순으로 조사됨
  - ‘청년창업센터’는 창업보육센터(66.7%), 1~5인 기업(60.0%), 벤처기업 미지정(70.0%) 기업의 인지 비율이 특히 높음
  - ‘창업보육센터’는 기술지주회사(60.7%), 창업보육센터(74.1%), 1~5인 기업(69.4%), 벤처기업 미지정(73.3%)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대학·연구소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은 기술지주회사(39.3%), 31~50인 기업(40.7%), 벤처기업 미지정(40.0%) 기업에서 매우 높음
  - ‘청년창업플러스센터’는 벤처기업 미지정(26.7%) 기업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 ‘첨단산업센터’는 창업보육센터(48.1%), 벤처기업 미지정(36.7%) 기업에서 비교적 높게 조사됨





〈그림 4-31〉 시설지원사업 인지 여부

○ 시설지원사업은 예비창업자가 기업보다 인지를 더 잘하고 있음

## 9) 창업보육센터 입주 시 가장 큰 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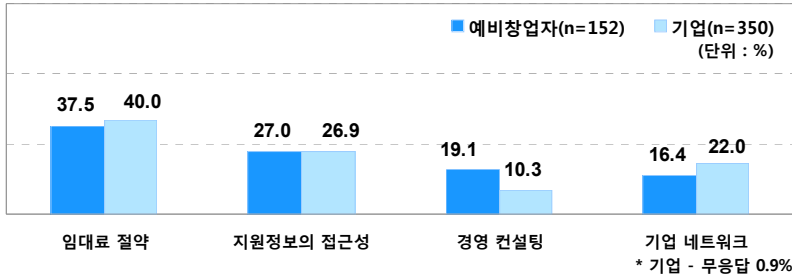
○ 예비창업자들은 창업보육센터 입주를 통한 이점으로, ‘임대료 절약’이 37.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지원 정보의 접근성’(27.0%), ‘경영 컨설팅’(19.1%), ‘기업 네트워크’(16.4%) 순으로 나타남

— ‘임대료 절약’은 30세 이상(50.0%) 연령층에서 특히 높은 응답률을 보임

○ 기업들은 창업보육센터 입주를 통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 ‘임대료 절약’ (40.0%)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은 ‘지원 정보의 접근성’(26.9%), ‘기업 네트워크’(22.0%), ‘경영 컨설팅’(10.3%) 순으로 응답함(무응답 0.9%)

— ‘임대료 절약’은 창업보육센터(74.1%) 기업에서 특히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지원정보의 접근성’은 31~50인 기업(33.3%), ‘기업 네트워크’는 기술지주회사(28.6%)에서 각각 매우 높게 조사됨



〈그림 4-32〉 창업보육센터 입주 시 가장 큰 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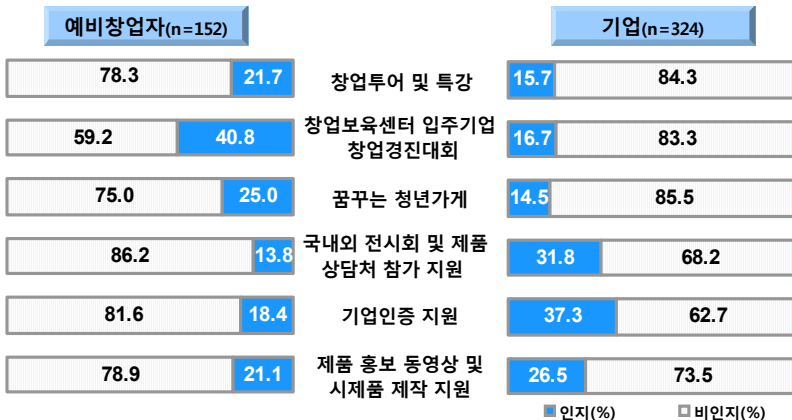
○ 창업보육센터의 가장 큰 장점은 임대료 절약으로 나타남

## 10) 홍보지원사업 인지 여부

- 예비창업자들의 서울시 홍보지원사업별 인지 비율을 보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창업경진대회’(인지 40.8%, 비인지 59.2%)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꿈꾸는 청년가게’(인지 25.0%, 비인지 75.0%), ‘창업투어 및 특강’(인지 21.7%, 비인지 78.3%), ‘제품 홍보 동영상 및 시제품 제작 지원’(인지 21.1%, 비인지 78.9%), ‘기업인증 지원’(인지 18.4%, 비인지 81.6%), ‘국내외 전시회 및 제품 상담처 참가 지원’(인지 13.8%, 비인지 86.2%) 순으로 조사됨
  - ‘창업투어 및 특강’은 창업동호회 참여(33.8%), 여성(32.4%) 응답자에서 특히 높은 인지 비율을 보임
  - ‘국내외 전시회 및 제품 상담처 참가 지원’(26.1%), ‘기업인증 지원’(34.8%), ‘제품 홍보 동영상 및 시제품 제작 지원’(37.0%)은 30세 이상 연령층의 인지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업들의 서울시 홍보지원사업별 인지 비율을 보면(base=324), ‘기업인증 지원’(인지 37.3%, 비인지 62.7%)이 비교적 높았고, 다음은 ‘국내외 전시회 및 제품 상담처 참가 지원’(인지 31.8%, 비인지 68.2%), ‘제품 홍보 동영상 및 시제품 제작 지원’(인지 26.5%, 비인지 73.5%),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창업경진대회’(인지 16.7%, 비인지 83.3%), ‘창업투어 및 특강’(인지 15.7%, 비인지 84.3%), ‘꿈꾸는 청년가게’(인지 14.5%, 비인지 85.5%) 순으로 조사됨

- ‘창업투어 및 특강’은 31~50인 기업(25.9%)의 인지 비율이 특히 높음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창업경진대회’는 기술지주회사(32.1%), 1~5인 기업(24.6%)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꿈꾸는 청년가게’는 21~30인 기업(22.9%), 31~50인 기업(29.6%)에서 매우 높음
- ‘국내외 전시회 및 제품 상담처 참가 지원’은 기술지주회사(42.9%), 31~50인 기업(40.7%), 이노비즈 인증(38.5%) 기업에서 특히 높음
- ‘기업인증 지원’은 31~50명(66.7%), 이노비즈 인증(47.7%)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제품 홍보 동영상 및 시제품 제작 지원’은 기술지주회사(42.9%), 1~5인 기업(33.3%), 31~50인 기업(40.7%)에서 매우 높음



〈그림 4-33〉 홍보지원사업 인지 여부

○ 홍보지원사업은 개별사업에 따라 인지 정도가 차이를 보임

## 11)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점 홍보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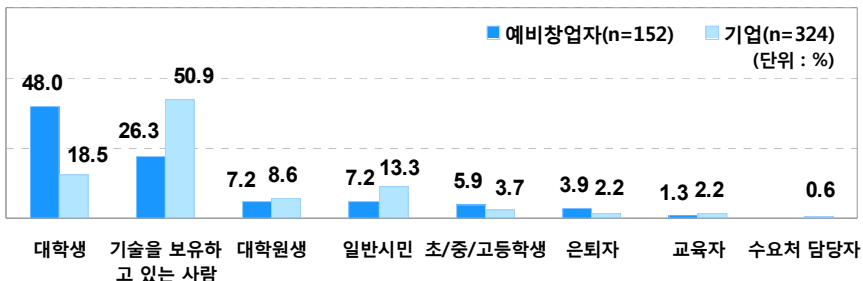
○ 예비창업자들은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홍보 대상으로 48.0%가 ‘대학생’을 꼽아 가장 많았고, 다음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26.3%), ‘대학원생’과 ‘일반시민’(각각 7.2%), ‘초·중·고등학생’(5.9%), ‘은퇴자’(3.9%), ‘교육자(교수 및 선생님)’(1.3%) 순으로 응답함

— ‘대학생’은 창업동호회 참여(57.4%) 응답자에서 특히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

—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30세 이상(58.7%), 창업동호회에 참여한 적 없는(34.5%)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홍보해야 할 대상(base=324)으로, 응답 기업의 과반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50.9%)을 선택하였으며 다음은 ‘대학생’(18.5%), ‘일반시민’(13.3%), ‘대학원생’(8.6%), ‘초·중·고등학생’(3.7%), ‘은퇴자’, ‘교육자(교수 및 선생님)’(각 2.2%), ‘수요처 담당자’(0.6%) 순으로 대답함

—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21~50인 기업에서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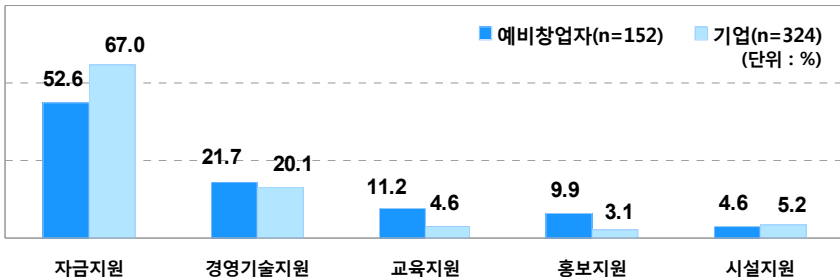
〈그림 4-34〉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점 홍보 대상

○ 홍보대상의 경우 예비창업자는 대학생, 기업은 기술보유자가 가장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각 주체의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12)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분야

- 예비창업자들은 기술창업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 분야로 응답자의 과반이 ‘자금지원’(52.6%)을 꼽아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경영기술 지원’(21.7%), ‘교육지원’(11.2%), ‘홍보지원’(9.9%), ‘시설지원’(4.6%) 순으로 응답함  
– ‘자금지원’은 30세 이상(71.7%), 예비창업생(61.0%)인 응답자에서 특히 높은 응답률을 보임
- 기업들은 기술창업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 분야(base=324)로 67%가 ‘자금지원’을 꼽아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경영기술 지원’(20.1%), ‘시설지원’(5.2%), ‘교육지원’(4.6%), ‘홍보지원’(3.1%) 순으로 대답함  
– ‘자금지원’은 기술지주회사(85.7%), 1~5인 기업(73.9%)에서 특히 높은 응답률을 기록함  
– ‘경영기술 지원’은 31~50인 기업(29.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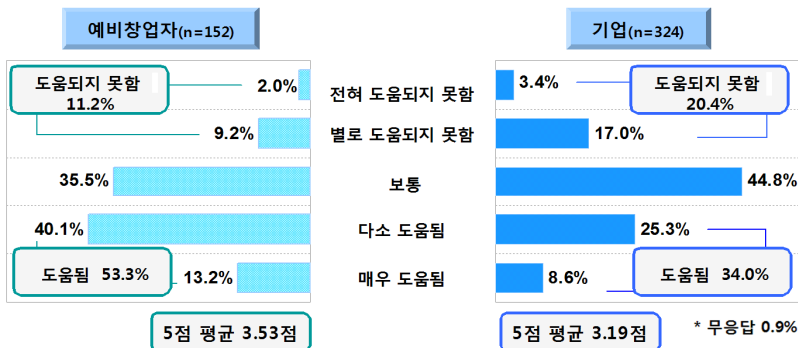


〈그림 4-35〉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분야

-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비창업자와 기업 모두 자금지원의 중요성을 꼽음

### 13) 창업지원정책의 기술창업 도움 정도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현재 창업지원정책의 창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도움 수준을 평가받은 결과, ‘도움된다’는 53.3%(매우 도움됨 13.2% + 다소 도움됨 40.1%)로 과반 수준이고(5점 척도 평균 3.53점), ‘도움되지 못한다’는 11.2%(전혀 도움되지 못함 2.0% + 별로 도움되지 못함 9.2%)이며, ‘보통’은 35.5%로 나타남
  - 도움 정도에 대한 긍정 평가 결과(5점 척도 기준), 여성(3.76점)의 긍정 평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응답 기업(base=324) 3곳 중 1곳은 현재의 창업지원정책이 기술창업에 ‘도움된다’(34.0% = 매우 도움됨 8.6% + 다소 도움됨 25.3%)고 평가하였고(5점 척도 평균 3.19점), ‘도움되지 않는다’는 20.4%(전혀 도움되지 못함 3.4% + 별로 도움되지 못함 17.0%)로 ‘도움된다’보다 13.6%p 낮았으며, ‘보통’은 44.8%를 차지함(무응답 0.9%)
  - 도움 정도를 5점 척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기술지주회사(3.46점), 이노비즈 인증(3.28점) 기업의 긍정 평가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그림 4-36〉 창업지원정책의 기술창업 도움 정도

- 창업지원정책은 기업보다 예비창업자에게 보다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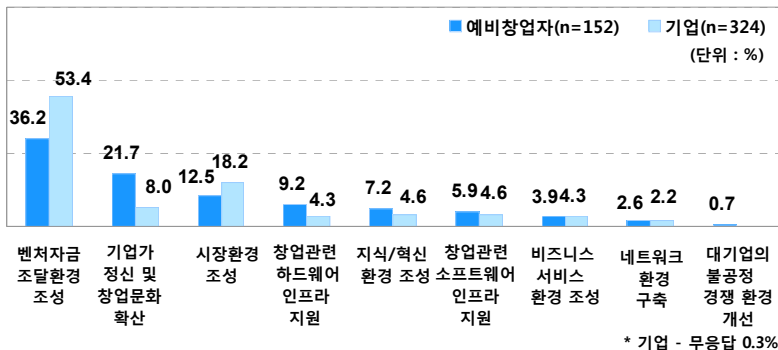
#### 14)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우선 과제

○ 예비창업자들은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우선 과제로, ‘벤처자금 조달환경 조성’(36.2%)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은 ‘기업가 정신 및 창업문화 확산’(21.7%), ‘시장환경 조성’(12.5%), ‘창업 관련 하드웨어 인프라 지원’(9.2%), ‘지식/혁신환경 조성’(7.2%), ‘창업 관련 소프트웨어 인프라 지원’(5.9%), ‘비즈니스 서비스 환경 조성’(3.9%), ‘네트워크 환경 구축’(2.6%), ‘대기업의 불공정 경쟁 환경 개선’(0.7%) 순으로 응답함

— ‘벤처자금 조달환경 조성’은 30세 이상(47.8%), 기술창업 계획이 없는 (45.1%) 응답자에서 특히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응답 기업의 과반은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우선 추진 과제를 ‘벤처자금 조달환경 조성’(53.4%)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은 ‘시장환경 조성’(18.2%), ‘기업가 정신 및 창업문화 확산’(8.0%), ‘지식/혁신환경 조성’(4.6%), ‘창업 관련 소프트웨어 인프라 지원’(4.6%), ‘창업 관련 하드웨어 인프라 지원’(4.3%), ‘비즈니스 서비스 환경 조성’(4.3%), ‘네트워크 환경구축’(2.2%) 순으로 대담함 (무응답 0.3%)

— ‘벤처자금 조달환경 조성’은 31~50인 기업(63.0%)에서 특히 응답률이 높음



〈그림 4-37〉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우선 과제

- 자금조달환경 개선이 예비창업자와 기업 모두에게 기술창업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인식되며 기업가 정신 및 창업문화 확산은 예비창업자, 시장환경 조성은 기업에게 상대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나타남



## 제5장      기술창업 생태계                  확립 방안

제1절   기술창업 지원정책 현황

제2절   기술창업 생태계 확립 정책방향

제3절   기술창업 생태계 확립 정책제언

## 제 5 장

# 기술창업 생태계 확립 방안

### 제1절 기술창업 지원정책 현황

#### 1.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주요 창업 지원사업 현황

- 창업 단계와 지원 방법에 따라 창업지원정책을 분류하여 비교·분석
  - 창업 단계에 따라 창업예비자 창업지원(기술개발·창업준비), 창업기업 지원(창업보육), 창업기업 시장안착 지원(기업성장·사후관리) 등 세 가지로 분류
  - 지원 방법에 따라 자금, 교육, 경영·기술, 시설, 홍보 등 다섯 종류로 분류
  - 상대적으로 기술창업과 관계가 적은 복지 정책 쪽에서의 창업 사업은 주요 분석 대상에서 제외

##### 1) 중앙정부 창업지원사업

- 중앙정부의 주요 창업지원사업 현황
  - 주요 창업지원사업의 주체는 중소기업청이며 일부는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 광범위하게 다수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창업을

## 타깃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다양

〈표 5-1〉 중앙정부 주요 창업지원사업 현황

구분	창업예비자 창업지원		창업기업 지원	창업기업 시장안착 지원	
	기술개발	창업준비	창업보육	기업성장	사후관리
자금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창업대학원 운영지원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 -시니어창업전용자금	-특례보증(기술창업, 청년창업) -Start-up I · II · III 보증 -창업기업지원자금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교육	-기술창업아카데미 -청년창업사관학교 -대학 창업교육 패키지 사업 -시니어 창업스쿨 -청년 창직 · 창업 인턴제 -창업영재교육 -청년 사회적기업가 양성(노) -창조캠퍼스(노) -맞춤형 창업사업화 지원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맞춤형 창업사업화 지원		
경영 기술	-창업멘토링 프로그램 -시니어 비즈플라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아이디어비즈뱅크 운영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선도벤처 연계 기술창업지원사업	-중소기업 창업컨설팅 지원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설	-앱(App)창업터 지정 · 운영사업		-온라인 재택창업 시스템	-창업보육센터 확장 및 운영 지원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원사업	
홍보	-대한민국 실전창업리그		-지식서비스분야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경쟁력강 화 지원 -대한민국 벤처 창업대전	

※(노)는 고용노동부, 이외는 모두 중소기업청.

## 2) 서울시 창업지원사업

### ○ 서울시 주요 창업지원사업 현황

- 주요 사업주체는 서울특별시 창업소상공인과의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주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취업 취약계층에 집중된 서울시 창업지원정책의 특성상 기술창업 관련 지원은 주로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형태가 가장 뚜렷한 지원 형태

〈표 5-2〉 서울시 주요 창업지원사업 현황

구분	창업예비자 창업지원		창업기업 지원	창업기업 시장안착 지원	
	기술개발	창업준비	창업보육	기업성장	사후관리
자금	-산학연협력사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용보증	-창업보육센터 우수졸업기업 지원	-창업투자조합
교육	-창업동아리 지원 -e-창업스쿨/하이서울창업스쿨 -고교창업지도교사 연수 -대학생 우수기업 탐방				
경영 기술	-소상공인 지원센터		-창업닥터 운영(재무·기술·마케팅·교육·경영 분야) -창업보육센터 연계사업	-지식재산 종합 컨설팅 -컨설팅 및 고용지원대상 확대	
시설	-청년창업센터		-창업보육센터(청년, 장년, 기술 등) -대학·연구소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킹	-청년창업플러스센터 -첨단산업센터	
홍보	-창업투어 및 특강		-입주기업 창업경진대회	-꿈꾸는 청년가게 -국내외 전시회 및 제품 상담처 참가지원 -기업인증지원, 제품홍보 동영상 및 시제품 제작지원	

## 2. 창업지원단계별 기술창업 지원사업 비교

-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기술창업 지원정책을 창업지원 단계에 따라 상호 비교
  - 창업 단계에 따라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창업정책 중 기술창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업을 선별
  - 창업 단계별로 실시 중인 개별 사업의 내용과 범위를 비교하고, 지원 방법 중 어떤 방법이 단계별로 선호되는지, 혹은 지원정책의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지 비교

### 1) 창업예비자 창업지원 단계의 기술창업 지원사업

- 창업예비자 창업지원 단계에서 가장 많은 정책이 나타나는 부분은 중앙정

부와 서울시 모두 교육

- 실제 교육의 내용을 보면 기존의 창업 절차, 자금, 홍보·마케팅 등의 외부자원 획득 및 활용위주의 교육에서 점차 기업가 정신, 멘토링 등 창업에 대한 이해와 기대치 자체를 높이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관찰
- 이와 더불어 주로 자금, 경영기술과 시설 지원 부분에서 핵심 사업이 존재
  - 서울시는 산학연협력사업과 같은 연구개발에서 사업화를 아우르는 기술창업 지원사업을 운영
  - 중앙정부의 앱 창작터 지정운영 사업 및 서울시의 청년창업센터 등 창업예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도 중요
  - 상대적으로 홍보 영역에서는 창업 일반에 대한 홍보 사업 외에 기술창업에 특화된 사업을 찾아보기는 어려움

〈표 5-3〉 창업예비자 창업지원 단계의 기술창업 지원정책 현황

시기	주체	자금	교육	경영기술	시설	홍보
기술개발 · 창업준비	중앙정부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창업대학원 운영지원	-기술창업아카데미 -청년창업사관학교 -대학 창업교육 패키지 사업 -시니어 창업스쿨 -청년 창직·창업 인턴제 -창업영재교육 -청년 사회적기업가 양성 -창조캠퍼스 -맞춤형 창업사업화 지원	-창업멘토링 프로그램 -시니어 비즈플라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앱(App)창작터 지정·운영사업	-대한민국 실전창업리그
	서울	-산학연협력사업	-창업동아리 지원 -e-창업스쿨/하이서울창업스쿨 -고교창업지도교사 연수 -대학생 우수기업 탐방	-소상공인 지원센터	-청년창업센터	-창업투어 및 특강

### (1) 창업대학원 운영지원(중앙정부)

- 권역별로 5개 창업대학원의 운영을 지원하여 예비창업자 및 창업전문가를 양성

—2011년 예산 : 12억원

—지원내용 : 강사비, 교육개발비, 장학금, 기타 일반운영비 등 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창업전문가 양성

—개설대학 : 중앙대, 한밭대, 진주산업대, 호서대, 예원예술대

〈표 5-4〉 창업대학원 운영 대학 정보

구분	중앙대	한밭대	진주산업대	호서대	예원예술대
국·사립	사립	국립	국립	사립	사립
개설형태	특수대학원 (주간, 4학기)	특수대학원 (주간, 4학기)	특수대학원 (주간, 4학기)	특수대학원 (야간, 4학기)	특수대학원 (주간, 4학기)
권역	경기	충청	경상	서울	호남

## (2) 기술창업아카데미(중앙정부)

○ 우수한 ‘예비 기술창업자’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자금·입지 등 연계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2012년 예산 : 25억원

—지원내용 : 강사비, 운영비 등 강좌당 60백만원 이내를 지원

—신청자격 : 창업교육 역량 및 인프라를 보유하고 수료생의 창업보육센터 입주 연계가 가능한 대학 및 연구기관 등

## (3) 청년창업사관학교(중앙정부)

○ 청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하여 젊고 혁신적인 청년창업CEO 양성

—2012년 예산 : 142.5억원

—지원내용 : 1년간 최대 100백만원 이내, 총 사업비의 70% 이내

- 세부내용 : 창업공간, 창업코칭(전담교수 1 : 1배치), 창업교육, 기술지원(기술 및 장비), 사업비지원(창업활동비, 시제품제작비 등), 연계지원(투·융자 등)

- ※청년창업자는 총 사업비의 5% 이상을 현금으로, 25% 이하를 현물(주관기관 현물포함)로 부담하고, 계획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추진
- 신청자격 : 만 39세 이하\*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기술집약업종(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 기업의 대표자
- ※단, 신청과제의 특허보유, 대학·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대기업·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의 분사창업(예비창업자만 해당)은 신청연령 제한이 없음

#### (4) 청년 창직·창업 인턴제(중앙정부)

- 청년 창직·창업인턴제란 창직·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기업에서 실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인턴기회를 제공 후 창직·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에는 신규인력 인건비 지원
- 창직인턴제 혜택
  - 인턴기간 약정임금의 50%를 지원(월 최고 80만원, 6개월, 2인까지)
  - 참여 인턴은 필요한 실무 습득, 창직·창업 성공 시 지원금 지원
  - ※인턴기간 만료 후 인턴이 반드시 창직·창업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정직원으로 근무도 가능
- 기업 신청자격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1인 기업 포함)
  - 중소기업청 지정 대학 연구소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창업 후 10년 이내의 기업
  - 창업 후 10년 이내의 문화콘텐츠 분야기업( 미술,게임 개발, S/W개발, 디자인 등)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의 지식기반서비스업 분야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기업
  - ※단,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로 지원을 받는 중인 기업은 제외됨
  - ※국가 및 지원 단체의 인건비지원 시 그 인원을 포함해 2인까지 지원

- 인턴 신청자격 :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창업·창직 희망자로서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창직계획서 제출자
  - －창직분야 학교 전공자
  - －창업관련 교육훈련(20시간 이상) 이수자
- 지원절차
  - －시행기업 및 희망자의 인턴신청을 통해 선발한 후 약정을 맺고 인턴 근무(4대보험 가입) 시작
  - －매달 급여 지급 후 지원금 신청

#### (5) 창업멘토링 프로그램(중앙정부)

- 기술보증기금 이용기업 중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명의 직원을 전담도우미로 지정하고 현장에서 겪는 창업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대상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혁신선도형기업으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술평가보증을 받은 기업 중 전담도우미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
  - －지원내용
    - 기금의 책임자급 이상으로 1명의 전담 서포터 선정
    - 서포터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 방안에 대하여 컨설팅 수행
    - 기업이 요청할 경우 기금이 정한 기간 및 비용 이내에서 전문 컨설팅 지원
  - －지원분야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인증 예비 진단
    - 정책자금, 기타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 기업 분석 및 진단
    - 재무구조개선방안



- 매출채권관리
- 관내업체 간 협력 알선(시험장비, 유희설비이용 등)
- 기타 애로사항
- 전문 컨설팅(기술, 경영, 사업타당성 검토)

○운용기간 : 6개월

#### (6) 앱 창작터 지정·운영사업(중앙정부)

○ 전국 25개 앱창작터를 통해 모바일 분야 1인 창조기업인 앱 개발자를 양성하기 위한 앱 개발 교육을 지원

※ 현재 전국 25개 앱창작터를 지정·운영

—지원예산 : 75억원

—지원대상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교육 및 개발을 희망하는 예비 1인 창조기업

—지원내용 : 모바일 플랫폼(애플, 안드로이드, 윈도우, 바다)에 대한 기본 및 전문 개발자 과정 무상 교육 지원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교육 과정(내용) 및 일정은 추후 앱 창작터별 개별 공고

—신청방법 : 교육 희망지역 소재 앱 창작터를 통해 신청·접수

—관리기관 : 창업진흥원

#### (7) 산학연 협력사업(서울시)

○사업주체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기술혁신센터

○목표

—미래 전략적 융복합 기술 발굴,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 개발, 기업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통해 서울시의 신산업 및 신성장 분야를 창출하는 토대를 마련

—기술개발 후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서울시 산업 전반에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서울시의 과학기술 역량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

○ 지원대상

—지원분야별 개발기술을 사업화로 연계할 네트워크를 갖춘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 지원규모

—총 서울시지원금 44억원

—과제별 서울시지원금은 과제제안요구서(RFP)에서 정한 금액 이내

—서울시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지급하며,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의 계속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함

○ 신청자격

—주관기관 : 서울소재 산학협력단,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서울시출연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비영리기관

—협력기관 : 주관기관의 격을 갖춘 산학협력단, 경기 또는 인천에 분교(본교)가 소재하는 대학의 경기 또는 인천 소재 산학협력단,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서울시출연기관, 종합병원 또는 대학부속병원,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기타 비영리기관

—참여기업 :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거나 서울특별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기업

**(8) e-창업스쿨/하이서울창업스쿨(서울시)**

○ e-창업스쿨은 서울특별시와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함께 창업을 준비하는 시민들을 위해 온라인상에서 창업관련 기초학습을 제공

—창업교육 및 정보를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는 창업지식정보포털

- 창업을 희망하는 누구나 쉽게 창업정보를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표 5-5〉 e-창업스쿨과 하이서울창업스쿨 교육관련 정보

대분류	e-창업스쿨			하이서울창업스쿨
소분류	e-창업스쿨 교육과정	창업일반과정 (소상공인과정)	창업기본과정	창업전문과정
교육대상	회원 가입한 누구나	회원 가입한 누구나	회원 가입한 누구나	창업전문과정 신청자 중 온라인 심사에서 선정된 교육생
교육과목	창업일반 57개 과정	창업일반 소상공인 89개 과정	창업기본 8개 업종 (업종별 5~10개 과정)	창업전문 10개 과정
교육방식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시간	2-5차 시 (중복신청 가능)	2-5차 시 (중복신청 가능)	20차 시 (중복신청 가능)	80시간 내외 (연 3기수 운영)
교육인원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총1,800명 (과정별 차이 있음)
교육비	무료	무료	무료	15만원

- 서울의 창업교육의 집약장소로 시간적·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24시간 언제/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온라인창업교육을 제공
- 창업기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하이서울창업스쿨 창업전문과정 선정 시 가점 부여
- 하이서울창업스쿨은 서울시와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최초 선진형 창업교육 프로그램
  - 하이서울창업스쿨은 교육은 물론 수료 후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창업컨설팅, 자금, 경영지도에 이르기까지 창업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지원 토털프로그램
  - 단계별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육생산성 및 창업률 향상 및 실패율 최소화

## 2) 창업기업 지원 단계의 기술창업 지원사업

- 창업기업 지원 단계에서는 경영·기술 관련 지원 정책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남

〈표 5-6〉 창업기업 지원 단계의 기술창업 지원정책 현황

시기	주체	자금	교육	경영기술	시설	홍보
창업 보육	중앙 정부	-지식서비스 구 매 바우처 -시니어창업전 용자금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선도대학 육 성사업 -맞춤형 창업사업 화 지원	-아이디어뱅크 운영 -유망특허활용 기술창 업지원사업 -선도벤처연계 기술창 업지원사업	온라인 재택창 업 시스템	-지식서비스분 야 아이디어 상 업화 지원사업
	서울	-중소기업육성 자금, 신용보증	-	-창업닥터 운영(재무· 기술·마케팅·교육 ·경영 분야) -창업보육센터 연계사업	-창업보육센터 (청년, 장년, 기 술 등) -대학·연구소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킹	-임주기업 창업 경진대회

- 지원내용은 교육, 경영·기술, 홍보를 아우르며 특히 중앙정부사업은 기  
술창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영·기술 분야의 지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서울시사업은 중앙정부사업과 유사한 기능을 창업보육센터를 중심으로  
한 연계사업의 형태로 구체화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아직 체계적으로 개별  
사업 간의 관계가 정립되지는 않은 상황

### (1)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중앙정부)

- 대학·연구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예비기술창업자의 창업준비 활  
동(창업교육, 제품개발 및 재료 구입, 기술지도 등)을 지원
- 2012년 예산 : 171억원
- 지원내용 : 회사설립,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총사업  
비의 70% 한도 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예비창업자 또는 주관기관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예비창업자는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되, 대학생은 5% 이상을 부담)

## (2)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중앙정부)

○대학 창업지원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대폭 강화하여, 창업교육 패키지 지원, 예비기술창업자 육성 등 창업과정 전반에 걸친 프로그램을 일괄 지원함으로써 지역 거점별 창업선도대학을 육성

—2012년 예산 : 250억원

—지원내용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대학 창업교육패키지 사업 등 창업지원사업을 일괄지원(15개 대학, 대학당 최대 30억원 한도)

• 세부 지원내용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 창업교육 패키지(창업강좌, 창업 동아리, 기술창업 아카데미, 창업전담 상담인력, 지역 창업경진대회) 등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및 특정연구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등

## (3) 아이디어비즈뱅크 운영(중앙정부)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아이디어·지식거래물 : 1인 창조기업과 공공기관, 기업들이 웹사이트에서 지식거래가 가능토록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아이디어비즈뱅크” 내의 지식거래 정보시스템

—비즈니스 센터 :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동 사무공간 제공 및 세무·법률 전문가 상담 등을 지원하는 비즈니스센터

—지식거래 사업화 : 우수한 아이디어·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

## (4)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중앙정부)

○상품·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제품 제작 및 마

케팅 등 창업준비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분야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며, 2단계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법인설립이 가능한 자
  - 사업자 등록 후 폐업한 경력이 있는자는 제외
- (예비)창업자별 5,000만원 한도로 총 사업비 70% 이내 지원
- 사업 선정자는 단계별로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본인이 부담
- 예산규모 : 26억원

○지원내용

- 1단계 지원 내용
    - 사업기획 :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전문가 교육, 자문,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시제품 제작 : 제품 설계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제품개발 과정에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외주용역비, 기자재 구입 등
  - 2단계 지원 내용
    - 상품화 제작 : 시제품 보완을 위한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지적재산권 취득 : 특허, 인증 취득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마케팅 및 판로지원 : 전시회 참가, 카탈로그 제작, 홈페이지 제작, 영상제작 등 마케팅 및 홍보비
- ※ 2단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1단계에서 지원 종료

(5) 선도벤처 연계 기술창업지원사업(중앙정부)

- 선도벤처기업의 성공 노하우 전수 및 기술창업자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한 성공창업 유도 및 미래 스타벤처기업 육성
- 2012년 예산 : 45억원
- 지원내용 : 선도벤처기업이 육성하고 싶은 예비창업팀을 직접 선발하고 창업 준비공간, 시제품 제작, 전담 멘토링, 사업기획, 기술보완 등 지원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현재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 사업시행일 직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의 기업으로, 자본잠식 등 재무적 문제가 없는 기업
  - 국내·외 다양한 유통·판매망, 해외 현지법인을 보유한 기업
  - 최소 2개 이상의 기술창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창업준비공간, 공용회의공간 등)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6) 지식서비스 분야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중앙정부)

- 지식서비스분야 등 사업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선정해 콘텐츠 제작, 소비자 반응평가, 지재권 및 마케팅 등을 일괄지원
  - 지원예산 : 30억원
  - 지원대상 :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의 창업초기기업
    - \*‘예비창업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창업을 하지 아니한 자이며, ‘3년 이내의 창업초기기업’은 ’08년 1월 1일 이후 창업기업을 의미
  - 지원업종 : 만화,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방송, 영화, 출판(전자), 음악, e러닝, 정보서비스, 디자인, 융복합콘텐츠서비스 등 13개 업종

〈표 5-7〉 지식서비스 분야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 주관기관별 지원대상 업종

주관기관명	지원 업종
한국콘텐츠진흥원	만화,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영화, 방송, 출판(전자), 음악, 융복합 등
소상공인진흥원	e러닝, 정보서비스, 디자인, 융복합 등

- 지원내용 : 전체 사업비의 70% 이내, 과제별 40백만원 한도

#### (7) 창업닥터 운영(서울시)

- 신기술창업센터 입주기업 지원 목적으로 입주기업의 업종에 부합하는 기

술 및 경영분야의 보육다터를 지정

- 기술 부문에서는 입주기업의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발제품의 베타테스트, 모의실험 등으로 제품 개발을 지원
- 경영 부문에서는 입주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홍보마케팅, 시장분석 전문가를 통한 종합진단 등 지원

### (8) 창업보육센터(서울시)

#### ○ 서울신기술창업센터

- 소재지 : 강서구 공항대로 61길 29
- 규모 : 대지 8,061.5m<sup>2</sup>/연면적 9,270m<sup>2</sup>(건물 3개 동)
- 창업공간 : 44실
- 공용시설 : 창업교육실, 제품개발실, 전산교육실, 마케팅플라자, 정보자료실 등
- 지원프로그램 : 멘토링, 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원, 전시회 등 판로개척 지원, 입주기업 기술인증, 제품화 지원 등

#### ○ 서울창업지원센터

- 소재지 : 구로구 디지털로 72길 26 베르디타워
- 규모 : 연면적 9,757m<sup>2</sup>/전용면적 5,827m<sup>2</sup> 2~5층(4개 층)
- 창업공간 : 50실
- 공용시설 : 회의실, 세미나실, 공용장비실, 촬영실 등
- 지원프로그램 : 멘토링, 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원, 전시회 등 판로개척 지원, 입주기업 기술인증, 제품화 지원 등

### 3) 창업기업 시장안착 지원 단계의 기술창업 지원사업

- 창업기업 시장안착 지원 단계의 기술창업 지원사업은 창업과 기업지원이 중첩되는 영역으로, 기술창업과 관련된 사업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교육을



제외하면 여러 분야에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임

- 자금 영역에서는 중앙정부사업은 기술창업 특례보증, 서울시사업은 기술창업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조합의 운영이 대표적인 사업
- 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개발이나 지식재산에 대한 컨설팅의 제공이 주요한 사업이며 시설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통해 독자적인 기업으로 독립하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인 정책이 대부분
- 시장안착 단계에서는 창업 단계의 특성상 교육보다는 전문적인 컨설팅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 진행 중

〈표 5-8〉 창업기업 시장안착 지원 단계의 기술창업 지원정책 현황

시기	주체	자금	교육	경영기술	시설	홍보
기업 성장 · 사후 관리	중앙 정부	-기술창업, 청년창업 특례보증 -Start-up I · II · III 보증 -창업기업지원자금 -소상공인 창업 및 경 영개선 자금	-	-중소기업 창업컨 설팅 지원 -창업성장기술개 발사업	-창업보육센터 확장 및 운영 지원 -신기술창업집 적지역 지원사 업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경쟁력강화 지 원 -대한민국 벤처 · 창 업대전
	서울	-창업보육센터 우수졸 업기업 지원 -창업투자조합	-	-지식재산 종합 컨 설팅 -컨설팅 및 고용지 원대상 확대	-청년창업플러 스센터 -첨단산업센터	-꿈꾸는 청년가게 -국내외 전시회 및 제품 상담처 참가 지원 -기업인증 지원, 제 품홍보 동영상 및 시제품 제작지원

### (1) 기술창업, 청년창업 특례보증(중앙정부)

#### ○ 기술창업 특례보증

-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우대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기업의 성장기틀 마련에 필요한 자금지원
- 대상기업
  -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술창업기업

－대상자금

-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같은 기업당 지원한도

- 보증금액 1억원 이내

－우대지원내용

- 보증료 0.3%p 감면
- 부분보증비율 90% 적용(창업 후 1년 이내는 전액보증 적용 가능)

○ 청년창업 특례보증

－대상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로, 대표가 만 20~39세 이하인 기술창업기업

－대상자금

-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같은 기업당 지원한도

- 보증금액 3억원 이내

－우대지원내용

- 보증료 : 연 0.3% 고정요율 적용
- 부분보증비율 : 95% 적용(창업 후 1년 이내 기업 또는 보증금액 1억원 이하의 전액보증 적용 가능)

## (2)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중앙정부)

○ 신기술·신제품 개발이 가능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2012년 지원규모 : 120억원

－1인 창조기업 과제 : 50억원

－앱 과제 : 70억원

○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표 5-9〉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 과제별 상세내용

과제구분		개발기간	지원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비고
1인 창조기업 과제		최대 1년	5천만원 한도	75% 이내	자유응모
앱 과제	앱 개발	최대 6개월	5천만원 한도		
	요소기술 개발	최대 1년	1억5천만원 한도		

○ 지원대상 및 분야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자유응모형 지원사업으로 신청대상 및 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

- －1인 창조기업 과제 : 1인 창조기업의 우수 아이디어 및 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기술개발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앱 과제 : 앱 개발과 앱 요소기술 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 앱 개발 : 수익 창출이 가능한 창의적 앱 개발(최종 개발된 앱은 앱스토어에 반드시 등록)
  - 앱 요소기술개발 : 모바일 솔루션, 모바일 프레임워크 등 앱 관련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 요소기술 개발, 앱 연동을 위한 네트워크 관련기술, 앱 저작도구 관련기술, 단말이나 센서 등과 관련된 하드웨어 기술, 서비스 관련 기술 등
-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20%를 납부
  - 현금 일시납부가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 납부 가능

### (3) 창업보육센터 확장 및 운영 지원(중앙정부)

- 창업보육센터 신규 또는 확장건립에 소요되는 건립비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일부를 지원
  - 2012년 예산 : 267억원
  - 지원내용 : 신규 또는 확장 건립비와 운영비를 구분하여 지원
    - 건립비 :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30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 건립비 사업자 부담금은 현금부담이 원칙(기존 건물 개·보수를 통한 확장건립의 경우 감정평가액을 사업자 부담금의 50%까지 인정)
    - 운영비 :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신청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 신규 건립신청 대상은 중기청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과 동시에 지원

### (4)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원사업(중앙정부)

- 대학·연구소의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 촉진을 위해 인프라 조성 및 공동 생산장비 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
  - 2012년 예산 : 14억원
  - 지원내용 : 정부지원금은 전체 사업비의 30% 범위(14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신청기관이 부담
  - ※ 신청기관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반드시 총사업비의 5%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신청대상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을 희망하는 대학 또는 연구소

### (5)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경쟁력강화 지원(중앙정부)

- 창업보육센터(BI : Business Incubator) 입주기업 가운데 우수 기업을 선정하여 시제품 제작, 국내·외 판로개척, 투자유치 등을 지원

—2012년 예산 : 40억원

—지원내용

- 기술·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제품 디자인 개발 및 신제품 모형제작 지원
- 마케팅·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 국내외 판로확보를 위한 시장조사 분석, 국내외 전시회 참가, 해외시장 개척 및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
- 경영인력 경쟁력 강화 지원 : 입주기업의 투자유치 등 경영인력의 역량향상 지원

—신청대상 : 중기청 지정 BI 입주기업

## (6) 창업투자조합(서울시)

○서울시는 총 5개 펀드를 통해 문화산업, 바이오메디컬, 녹색산업 부문의 기술창업을 지원

〈표 5-10〉 서울시 투자펀드 현황

구분	문화산업펀드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녹색기업 창업펀드
	1호 디지털 문화콘텐츠 펀드	2호 디지털 문화콘텐츠 펀드	3호 초기기업 펀드		
담당 기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정책사업본부			서울신용 보증재단	서울산업통상 진흥원 정책사업본부
투자 분야	애니메이션 (40%), 게임 (30%), 캐릭터 및 기타(20%)	애니메이션, 캐릭터(50%), 게임 등 기타 (50%)	초기기업 및 기타(창업 후 3년 미만 기업에 투자)	바이오메디컬 분야 전반	서울 소재 녹색산업 관련 창업 중소벤처기업
결성 연도	2008.1 결성 (운용기간 7년)	2009.2 결성 (운용기간 7년)	2009.3 결성 (운용기간 7년)	2010.10 결성 (운용기간 10년)	2011.3 결성 (운용기간 7년)
조성액 (서울시/총 액)	50억 / 290억	50억 / 314억	50억 / 370억	300억 / 750억 (총 2천억 목표)	20억 / 260억 (총 400억 목표)
	150억 / 974억 (총 1,000억 목표)				
진행 상황	총 30건 313.3억 투자 4건 회수 완료 10건 회수 중	총 27건 173.5억 투자 10건 회수 중	총 27건 310.3억 투자 5건 회수 완료 5건 회수 중	투자 진행 중 6개 기업 106.2억 투자	투자 진행 중 10개 기업 68억 투자

- 문화산업펀드 1, 2, 3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녹색기업창업펀드로 구성
- 5개 펀드의 총 조성금액은 1,984억원이며, 서울시는 총 470억원을 지원

#### (7) 지식재산 종합컨설팅(서울시)

##### ○사업주체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지식재산센터

##### ○사업목적

-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One-Stop Total Solution을 제공하여 기술혁신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서울 신성장동력 산업 발전에 기여

##### ○사업내용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사업 : 서울소재 종업원 10인 미만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산업고도화 지원
  -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상담, 출원서류 작성 및 비용 지원
-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사업 : 지식재산권 분쟁 시 상대적으로 열세인 서울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심판, 소송 비용 지원
- 특허정보 종합 컨설팅 : 서울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 국내 및 해외출원비용지원, 맞춤형 특허맵 작성, 민간 IP전문가 과견을 통한 경영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특허종합컨설팅 제공
- 지역 브랜드가치 제고사업 : 서울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국내외 브랜드 출원비용지원 등 지원

#### (8) 첨단산업센터(서울시)

##### ○설립목적

- 세계수준의 디지털콘텐츠 개발/생산/공급 중심기지 조성

- 역동적 기업생태계가 시너지를 창출하는 지식융합형 첨단산업센터 구축
- 시설개요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580번지 DMC 첨단산업센터
  - 규모 :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77,190㎡(23,350평)
  - 준공 : 2008년 3월
- 센터 비전 및 기능
  - 설립목표 : 동일 및 관련업종 간의 협업시스템과 역동적 기업생태계가 시너지를 창출하는 지식융합형 혁신 첨단산업센터 구축
  - 디지털 콘텐츠 및 관련업종 유치·집적, 역동적인 기업생태계 조성,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 및 동 협업시스템 구축
  - 비전 : 세계수준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생산·공급 중심기지

## 제2절 기술창업 생태계 확립 정책방향

- 기술창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은 생산성, 강건성, 혁신성의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가능(Iansiti and Levien, 2004a; 2004b; 김기찬 외, 2006)
  - 생태계의 생산성은 생태계 각 개체의 역량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원가혁신에 의한 비용절감과 산출가치 증진이라는 ‘역량진화의 길’이 필수
  - 생태계의 강건성은 생태계 내 개체의 유입자수와 퇴출자수에 의해 결정되며 창업으로 유입되는 개체를 늘리고 퇴출되는 개체를 줄이는 ‘신뢰구축의 길’이 필요
  - 생태계의 혁신성은 생태계가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여 확장해 가는

- 능력으로,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니치, 즉 틈새시장을 찾아갈 수 있도록 개체 간 수분, 혹은 매칭을 통한 ‘열린 혁신의 길’이 적절
- 생태계는 필요조건인 일정정도의 생산성을 확보했다면 강건성, 그리고 무엇보다 혁신성을 진화의 원천으로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성장과 진화가 가능(혁신성>강건성>생산성>0) (Kim · Song · Rhee, 2010)
  - 강건성은 초기에 생산성과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일정수준이 지나면 일정해지는 특성이 있는 반면, 혁신성은 초기에 상관관계가 약하나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는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기술창업 생태계 지원은 예비창업자와 창업초기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측면에서 벗어나 생태계 전반의 크기를 키울 수 있는 측면, 그리고 기술 및 틈새시장 개발 기회 확대 측면을 주요한 방향으로 고려
- 생산성 측면에서는 이미 충분한 기술창업정책이 시행 중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 이전에 기존 기술창업관련 정책을 성장단계에 따라 체계화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
  - 강건성 측면에서는 기술창업의 문턱을 낮추어 창업자의 수를 늘이는 것이 관건이며, 지자체 수준에서 이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은 창업 거점을 통해 예비창업자에게 가용한 자원 및 정책수단에 대한 정보 제공의 원활화와 동기부여를 위한 리더십 교육의 활성화
  - 혁신성 측면에서는 기술수준, 규모, 경험 수준을 달리하는 연구기관, 기업 간의 매칭을 확대함으로써 기술을 개발하는 혁신역량과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시장역량이 결합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방향이 필요
-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술창업 생태계 확립 방향을 설정
- 생산성 : 기술창업정책의 체계화를 통한 순차적 지원체계 수립
  - 강건성 : 기술창업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전달 및 교육체계 강화
  - 혁신성 : 다양한 기술창업주체 간 혁신역량과 시장역량의 연계 확대



### 제3절 기술창업 생태계 확립 정책제언

- 기술창업 전반에 걸친 정책을 새로이 짜는 구상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정책 프레임에서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을 반영한 사업을 위주로 정책제언

#### 1. 기술창업정책의 체계화를 통한 순차적 지원체계 수립

- 새로운 기술창업 정책의 시행보다는 현재 시행 중인 기술창업 정책을 기술창업 단계별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용정책 체계화 추진
  -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자체 기술창업정책은 기능상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있으며 다수의 중앙정부 정책기관이 서울에 입지하고 있어 기술창업정책 간 시너지 효과의 잠재력이 풍부
  - 따라서 현재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에 분리되어 추진되고 있는 기술창업 정책을 기술창업단계에 따라 창업예비자 창업지원(기술개발·창업준비), 창업기업 지원(창업보육), 창업기업 시장안착 지원(기업성장·사후관리) 등 세 가지로 통합 혹은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 추진
  - 초기에는 서울시가 주축이 되어 단계별 기술창업 지원정책의 체계를 정립하고 이에 따라 정책정보 공유나 사업 지원 시 보조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점차 시설 공동사용이나 중앙정부-서울시 공동사업 등으로 확장
- 순차적인 지원체계가 정립된 이후에는 해당 체계를 통해 실제 우수한 기술창업기업을 육성하는 주요 방안으로 기술창업단계별 실적 누적제 도입
  - 현재도 일부 시행 중인 방식으로 창업 단계별로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한 실적을 보인 기술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그다음 단계인 기술창업지원사업 지원 평가 시 실적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

## 2. 기술창업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전달 및 교육 체계 강화

- 기술창업 지원 정보제공에서 단일 채널을 구축하는 대신 기술창업의 거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채널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
  - － 기존의 원스톱 서비스 구축 정책은 단일 채널을 통한 정부주도의 서비스 제공 방식을 전제하고 있으나, 실제 예비창업자와 기술창업기업은 주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얻고 있으며 창업동아리/모임 혹은 창업박람회와 같은 소셜 채널을 통한 정보습득이 높게 나타남
  - － 때문에 기술창업 지원 정보를 체계화하여 제공하는 방식 못지않게 민간 부문에서 이런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채널을 병행해서 확보하는 것이 정보확산에 효과적
  - － 실질적으로는 서울시 창업센터가 기술창업 지원 창구를 운영하는 방식에서 확장하여 창업센터를 거점으로 하는 창업동아리 및 온라인 카페, 기술창업 기업 교류회 등 소규모 정보 모임의 운영 확대가 바람직
- 전국의 창업보육센터는 2011년 총 276개
  - －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주체는 대학이 2011년 220개로 전체의 약 80%에 달하며 이어 연구소(8.3%), 지자체(4.0%), 중소기업진흥공단(2.5%), 기타(5.4%)의 순으로 나타남

〈표 5-11〉 전국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주체별 현황

연도	대학	중진공	연구소	지자체	기타	합계
2009	226	7	21	13	12	279
2010	228	7	25	11	15	286
2011	220	7	23	11	15	276

자료 :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

- 서울시 관내 창업보육센터는 총 38개 기관·47개 센터·2,398개 보육실
  - －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7개 센터에 1,572개 기업이 입주

- 11개 자치구에 13개 센터 282개 보육실
- 16개 대학에 17개 센터 350개 보육실
- 10개 연구기관 및 공급기관에 10개 센터 194개 보육실

〈표 5-12〉 서울시 관내 창업시설 현황

서울시 및 자치구	대 학	연구기관 등
· 서울시 : 1개 기관 7개 센터 (1,572개 기업) · 자치구 : 11개구 13개 센터 (282개 기업)	16개 대학 17개 센터(350개 기업)	10개 기관 10개 센터(194개 기업)
서울신기술창업센터(41) 서울시창업지원센터(50) 성수IT종합센터(31) 장년창업센터(250) 청년창업플러스센터(150) 강남청년창업센터(500) 강북청년창업센터(550)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개포(20)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테헤란(70) 중랑구(9) / 도봉구(19) 금천구(6) / 동작구(8) 영등포구(24) / 용산구(15) 광진구(건국대 공동)(12) 마포구(서강대 위탁)(26) 서대문구(시립대 위탁)(37) 성북구(한성대 위탁)(26)	건국대학교(18) 경희대학교(13) 고려대학교(15) 국민대학교(20) 동국대학교(23) 배화여자대학(22) 삼육대학교(17) 서강대학교(11) 서울대학교(43) 서울과학기술대학교(20) 세종대학교(18) 연세대학교(38) 인덕대학교(30) 송실대학교(27) 중앙대학교(22) 한양대학교(13)	한국세라믹기술원(27) 벤처산업협회(27) 한국과학기술연구원(74) 한국농촌경제연구원(10) 한국환경기술진흥원(16) 국방기술품질원(15) 중소기업진흥공단(27) 한국기술벤처재단(11) 한국여성경제인협회(10) 남부여성발전센터(14) 여성능력개발원(11)

※ 규모는 보육실 기준 : 중소기업청 인가미, 광운대 12개사 보육센터 폐쇄(2010. 11)

- 교육 측면에서는 창업의 동기를 부여하여 예비창업자들이 실제 창업을 결심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창업 리더십 교육 확대 및 강화가 필요
- 예비창업자들은 기회나 능력에 대한 우려보다도 창업에 대한 공포 때문에 창업에 부정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창업에 대한 기대와 성공한 기업이 사례가 이를 넘어설 수 있는 주요 동기부여로 부각
- 때문에 현재 주류인 실무위주의 창업교육과 더불어 창업을 결단하고 준

비할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교육이 필요하며, 해당 교육의 내용은 창업의 장단점을 성공 및 실패 기업의 주요 사례를 통해 접근하는 방식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

○ 다양한 채널을 통한 기술창업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와 방식에서도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 창업교육기관과 공동의 교육체계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 예비창업자의 주류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 기관을 통한 홍보·교육 이외에도 일반 대학에서 정규교과목으로의 편성을 지원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기술창업교육의 활성화와 예비창업자 육성이 가능

— 반대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기술창업교육도 교육을 제공하는 창업센터 인근의 대학 등을 대상으로 공동 학점제나 교육이수 인정 제도를 시행한다면 교육의 활용도도 높아지고 향후 기술창업의 거점으로 예비창업자들을 이끄는 부가적인 성과도 거둘 수 있음

— 이외에도 현재 리더십교육을 제공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와도 창업센터 혹은 지역 수준에서 공동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교육이 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도록 노력

### 3. 다양한 기술창업주체 간 혁신역량과 시장역량의 연계 확대

○ 기술창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기술창업자와 정책지원자 간의 경험과 자원의 불균형이라는 태생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비·초기창업자와 선도기업 연계가 민간 중심으로 시작

— 기술창업을 이미 경험하고 네트워킹과 시장 파워를 갖춘 선도기업이 기술은 있으나 이와 같은 시장역량이 부족한 예비·초기창업자와 매칭하여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식

— 전문가적 컨설팅이 아닌 창업에서 운영까지의 경험을 통한 멘토링을 제

공하는 방식에서 엔젤로서 창업자에게 초기 투자를 제공하는 사례, 그리고 기업 대 기업이 아니라 청년 창업자와 노년 경영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

—서울시는 예비·초기창업자와 선도기업을 연계시켜 주는 조정자의 입장에서 멘토링과 매칭을 지원하는 연계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기술창업 혁신 생태계를 확장하는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역시 창업센터 등의 지역거점을 통해 지역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한 방법

○기술창업에서 가장 요긴한 정책은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이며, 창업보육센터와 투자기능을 결합하는 것은 이러한 자금조달 기능을 혁신 생태계 내에서 조직하는 한 방안

—대부분의 기술창업기업은 자체 자금을 통해 독립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엔젤과 벤처투자의 비중은 R&D과제를 통한 기술개발자금보다도 낮은 실정으로 자금조달에서 기술개발로의 투자가 미흡한 실정

—창업보육센터는 공간저가임대, 장비공동활용을 위주로 하는 1세대에서 컨설팅을 제공하는 2세대, 그리고 다시 투자와 시장진출을 돕는 3세대 플랫폼으로 진화 중

—창업보육센터에 엔젤 및 벤처투자업체 등과의 공동입주를 추진하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등의 지원 창구를 같이 둔다면 입주기업과 투자자 간에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한 신뢰구축으로 투자기회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이 가능

○서울시 중소규모 대학에 잠재된 혁신역량을 시장역량과 연결하여 기술개발과 창업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서울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고려

—서울시 소재 중소규모 대학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자체적으로 기술지주회사 운영이 어려운 중소규모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는 방안을 마련

—현재 강원도 소재 5개 대학이 유사하게 공동 기술지주회사를 운영

—서울시의 산학연을 담당하는 서울기술혁신센터, 지식재산지원을 담당하는 서울지식재산센터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현재 서울대, 한양대 등 자체적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방안을 고려

〈표 5-13〉 대학 기술지주회사 현황

대학명	설립인가	자회사 설립 현황(설립시기)	
한양대	2008.7.24	① 트란스노(주)('08.10) ② (주)크레스타('08.10) ③ (주)크린컴('08.11)	④ (주)오메가퀀트아시아('10.2) ⑤ (주)EWUB코리아('10.12) ⑥ (주)플립('11.2.25)
서울대	2008.10.29	① (주)STH아이젠텍('09.3) ② (주)STH팜('09.4) ③ (주)STH아트엠('09.7) ④ (주)Su-ON('10.3)	⑤ (주)엔퍼커('10.3) ⑥ (주)STHE솔루션('10.4) ⑦ (주)아이링크스('10.7)
삼육대	2008.10.29	① SU건강케어('09.3)	
서강대	2009.1.13	① (주)에스메디('09.7)	② (주)에스지엠('10.8)
경희대	2009.4.15	① 한방바이오('09.10)	
강원대 (5개연합)	2009.4.15	① (주)아이큐('09.7) ② (주)AG그린('09.7) ③ 신타지아인코퍼레이티드('09.10) ④ (주)하농바이오('09.10) ⑤ (주)엔바이오시스('09.8)	⑥ (주)심충수수산('09.11) ⑦ (주)에코플랜트('10.9) ⑧ (주)차라이브셀('10.9) ⑨ (주)CHP커뮤니케이션('10.9)
고려대	2009.8.18	① (주)위델소재('09.11) ② (주)오라픽스('09.11)	③ (주)KU디지털미디어랩('10.4) ④ (주)퀀텀바이오텔루션즈('10.4)
인천대	2009.10.29	① (주)그린파이오니아('10.2)	② (주)클린에어나노테크('10.5)
동국대	2010.2.22	① (주)바산고려홍삼('10.7)	
부산대	2010.2.22	① (주)피엔유렘('10.8) ② (주)피엔유에코에너지('10.9)	③ (주)피엔유신라젠('11.2)
단국대	2010.9.6		
동신대	2010.10.8	① (주)쓰리디비전('10.12) ② (주)엑센('10.12)	③ (주)에듀글로벌비즈('10.12)
조선대	2010.10		
합계(13개 지주회사)		39개 자회사 설립 운영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

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짐

-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구조로 자회사의 사업 성공 시에 얻은 이익 중 일부를 산학협력단에 배당하며 산학협력단은 이를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기술사업화의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음
- 현재 기술지주회사는 총 13개(3개 준비중)로 서울소재 대학이 7개(1개 준비 중)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음
  - 서울시 소재 기술지주회사(자회사 22개) : 한양대(6개), 서울대(7개), 삼육대(1개), 서강대(2개), 경희대(1개), 고려대(4개), 동국대(1개)

# 참 고 문 헌





## 참 고 문 헌

---

- GERA(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Association), 2003~2011, *The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 Global Report*, London : London Business School.
- Iansiti, M. and R. Levien, 2004a, *The Keystone Advantage : What the New Dynamics of Business Ecosystems Mean for Strategy, Innovation, and Sustainability*. Boston :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Iansiti, M. and R. Levien, 2004b, “Strategy as Ecology”, *Harvard Business Review*, 82(3), pp. 68-78.
- Kim, K-C, C.S. Song, and C.O. Rhee, 2010, “The Healthiness of Business Ecosystem and Its Effect on SME’s Performance”, *Proceedings of 2010 ICSB World Conference*, June 2010.
- Littel, A.D., 2011, *Innovation Excellence 2009/2010 : Benchmark Study*, Paris : Arthur D. Little.
- 西澤昭夫 外, 2010, “NTBFs の簇業・成長・集積のための Eco-system の構築”, *RIETI Discussion Paper Series*, 10-J-024.
- 곽승준 외, 2012, 「스마트 자본주의 5.0 : 산업생태계를 흥분케 하라」, *과주 : 나남*.
- 김기찬 외, 200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이론적 모형 설계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생태계 구축”, *「중소기업연구」*, 28(3), pp. 381-410
- 김묵한·김범식·박희석, 2010, 「서울시 주요 산업별 창업패턴변화 추세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박동 외, 2010, 「청년 지식기술 창업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반성식 외, 2009-2011,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GEM) 연구보고서』, 진주 : 경남과  
학기술대학교.

서울특별시, 2011, 『서울경제비전 2020 : 스마트 경제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외, 2010, 『창업지원체계 선진화 방안』,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2011, 『2011년도 창업지원사업 안내』,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 창업진흥원, 2010, 『창업지원정책의 개선 및 발전 방안』,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2011, 『MB정부 창업지원시책 분석 및 보완과제 연구』, 창업진흥원.

통계청, 2011, 『2004~2009 사업체 생성 · 소멸(생멸) 현황 분석』, 통계청.

<http://kosis.kr/>(국가통계포털)

<http://stat2.smba.go.kr/>(중소기업 조사통계시스템)

<http://www.bi.go.kr/>(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 시스템)

<http://www.innobiz.net/>(기술혁신형중소기업)

<http://www.kban.or.kr/>(엔젤투자지원센터)

<http://www.kibo.or.kr/>(기술보증기금)

<http://www.kised.or.kr/>(창업진흥원)

<http://www.kova.or.kr/>(벤처기업협회)

<http://www.kvca.or.kr/>(한국벤처캐피탈협회)

<http://www.smba.go.kr/>(중소기업청)

# 부 록



〈부록 표 1〉 비즈니스서비스업의 산업분류 항목(KSIC 9차 기준)

분류코드	분류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2	농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201	경제학 연구개발업
70209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101	변호사업
71102	변리사업
71103	법무사업
71109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01	공인회계사업
71202	세무사업
71209	기타 회계관련 서비스업
71310	광고 대행업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1392	광고매체 판매업
71393	광고물 작성업
71399	그외 기타 광고업
7140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20	비금융 지주회사
71531	경영컨설팅업
71532	공공관계 서비스업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21	측량업
72922	제도업
72923	지질조사 및 탐사업
72924	지도제작업
73301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
73302	상업용 사진 촬영업
73303	사진 처리업
73901	매니저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4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5701	교육관련 자료 및 평가업
85709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부록 표 2〉 관광·MICE 산업의 산업분류 항목(KSIC 9차 기준)

분류코드	분류명
55111	호텔업
55113	휴양콘도 운영업
55119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5211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75212	국내 여행사업
75290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7599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0211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운영업
90212	독서실 운영업
90221	박물관 운영업
90222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3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90232	자연공원 운영업
90290	기타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31	낚시장 운영업
9123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91292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부록 표 3〉 녹색 산업의 산업분류 항목(KSIC 9차 기준)

분류코드	분류명
05100	석탄 광업
0520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06210	우라늄 및 토륨 광업
0801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서비스업
08090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16212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19101	코르크 및 관련제품 제조업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제조업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19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19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0129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303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22112	타이어 재생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2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28201	일차전지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부록 표 계속〉 녹색 산업의 산업분류 항목(KSIC 9차 기준)

분류코드	분류명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35111	원자력 발전업
35112	수력 발전업
35113	화력 발전업
35119	기타 발전업
35120	송전 및 배전업
35200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5300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38110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38120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38130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38210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38220	지정 폐기물 처리업
38230	건설 폐기물 처리업
38301	금속원료 재생업
38302	비금속원료 재생업
3900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41223	수로, 댐 및 급·배수시설 건설업
41224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42110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46791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72122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부록 표 4〉 금융 산업의 산업분류 항목(KSIC 9차 기준)

분류코드	분류명
64110	중앙은행
64121	국내은행
64122	외국은행
64131	신용조합
64132	상호저축은행
64139	기타 저축기관
64201	자산운용회사
64209	기타 투자기관
64911	금융리스업
64912	개발금융기관
64913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64919	그외 기타 여신금융업
64991	기금 운영업

〈부록 표 계속〉 금융 산업의 산업분류 항목(KSIC 9차 기준)

분류코드	분류명
64992	금융지주회사
64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융업
65110	생명 보험업
65121	손해 보험업
65122	보증 보험업
65131	건강 보험업
65139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
65200	재 보험업
65301	개인 공제업
65302	사업 공제업
65303	연금업
66110	금융시장 관리업
66121	증권 중개업
66122	선물 중개업
66191	유가증권 관리 및 보관업
66192	투자 자문업
66199	그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66201	손해사정업
66202	보험대리 및 중개업
66209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69400	무형재산권 임대업

〈부록 표 5〉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산업분류 항목(KSIC 9차 기준)

분류코드	분류명
21101	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20	한의학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3	의료용 가구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86101	종합 병원
86102	일반 병원
86103	치과 병원
86104	한방 병원

〈부록 표 6〉 콘텐츠 산업의 산업분류 항목(KSIC 9차 기준)

분류코드	분류명
18200	기록매체 복제업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46461	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업
46463	장난감 및 취미용품 도매업
46510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47311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47620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47640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58111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58112	만화 출판업
58119	기타 서적 출판업
58121	신문 발행업
58122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3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211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60100	라디오 방송업
60210	지상파 방송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60222	유선방송업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63910	뉴스 제공업

〈부록 표 7〉 IT융합 산업의 산업분류 항목(KSIC 9차 기준)

분류코드	분류명
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2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19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2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1	전자관 제조업
26292	전자축전기 제조업



〈부록 표 계속〉 IT융합 산업의 산업분류 항목(KSIC 9차 기준)

분류코드	분류명
26293	전자저항기 제조업
26294	전자카드 제조업
26295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26296	전자접속카드 제조업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310	컴퓨터 제조업
26321	기억장치 제조업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63999	그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부록 표 8〉 디자인 · 패션 산업의 산업분류 항목(KSIC 9차 기준)

분류코드	분류명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 영문 요약 (Abstract)



# A Study on the Strategy to Build a Virtuous Cycle of Technology-based Start-up Ecosystem in Seoul

Chang-Ho Shin · Mook-Han Kim

Seoul enters into the mature stage of economy in which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become more important as key players of regional competitiveness and productivity. Technology-based start-up is defined as the formation of new firm creating and profiting from innovative technology and knowledge theoretically, and as entrepreneurship in technology-driven industries operationally. Technology-based start-up ecosystem means an organic network of interactions of firms, institutions, and government agencies that creates, supports and raises technology-based start-ups.

Korean start-up environment is dominated by necessity entrepreneurship. Although Seoul has maintained and even expanded its leading technology-based start-up ecosystem, its national share and the number of new start-ups has lessened with an increasing incorporation trend throughout the last decade of recession. Recently start-ups in technology-driven industries, which hires more workers than necessity start-ups in average, lead the recovering trend of entrepreneurship in Seoul.

Policy demand survey of pre-start-ups and earlier technology-based start-ups reveals that they evaluate their start-up opportunities and capabilities low and have high fears about start-up itself. Successful start-up cases and expectations motivate pre-start-ups most. Financial support has the top priority in policy demands since investments from angels and venture capitalists are very limited, but human networking, marketing capabilities and strategies and innovative technology - not the financial support itself - are considered key ingredients of

success. Industrial sectors such as IT fusion and contents are regarded as promising ones to be started up in.

Sustainable growth of technology-based start-up ecosystem should suffice three conditions of productivity, robustness, and niche creation, and the latter two, specially niche creation as innovativeness, should be prioritized in resource allocation. Three policy directions that reflect the corollary of those principles as well as policy demands are suggested. To enhance productivity, establishing a step-by-step support system by systemizing given technology-based start-up policies is desirable. Robustness can be effectively obtained by strengthening communication and education programs based on technology start-up centers. Finally, niche creation can be facilitated with more matching opportunities between innovative and market capabilities through various linkages among diverse players in a technology-based start-up ecosystem.

# **Table of Contents**

## ***Chapter 1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Objective of the Study
2. Contents and Methods of the Study

## ***Chapter 2 A Framework to Analyze a Virtuous Cycle of Technology-based Start-up Ecosystem***

1. Definition of Technology-based Start-up
2. A Model of the Virtuous Cycle of Technology-based Start-up Ecosystem

## ***Chapter 3 Milieux and Realities of Technology-based Start-ups***

1. Milieux of Technology-based Start-ups in Korea
2. Realities of Technology-based Start-ups in Seoul

## ***Chapter 4 Policy Demands of Technology-based Start-ups***

1. Overview of Policy Demand Survey of Technology-based Start-ups
2. Analysis of Policy Demands of Pre-Start-ups and Technology-based Start-ups

## ***Chapter 5 Strategies to Establish a Technology-based Start-up Ecosystem***

1. Current Technology-based Start-up Policies
2. Technology-based Start-up Policy Directions
3. Technology-based Start-up Policy Suggestions

## ***References***

## ***Appendices***

시정연 2012-PR-08

## 서울시 기술창업의 전순환 생태계 구축방안

---

발 행 인 이 창 현

발 행 일 2012년 6월 30일

발 행 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025

---

값 6,000원 ISBN 978-89-8052-916-2 9332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속합니다.